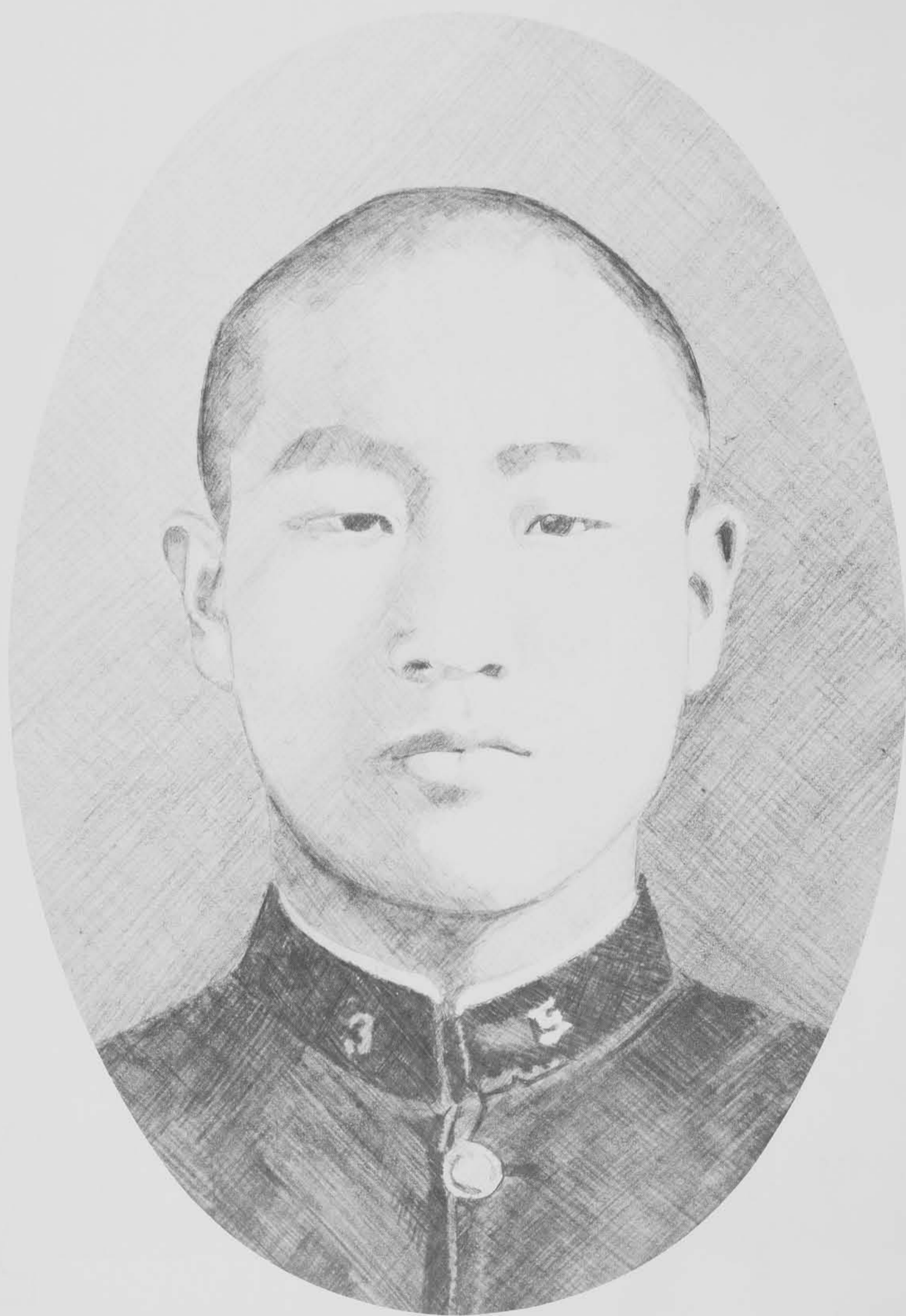






Sun
Myung
Moon
and
His
Family



Contemporary Prophet and True Father

From the North
to the South



北韓에서 南韓까지

김 원 필

1978. 10. 14 NEW YORK 市

WORLD MISSION CENTER 에서

지난날 아버님의 걸으신 길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면 마음이 시원해 지지마는, 아버님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의 가슴이 더 아픈 것을 생각할 때, 울 수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그 억울하시고 어려우신 사정을 참으시고 걸어나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통곡 안하실 수 없을 때에 아버님께서도 통곡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우리들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아버님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철이 없어서 아버님과 하나님을 고생시킨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을 하게 될 때, 그 통곡을 바라보시는 아버님은 우리와 함께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려우면 아버님앞에 나와서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바라고, 우리 가슴이 아플때엔 아버님께서 우리 가슴을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우리들 앞에서 어떻게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실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서는 우리앞에 항상 강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타나 주시지마는, 아버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에게 억울하고 욕을 먹게 되면 억울하게 마련이고 '아버님도 고단하게 일을 하시면 피곤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라서 부모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되면, 하나님의 가슴은 새까맣게 아버님의 가슴은 통곡으로 가득차 있는것을 보여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깊은 사연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온 세상사람들에게 전해 줄 때에, 아무리 어렵고 피곤하더라도 말씀을 전할 대상에게는 어떻게 피곤하고 어려운 사정을 보일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소망에차고 좋은면만 보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생각하면, 아버님의 사정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아버님의 사정을 알고, 이제부터 아버님의 사정을 알고, 이제부터 아버님께서 걸어 오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처음 평양에서 뵈은것은 1946년 7월달입니다. 그때는 아버님께서는 한국나이로 27세, 미국나이로 26세이셨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40년동안 일본의 압제하에 있다가 1945년 이차대전후에 해방이 되고, 곧 이북에는 쏘련군이, 남한에는 유엔군이 들어와서 38선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 할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첫부인에게서 첫아기를 낳은지 두달이 되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운 때이므로 아버님께서는 어느 시골에 식량을 가지러 가시던 길에, 이

길로 이북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늘의 지시에 따라 이북으로 오셨습니다. 38선의 경계가 심했지마는 그경계선을 넘어서 1946년 6월 6일에 오셨고, 제가 7월달에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양에 오신지 한달만인데, 아버님께서는 평양에 있는 성산(거룩한산)이라는 곳에 오르시어 기도를 하시고 오신후에 저를 만나셨습니다. 그 성산에는 평양의 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올라 기도를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때에 유명한 사람의 누이동생이 불치의 병에 걸려 아무런 치료도 무효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거의 낳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꿈을 꾸니까, 아버님이 나타나시드니 '결' 자를 써주시는데, 그 '결' (結) 자를 다 쓰시지 않고 입구자(口)를 빼놓으시면서 그사람보고 그자를 써 넣으라 하시드립니다. 그뜻은 아버님이 아무리 기도를 하셔서 병이 거의 낳았어도 그사람이 자기 책임분담 5%를 해야만 병이 다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누이동생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목회하셨던 곳은 두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영적인 은혜의 생활을 하고, 부부가 별거생활을 하면서 신앙길을 찾아나오던 사람들이었고, 아버님께서 그집을 찾아서 집회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제2차 대전을 중심삼고 일본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동방요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지조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 기도의 생활을 하고, 지조가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 있다가, 전쟁이 끝난후 가정에서 기도만 하든 사람들이 점차로 교회로나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 한국에 기독교는 약 백년의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는 남달리 재림의 사상이 강하고, 영계에서 계시를 받아 재림주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하는 집단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찾아오신 평양이라는 곳은 한국의 제2 예루살렘이라고 많은 영통인들이 증거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올때 아버님의 고향이 있는 북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평양을 중심해서 이북에 기독교가 강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봉건주의 사상이 강해서 여자들이 밖에 나가거나 학교에 다니는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할머니들이나 부인들 중에는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려고 해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성경 읽는것을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들 앞으로 지나가는것도 점잖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집식구들과 이야기도 잘못하고, 식사때는 식구들이 다잡숫고 난 다음에 남은것을 먹었습니다. 남녀간에 연애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결혼도 부모들이 다 맺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여러분들이 이해 하고서 아버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해하기가 쉬울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앙심이 아주 강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전같이 너무 보아서 성경책 모서리가 다 둥그렇게 되고, 찬송가도 곡조를 잘 모르더라도 다 따라부르고, 가사가 6절이든 8절이든 찬송가책도 보지 않고 다외어서 부르고, 찬송몇장 하면 보지 않고도 무슨 찬송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보셨는지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줄을 안 친곳이 없고, 무엇인가 새까맣게 적어 넣었습니다.

by Won Pil Kim
October 14, 1978

Whenever I think back on the road Father Moon has trodden over the years, tears well up in my eyes in spite of myself. Please understand; for me, crying gives me a sense of relief, yet Father, even though he may so desire, is not always able to cry. One who can cry is far more fortunate than one who must hold back his tears. God Himself is witness to how Father has borne in silence all manner of hardship and suffering, and He must have shed a bucketful of tears over his suffering. Father could have shed a bucketful of tears as well. But he never, never lets his tears be seen in our presence. Someday when we, his sons and daughters, understand both God and Father better, when we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we the childish ones let them both suffer for us, and when we repent of our failing and give a heart-rending cry, then I feel sure that Father Moon, seeing our bloody tears, will cry with us to his heart's content.

Each time we face difficulties, we rush to Father in hopes that he will take care of them for us; every time we suffer in our hearts we go over to him, hoping that he will soothe our suffering hearts. Since we are like this, like immature children, then how could Father afford to shed his tears in our presence? When we are in his presence, we unmistakably feel his strength, cheerfulness and hope; yet he must suffer just like anyone else when he is insulted and harassed by persecutors; he is bound to be exhausted after working so unremittingly and relentlessly for so long.

That is why if we fervently pray to God that we may grow up to understand His heart, His love, and our True Parents' heart and love, then God reveals to us that His heart is dark black and Father's heart is full of lamentation. When you truly understand the Will of Heaven and the profound meaning of God's dispensation, it becomes next to impossible for you, while witnessing to people of the world about this, to show them how long you have suffered through persecution or how terribly tired you are. No doubt you'll do your very best to show them only your joyful heart, your sense of hope, and the blessings to come. You'll be aware that you do this, knowing that this is the only way to induce these people to listen to you. When you understand this problem you also understand and appreciate Father's delicate situation. Knowing something of this, I now propose to tell you the road he has walked over the years.

It was in July, 1946 in Pyung Yang, North Korea, that I had the good fortune to meet with Father for the first time. He was then 27 years old (in Korean calculation)—that is to say, 26 years old (in American). After almost four decades of Japanese oppression, Korea was liberated in 1945 right after World War II by America and her allies. Soon thereafter, Korea was divided along the 38th parallel, with the Russian army occupying the North and American troops in the southern half of the peninsula. For this reason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Korean people to cross this line in either direction.

At that time it had been two months since Father's first wife had given birth to their first child. Food then was very scarce, and one day Father went to a remote village in the countryside to get some food for his family. It was then that he

received Heaven's command to proceed to the North and spread God's Word there. In spite of the watchful eyes from both sides of the 38th parallel, Father Moon managed to cross on June 6, 1946. I met him a month later. It happened this way: he returned from Mt. Sung San (a sacred mountain) near Pyung Yang, where he had been praying to God. That very same day Father Moon found me, so to speak. By the way, Mt. Sung San was very famous because many holy men went up there to offer their prayers.

A sister of a certain distinguished man in Pyung Yang was afflicted with an incurable disease. Father prayed for her daily and then she began to recover. One night she had a dream in which Father appeared and wrote a Chinese character or word that looks like this (結). But in the dream he never finished the last three strokes (ㄱ) to complete it. The meaning of this dream is this: no matter how much and how long Father Moon prayed for her, she must do her own portion of responsibility (5%) if she was to be cured completely. This afflicted woman, by the way, was none other than Mr. Ahn Chang Ho's* younger sister.

Around this time, Father's church was simply the home of a certain couple. For a long time, this couple had been leading a very spiritual life, and for this purpose they were living apart, seeking the way of true faith. Father Moon found them and soon began to hold religious services in their home. To understand this couple we must go back several years, to when the Japanese forced Korean Christians to bow respectfully to the East (the seat of the Japanese Imperial Throne in Tokyo) before each religious service. For this reason countless Christians in Korea who had much integrity stopped going to the conventional churches and started their own prayer meetings in private homes. It was only after World War II came to an end that these dedicated and sincere Korean Christians went back to join their brethren in the regular churches. Now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is only about one hundred years old, but Korea happens to be a land where the idea of the Second Coming is traditionally very strong. Because of this belief there were at that time a number of groups who upon receiving revelation from the spirit world, were hard at work laying the foundation to receive the Lord of the Second Advent. Many Koreans who had communication with the spirit world had testified time and again that Pyung Yang was the Second Jerusalem. Christianity had first reached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where Father was born, and in that region Christianity had flourished with Pyung Yang at its center.

Vestiges of old-fashioned (or feudalistic) ways were still very apparent in Korea at that time, and because many who believed that women should not go to school or spend much time outside their homes, old women and housewives were practically illiterate. A large portion of them wanted to read the Bible but couldn't. But some of them, with the grace of God, managed to learn to read the Bible anyway. For instance, it was not socially acceptable for a female to cut across the street in front of a man. After a woman married she was not supposed to talk freely with her husband's family members; she could only eat the leftovers from the table where they had

**He w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leaders of Korea in this century.*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가정에서 오랜 해를 거듭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들은 영계에서 많은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지금까지 그들이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을 모든 신자들이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다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알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생명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목사들이 가르쳤지만, 계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오시지 않은 것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근본에 대한 것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 원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계시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내용은 그와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되므로써 신앙에 자유가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나 산에서 기도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오랫동안 찾아와서 목사님들에게 물어 보았지만,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잡된 신이 가르쳐준 것이니 조심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역시 그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리라 생각하고 간 사람들이 목사님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하니까 마음에 어둠이 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하늘앞에 기도를 하면 다시 하늘에서는 목사들이 잘못 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시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혼자서는 성경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인물, 자기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줄 선생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 때에 아버지께서 이복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진리와 신령으로써 예배를 본다 하는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이남에서 오신 젊은 선생이다 라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마음이 설레는 가운데 진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아버님 계신 곳으로 자꾸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체험을 하고 계시를 받아 오던 분들은 봉건사회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각오하고 그것을 극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는 가정에서의 퍽박같은 것은 일찍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뵈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신약 가운데 있는 로마서를 2주일 동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7월이니까 더운 여름이었는데, 교회가 아주 좁았습니다. (10바이 10) 거기에 가득 사람들이 차서 말씀을 듣는데, 아버님의 그 젊었을 때 (26세)의 정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말씀이 끝나면 그 한복을 벗어서 짜면 물이 나오고 하였습니다. 여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겨울에는 솜이 들어있는 한복을 입으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하시고 나면 그 솜옷에서도 물을 짜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 몇시에서 몇시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고 하는 것이 없고, 식구들이 볼 일이 있어서 일어서지 않는 한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아침 예배시간이 길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짧게 하시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보통 여덟시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통역을 합쳐서 2시간 내지 3시간 하시지요. 통역없이 알맹이만 6시간 내지 8시간을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님이 말씀 하시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계에 들어 갑니다. 예언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런데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을 흔들고, 고개를 막 흔들어요. 그때에 특징은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남에 내려오니까 다 이래요. 그 다음에 손을 부르르 떠는 사람, 자기가 제재를 못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사람, 몸은 가만히 서서 이거로만 춘다고요. (팔을 움직이면서)

그런데 때로는 알아보기 위하여 온 사람이 합당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을 때 영통하는 사람이 눈을 감은채, 눈을 뜨면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다치지 않



already eaten. Romance between young people was unheard of then, and every marriage was arranged by the person's parents. I mention these things to you because you will find it easier to understand Father if you know this social background.

The faith of the Korean Christians at this time was so ardent and strong that their own copies of the Bible wore out; the square corners of the book became round and the binding became loose. They could sing any hymn by heart—with all its verses, even if there were six or eight of them—without the hymnal. As a matter of fact, when the hymn number was given they could sing the song without opening the hymn book. I saw Father's copy of the Bible with my own eyes and this is how it looked: after it had been read countless times, from Genesis in the Old Testament to Revelations in the New Testament, there was hardly a single line that had not been marked or underlined. Scribbblings of all kinds covered every inch of space in the margins of each page.

After many years of prayer, either on a mountainside or at home, some Korean believers began to receive special messages (revelations) from the spirit world. The substance of these revelations was markedly different from what traditional Christian ministers had taught from the pulpit. In America, too, you are told, I suppose, to believe and accept what ministers preach in the churches. In the case of Korean churches, however, the believers were taught to look up to their ministers almost as they would to God, and needless to say, to hold on to the sermons and preaching as they would do to their own lives.

Usually ministers of Christian churches have taught that the cross that Jesus bore was the cross that was to save all mankind; that Jesus was born, providentially speaking, to be crucified on the cross. But these new revelations taught the believers that Jesus did not come only to be crucified on the cross. And this wasn't all. They also received that the fundamental question of man's sin should be understood in a radically different light. In other words, people began to receive some of the teachings of our Divine Principle as new revelation. Normally, a revelation from above removes doubt from our hearts, but since this new disclosure openly conflicted with the teachings of other Christian ministers, some people were in a quandary as to which direction they should take and what to believe. But the country of Korea was now liberated, guaranteeing the freedom of faith and worship, so that the Christians who had prayed at home or in the mountains now decided to return to their respective churches.

After years of absence from their churches, these believers went straight to their ministers with questions about these new revelations they had gotten from Heaven. But all the ministers, without exception, warned them saying: "What you are receiving is all wrong! They are not teachings from Heaven but misleading tricks played on you by false gods. So be careful!" Even today most traditional Christian churches still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let alone accept, this new message. How much more so, indeed, for the Christians of that period! Those believers, who had hoped that their ministers would explain the revelations in plain language, heard an entirely unexpected and different line of argument. Therefore, they had no choice but to return home

with heavy hearts and pray harder than ever. Then Heaven revealed to them that those ministers were badly mistaken. Now, these early Christians, of course, believed in the new revelations in their hearts, but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m by themselves, by studying the Bible on their ow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y were earnestly searching for a new teacher who could explain to them this new revelation. It was at this moment that Father arrived in North Korea.

Soon Father Moon's reputation spread far and wide—it was said that he offered church services in Truth and Spirit. Somehow the word got out that this new Teacher was a young man who had come from South Korea. By now these truth seekers I have been telling you about heard of Father's reputation and as they also wished to dispel the doubt in their hearts, they began to flock to him in droves. Let me explain, those who received the revelations from the spirit world had grown up for the most part under adverse conditions that the old feudalistic society had forced on them. But they were precisely the kind of people who were always ready and able to give their lives for the sake of truth. So the persecution they received meant little or nothing to them.

When I first met Father he taught us from the book of Romans in the New Testament for two weeks. Being the month of July in Korea it was very hot, and what made matters worse, our little church was just a tiny cubby-hole, 10' by 10' perhaps, and always this place was packed like sardines in a can, with all of us raptly listening to Father. Imagine the dynamic energy that he had at the age of 27! He always wore the traditional Korean robe, and after each session, he took it off and squeezed it out because it was dripping wet from large drops of sweat. You might say, "Of course, it was summer." But even in the winter when he wore his cotton-padded robe, it was also soaked and dripping wet after he spoke to us. Once he began to preach, nobody knew when he would ever end or on what subject he would speak. Unless the congregation had to leave or go somewhere on business, Father Moon kept on teaching without stopping.

It may seem to you here in America that Father's morning service is too long, but when I came to this country I was surprised to find out how short his services had become. In Korea it was not uncommon for him to speak eight hours at a stretch. You American members might hear him speak only two or three hours, and half that time is spent in translation. Well, Father used to give speeches without an interpreter, of course, for six or more hours. What was most extraordinary about his speeches was that those early members, after listening to him, became inspired and began receiving messages from the spirit world; others would prophesy or "speak in tongues." There were still others who could interpret those strange tongues! And there were some whose whole bodies and heads shook and bobbed sideways. Several years later, when Father and I went to South Korea, we found that their heads also shook and bobbed up and down. Here is what happened: some people's hands would uncontrollably shake; others, overjoyed, would dance wildly. Their bodies might be stationary, but they danced with arms flinging.

Occasionally, curiosity seekers dropped into the church, people who had a "chip on their shoulders," so to speak. While they sat in the congregation, certain believers, with their eyes

고 사람들 틈을 뚫고 가서 그사람의 등을 탁 칩니다. 그러면 그 맞은 사람은 회계를 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의 영적 분위기는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깨로 불이 확들어 오는것을 느껴요. 또 가슴으로 불이 오면 아주 뜨거우면서도 아주 평화로움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힘이 오게 되면 획 뜬다구요. 불을 받게되면 손이 땀니다. 그럴때는 누구도 제재를 못해요.

여러분, 영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고집이 대단합니다. 영통하는 사람끼리 잘 알맞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가지 아버님은 공석에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아버님과 같이 사석에 앉으면 절대 말씀을 얹하셔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런 신령 역사를 일으켜요.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지만, 그때는 신령 역사가 일어나면 조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참 기쁠때는 조용할 수가 있어요? 소리가 커진다고요. 그 다음에는 몸이 가만히 있지를 얹아요. 기쁘게 되면 발을 동동 구르지요. 가끔 텔레비에서 당선되는것(상품)보니까 그렇대요. 그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챔피언것을 몰라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기뻐다가, 지난날에 하늘의 심정을 몰랐다가 하늘의 심정을 알게될때, 뉘우치면서 막 울어요. 울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노래하고 춤추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예배가 얼마나 조용하지 않았는가 짐작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병들이 깨끗하게 낫아집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원리를 중심삼고 잘 풀어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럴때에 영계에서는 그들에게 저분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선생이 이남에서 오셨는데 가서 만나라,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는데 어디에 계시니 가서 만나라 하는 계시를 받고, 아버님을 찾아와 말씀을 듣습니다. 집회를 하실때는 아버님께서 직접 찬송, 기도, 말씀, 찬송,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주관하셨습니다. 예배를 끝내시고서도 아버님께서 식구들이 가는 것을 싫어하시고 더 오래있기를 원하셨고, 또 식구들도 더 있기를 좋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식구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재미있는것은 아버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남은것을 어느 식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구는 오랫동안 위가 나빠서 고생을 하던 사람인데 아버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먹고서 단번에 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진지를 잡수시게 되면 조금 남기셔서 나를 주었으면 하고 모두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밥은 약밥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음식은 좋은것이 아니지만 자기집의 좋은 음식을 남겨놓고 다들 교회에 와서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는 이야기 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또 하늘에서 가르쳐준대 대해서 너무 기뻐서, 자기 교회목사를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도 나처럼 기뻐하겠지 하고, 교회목사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지요. 그래서 가서 성경을 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목사들이 또 다른 구절의 성경을 대면서 그 말씀을 흔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해하는것하고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

기 때문입니다. 원리 강의록이 있었으면 그런일이 없었을텐데, 그때는 원리 강의록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교회를 창립할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고, 신령한 사람들에 의하여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교회의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목사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생각하기를 젊은 청년이 와서 신학을 한다니 그가 얼마나 알겠는가 하고, 자기가 와서 아버님과 직접 만나서 신학을 토론하면 아버님이 반드시 잘못 된것을 보고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아버님을 찾아 왔습니다.

그때 평양에는 많은 훌륭한 신학공부를 많이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목사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분들이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는가를 알뿐만 아니라, 그 목사 자신에 대하여 또 그 목사만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아시고, 목사가 오면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 목사가 말하기 전에 목사가 알고 싶어하는것을 다 이야기 해주면, 목사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무지 성경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실행사를 한다는것이, 아버님을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공산당국에 투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간부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려움을 입히고 교회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산당국에서는 아버님을 연행해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목사들이 오직 교인들의 헌금에 의하여 교회도 운영이 되고 목사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교회 중요한 사람, 교회의 어머니같은 사람들이 나가게 됨으로 교회운영이나 교인들의 전도에 큰 위협을 받으니까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함으로써 자기교인들을 다시 찾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분들은 가정에서 훌륭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아들된 사람들이었지만, 원리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참된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거짓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은 영계에서 가르쳐 주는데, 부부간이 그렇게 의가 좋았는데 교회를 나오고 부터는 그렇게 가깝던 남편이나 아내가 밤에는 가깝게 오는것이 싫어지더랍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 뿐만 아니라 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사람이 같이 교회를 나오면 자연스럽게 의논해서 조용할 수가 있는데, 한쪽만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나오기 이전보다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더 정성을 드려서 잘해주지마는, 그것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교회 나갈때에는 늦게 들어와도 아무 얘기가 없지마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부터는 늦게 들어오면 의심을 하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를 전도한 분은 저의 삼촌 어머니였습니다. 저의 삼촌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삼촌 어머니가 교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부부생활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삼촌은 의심했어요. 아버님이 잘 생기고 잘 나셨으니까 자기한테서 마음이 떠나서 아버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교회나오는 사람은 그 아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교회 나오는 여자 식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0이나 난 영감 노친내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음란한 집단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tightly closed, would weave their way to those visitors without bumping into anyone, and then they would give them a sharp slap on the back. After that, those curiosity seekers would repent and cry their hearts out. In this kind of spiritual atmosphere faith caught fire and spread. Some people felt the heat of burning fire in their shoulders; for others, fire seemed to penetrate their chests, making them feel warm and peaceful in their hearts. Sometimes the "spirit" came to some who had prayed for a long time in a prostrate position, then they would levitate off the floor. When some received the spiritual fire, their hands got burnt. When this kind of "fire" catches hold of you, you have no control over your reaction.

People who have this psychic-spiritual ability and who are capable of communicating with the spirit world have one distinctive characteristic in common: an unfathomable stubbornness. They "clash" with each other; they cannot get along with one another. One thing about Father Moon is that even though he tends to speak a good deal in public, he is usually reticent and quiet in private. But when he speaks he has the ability to evoke this "spirit reaction" in others. Of course, you cannot imagine such things now, but at that time the spiritual phenomena were by no means quiet and tranquil. When you are engulfed with sheer joy, can you keep yourself still? You have to move around and give shouts of joy, and your feet tap on the floor rhythmically. I have sometimes seen the same thing happen to a lucky contestant who wins a prize. In a moment like that no one seems to be ashamed of his emotions, irrespective of age.

Living joyfully in the grace of God, you come to understand the heart of Heaven which you had failed to know before. This is the very moment when you repent and cry your heart out in relief and joy! Often you will cry deeply from your heart. Then you feel peaceful and joyful and you feel like singing and dancing. Now you can visualize in your mind's eye how boisterous the religious services in our church were at that time. These spiritual experiences could cure chronic afflictions of long standing. And, of course, Father made clear the meaning of the Bible from the standpoint of the Divine Principle, with the result that everyone in the congregation became joyful and an overwhelming sense of confidence descended upon them all. The spirit world truly brought "glad tidings" to them; they believed that this man, standing before them, was the One, the Promised One!

Some people were told by the spirit world to go and meet a young Teacher from the South; others were told to go to a certain place and they would see the Lord of the Second Advent. Eventually all came to Father Moon to tell him why and how they "heard" of him. On every occasion when his followers were gathered together, Father would lead them in hymns and prayers, give sermons, then more hymns and prayers, from morning to night. Even after the services were over, he did not want the congregation to go home. And they too, preferred to stay on where they were, instead of returning to their respective homes. When the services were over, Father used to share a meal with us and I remember one interesting episode. Once he gave some of the food on his own plate to a member. Now this member had long been afflicted with a bad stomach disorder, but as soon as he ate what Father Moon gave him, he was instantly cured of his malady. Thereafter, every

member fervently prayed in his heart, whenever our church family ate together, that Father would give them some of his food. The reason was obvious. Whoever ate it was restored to health. From that time on, the church food came to be called "medicinal" food. Although it was coarse and simple compared to their own home-cooked meals, members invariably preferred to eat the church food.

Overwhelmed with joy through the teaching of Father Moon on the Bible, in addition to the New Revelation from Heaven, many members thought in their hearts, "If I talk to my own minister about all this new Truth, he will be just as overjoyed as myself." Thus they went to their respective ministers and shared with them. The ministers, of course, were more knowledgeable about the Bible than these believers; nevertheless, the members referred to many passages in the Bible to explain the New Revelation to them. But still, the ministers countered their arguments by quoting different passages from the Bible, thus shaking their new found faith. Indeed, there were some whose conviction became very badly shaken. This could happen because it is one thing to "know" something and it is another to explain what one "knows" to somebody else.

If there had been published copies of the Divine Principle then such unfortunate events may not have occurred, but nothing was available in printed form. Now, those early Unification Church members happened to also be the original core members of their own churches and they were often the financial backbone of the church as well. So their ministers began persecuting our members out of spite, perhaps. Those ministers couldn't possibly believe that a young greenhorn, who claimed to be a theologian could know much about anything. So they decided to confront Father and debate with him about Christian philosophy, hoping to convince him of his error. Such were the intentions of these ministers when they came to see him in the company of church family members.

There were many learned theologians among the Christian ministers of Pyung Yang at that time. When they came to visit Father he not only knew in advance exactly what questions they would ask him, but he also knew what they believed in Christian theology. Therefore, when they met together Father went out of his way to be cautious and even before they opened their mouths, he proceeded to tell them what they had come to hear. The ministers had no alternative but to thank Father and return to their churches. Realizing that they could not make headway against him on the basis of the Bible, they conceived a very false and evil plan: they complained to the communist authorities who were then in North Korea, alleging that Father had disturbed the social order and tranquility of the area. The reason they gave for this accusation was that as their churches lost many of their key members they could not continue to maintain the services and this brought hardship and disorder upon them. As a result, the communists apprehended and arrested Father Moon.

I must explain to you that the churches and ministers in Korea were supported solely by the generous donations of their congregations. So when their key members left—the ones who were the financial backbone of their churches—this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internal operation and witnessing efforts of the churches. It was this

이야기 보다는 나의 집안이야기를 하는것이 믿어지겠어서 내 집안 이야기를 했지만,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그 삼촌이(아내를 킵박하던) 통일교회 나가는 자기 아내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것을 알고서 자기 자식들 보고서 통일교회에 나가라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조금 잊어버렸는데 그때 삼촌이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아버님을 때리려고 교회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 냈습니다. 그런 정도 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보고 하는 얘기가(지금은 교회도 잘 나옵니다)그가 죽게되면 통일교회 공동묘지에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체육대학의 학장입니다. 그는 교수들보고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아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학생들에게는 교회에 나가려면 통일교회에 나가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생각하면 원수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번 한국에서 희망의 날 만찬을 할 때에는 삼촌이 와서 아버님께 경배를 드리고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님과 같이 있던 영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영통인에게 또 하늘이 가르쳐 주기를 저사람이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통인이 그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얼마가 있는데 왜 다가지고 오지 않았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돈을 다 갖다 드렸습니다. 이런일 얘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형무소에 들어가서서부터의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1948년 2월 22일 들어가서서 1950년 10월 14일날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나 부르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아버님께서 연행되셔서 조사를 받으실 때에 아버님이 요술을 한다고 믿어서, 조사를 하는중에 아버님이 변소를 가지게 되면, 요술을 해서 없어질까 봐 두사람이 늘 변소까지 따라다니었습니다. 혼자 놔두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니까 아버님을 7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지키더랍니다. 그들은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

拷恨成流

一九七四年五月一日 文鮮明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고 생명을 바쳐 나오던 교인들이 목사들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단번에 자기 나가던 교회를 끊으니까, 아버님은 마술을 하는분이라고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와같은 투서가 공산당국에 자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80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일년 10개월동안의 평양에서의 목회생활을 끝내시고 1948년 2월 22일날 공산당국에 연행되어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일년 1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목회하는 기간동안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식구 한사람 한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세번씩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실 때는 영계에서 식구들에게 어디에 있는 돈을 아버님께 갖다 드려라 하는 계시를 받고서 갖다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것을 다 챙겨서 다 갖다 드리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면 마음에 미련이 생겨서 조금을 남겨놓고 아버님께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아버

키구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눈을 뜨고 주무시는데 그들이 그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거죠. 이런이야기를 하는것은 그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 소문을 믿고 아버님을 대하였는가 하는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질서 문란이라는 죄목으로 5년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 그 내용 가운데 아버님께서 아주 무지한 사람들에게 허위날조해서 재산을 탈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판결문을 다 읽고나서 여기에서 고칠말이 없느냐고 아버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공산치하이니 만큼 어떻게든지 그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고 동정을 통해서 형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지나친 표현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있고 '감사합니다, 또는 '잘봐 주십시오, 하는것이 통에지마는, 아버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허위, 라는 말을 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공산당국은 자기들의 최고 간부들을 모아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나하면, 아버님이 종교 지도자이니 만큼, 또 공산치하에서는 종교를 아편시 하는

problem that prompted the ministers of these affected churches to oppose the new church founded by Father. Also, by so doing they wanted to win back their lost members. I must point out that these so-called "lost" members were good fathers, mothers, sons and daughters at home, but after coming to 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 Principle they came to realize that they had not been born of the True Parents but false parents.

Some strange things happened around that time. For example, the spirit world seemed to work its miracles in mysterious ways. A husband and his wife had been close and loving, but after one of them started to come to the church, he or she loathed the very idea of his wife or her husband becoming intimate in the evening. This strange thing happened not only to the young people but to the old couples as well. But when both the husband and wife attended the church, they became naturally harmonized and loving again. It was clear that marital problems only came about when just one of the couple came to the church. In another instance, a problem arose because although the husband was more devoted than ever to his wife, or a wife to her husband, somehow when it came to physical intimacy he or she could not bring themselves to it. Previously, if one of them had returned from the church late, his or her spouse said nothing. But now if this ever happened at all, his or her spouse began to be very suspicious, indeed. Things like this further complicated Father's problems.

It was my dear aunt who witnessed to me. My uncle did not join the church then. So although they had been very close to each other before she became a church family member, she refused marital relations after she joined the church. Consequently, my uncle became very suspicious. He thought that since Father Moon was so handsome, she had transferred her love for her husband to him. Now what would a man's wife think if he alone attended the church? In this case she would think that her husband was having an illicit love relationship with one of the female members. Even the old couples in their sixties entertained such thoughts. This kind of thing inevitably led to the rumor that our church members were engaged in orgies. The reason that I talk about my own relatives instead of others is that I want to be more convincing.

About 25 years later, my uncle who had persecuted his "Moonie" wife, became convinced that her faith was much stronger than anyone else's and thereafter persuaded their children to join the church in no uncertain terms. I forgot to relate to you one more episode. One time my uncle drank quite a bit more than was good for him and he made up his mind to come to our church center for the sole purpose of beating Father Moon up. The situation was, to tell you the truth, that bad. Yet now, after so many years, my uncle is a member in good standing and he is in the habit of reminding me that in the event of his death I must promise to see to it that he is buried in the Unification Church burial ground. He is now the dean of a certain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He is also known to tell his colleagues if they wish to have faith at all, it should be like his wife's. He tells his students that if they want to attend any church, they should join the Unification Church. From Father's standpoint, my uncle could have been a kind of former adversary, yet at the Day of Hope banquet, my uncle came and bowed very humbly before Father Moon with all the

reverence and sincerity at his command. His surrender was unconditional.

As I have already told you, our early church family members could not have been more dedicated and enthusiastic; they would not listen to the pleadings of their ministers, and after hearing Father's speeches, they stopped going to their own churches altogether. This led to the rumor that he was a magician, or a male witch. Many letters denouncing Father Moon with this kind of description reached the communist authorities. Father Moon's witnessing activities in Pyung Yang, which had been going on for one year and 10 months, came to an end. On February 22, 1948 he was escorted to the communist police station.

During that one year and 10 months when Father preached to church family members, there was never a single day when he did not shed tears. He prayed three times a day for each and every member. Whenever he needed funds for the church, the spirit world directed members to bring money available to them to such and such a place. Now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someone who meant to bring money one morning, but later he thought better of it and kept some portion of the money at home. When that person finally did bring the money in, there was somebody else there who was spiritually open and who had received a message from spirit world about that person who was bringing the money in but had kept part of it at home. When he asked that person why he still had some money at home and had not brought the entire amount, the culprit repented and brought the rest of the money to the church. If I keep on telling you these happenings I will never finish, so I'll continue to tell you what happened to Father after his imprisonment. He was imprisoned on February 22, 1948 and was released on October 14, 1950.

While Father Moon was being interrogated by the communist police at their headquarters, they had already heard that he was a magician of some sort. They believed the rumor, so when Father had to go to the men's restroom, two guards accompanied him to keep him from escaping. He was never left alone because of this fear, and they didn't let him sleep for seven days and nights. They took turns guarding him, with only one guard going to sleep at a time. But Father had learned how to sleep with his eyes open wide, and none of the guards could suspect this was the case. I'm telling you all this just to show you that the communists also believed all the false rumors about him.

Father was sentenced to a 5-year imprisonment on the grounds of disturbing the social order. The contents of the verdict that the District Attorney read also contained the charge that he stole private property from innocent parties by fraudulent means. When the District Attorney finished reading the verdict, he asked the defendant (Father) if he had anything to say in the way of rectifying any error in the judgment. Under communist rule a defendant knows what he is up against so he normally attempts to receive a lighter sentence by flattering the judge, i.e., by saying, "Thank you very much, Sir!" or, "Please consider my case with mercy!" But Father never spoke in this vein; he merely requested that the word "fraudulent" be stricken from the record. The communist authorities also had a hidden objective in the trial. They wanted to educate and train their Party members by making an example

만큼, 그것을 교육하기 위하여 아버님에게 고위로 질문을 유도하기를, 아버님이 과학도라고 듣고 전기는 어떻게 만드는가로부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전기 발생에 원리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 질문을 한것은, 보이지 않는 전기도 사람이 만들어 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하느냐, 하는식으로 자기들의 간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꼭 같은 것이지만, 공산당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기독교가 공산당 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아버님을 없애려는 수법이라는 것은 남한에서도 만찬가지였고, 여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년전에 예수님 당시를 회상해 보드라도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그 많은 교회지도자들과 공산당들이 입주의 여지도 없이 방청하는 가운데서, 처음 공판에 나서서도 큰 기지개를 하시면서 여유있게 참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는것을 보고서, 제가 늘 평양에서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면을 보고 크게 생각하는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확정을 받으시고 이제부터 기결수있는 형무소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한손에는 사슬이 채워있고, 다른 한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내가 이제 가지만 내가 돌아올때까지 잘 있도록, 하는 희망의 암시를 주는 미소를 지으시고 머리를 뽀뽀하는 모습으로 가시는것을 보고 우리들은 헤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가운데서도 참으로 희망에 찬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님께서 말씀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형무소에 들어가시기전에, 형무소에서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청년이 있다는 계시를 받고 희망에 찼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5년 언도를 받으시고 기결수가 넘어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른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드립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날 모르겠느냐고 물었대요. 그분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하든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아참 그렇구만요, 하드립니다. 그가 하는 말이 지난일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다 용서해달라고, 위에 지령에 의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먹을 것을 들여주고 떠났습니다. 그런것을 보게 될때 아버님이 죄없이 죄인으로 서시게 된것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형무소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르는데 그때 아버님의 번호가 596번이었는데, 그 번호를 부르면 그말이 오구록, 억울하다 하는말과 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기결수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들어가시게 되는 그 방에는 사형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남한에 인민국 고급장교이고, 왜정시대에 일본에 포병학교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해방이 되어서 인민국 사령관의 지극한 심복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자리에 있으면서 이북의 군기를 이남으로 유출시켰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언도를 받고 사형수로서 독방에서 사형날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비몽 사몽간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소리가 들렸대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름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무소리를 앓았대요. 그런데 또 세번째 이름을 부르드래요. 그래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깐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대신에 너는 이남에서 올라온 젊은선



御生誕之地・韓国平安北道定州

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중에 하루는 자기이름을 불려서 이제는 내가 집행되는구나 생각하고 나가보니, 뜻밖에도 자기 형이 사형집행에서 3년형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관이 소련에 군사회의가 있어서 소련에 다녀와보니, 자기 심복 부하가 그렇게 된것을 알고, 그 상관이 자기가 전체적인 책임을 질테니까 그를 살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기쁨에 차서 할아버지가 얘기해준일을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할아버지 음성이 들리는데, 그소리가 아주 노한소리로 '네가 내애기를 잊어 버렸느냐. 젊은 선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찌 잊었느냐,고 책망하면서 할아버지가 없어졌는데 그자리에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더래요. 그 아버지가 하는말이 내가 그 젊은 선생이 있는데를 안내해 주리라 하는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뒤를 따라 큰 계단을 올라가 보니 큰 대궐이 있는데 그안에 임금이 앉는 큰 용상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말이 '이제 내가 그 젊은 선생을 보여줄테니 큰절을 세번을 하라, 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큰절을 세번을 하고나니, 아버지가 또 '자 이제 고개를 들어라,고 할때 들어보니 휘황찬란한 빛이 있어서 볼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눈이 부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럼 가자,하고 아들을 데리고 층계를 내려 왔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계단을 내려와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와는데 그것이 비몽사몽간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미스터 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기억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방에 아버님이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 학생시절부터 여러차례 형무소나 경찰서를 드나들으셨기 때문에 그 규칙을 잘 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

of Father's case. After all, he was a man of religion, and in the eyes of the communists, religion was an opiate of the masses. So they deliberately opened the trial by a clever lead question: "How do you generate electricity?" Then Father explained the principles of electricity. But the purpose of the question was to show that man generates electricity, which is invisible, so why did Father claim that the non-existent God exists? (Didn't it logically follow that this invisible God was also merely "generated" by man, just like electricity?) Those questions were intended to train the Party members.

We should always bear one thing in mind; in the past as well as the present, one thing is clear. Although Christianity has no similarity to communis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here in America as well, Christianity joined hands with communism and attempted to destroy our Father Moon. To understand this we must go back 2,000 years to examine the social conditions and religious assumptions that led to the crucifixion of Jesus. What impressed me most on that first day of Father's trial was that while the communist officials watched him—as did many of his followers who were waiting in trepidation—Father leisurely stretched his arms and shoulders with an air of unassuming dignity and fearlessness. I had observed these same qualities before in him as he preached in the church. Now, as he received his pre-arranged verdict of guilty and his sentence to be sent to a cruel prison, Father remembered to wave his unchained hand (the other was manacled) and give us a smile of hope, as if to say, "Though I'm going, take good care of yourselves until I return!" We watched Father's shaved head as he was led out of the court and everyone dispersed in silence.

Amidst all this, Father Moon was always full of hope; years later he told us why. Before he went to jail he had received a message from the spirit world that a young person was already waiting for him in the prison. While sitting in the lounge before he was formally imprisoned, Father bumped into the judge who had sentenced him to a 5-year-prison term. The man pretended not to recognize him and started to go the other way, but then Father asked him whether he remembered him or not. The judge wanted to pass him by, ignoring his presence altogether, but when Father had the "guts" to speak to him, he had no choice but to answer: "Ah, yes, I do!" Then he continued to speak, mumbling under his breath, asking Father's forgiveness for what had transpired a few days earlier. He claimed that he had merely been following an order from his superiors, and that he had had no alternative. Later, he provided some food for Father and put it into his cell. All this clearly proved beyond a shadow of a doubt that Father was completely innocent even though he was pronounced guilty.

In the prison everyone was called not by their names but by their numbers, and Father's number was 596 (o-gu-ryuk). When this number is called out in Korean, it sounds like the words meaning "grossly and cruelly mistreated." (The Korean connotation is far stronger than the English.) Now, in Father's cell there was a prisoner who was soon to be executed. He turned out to be a high-ranking officer i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guerrilla) working in the South. He was a graduate of the Japanese Military Academy, an artillery officer, and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he became the aide-de-camp to the

commander of the People's Army. He was accused of having shipped some of the military material to the South while he was in that vital position. At any rate, he was locked in a solitary cell after he was sentenced, waiting for the day of his execution. One day, while he was half asleep and half awake, he thought he heard someone calling his name. He thought it was strange under the circumstances, and as he sat lost in bewilderment, he heard the voice a second time. Still he kept silent and said nothing. Soon the voice called his name a third time. This time he answered "Yes?" An old man with snow-white hair materialized before him and solemnly declared: "You'll never be executed. Instead you must make preparations to meet with a young Teacher from the South." All this happened to the prisoner in his state of being half awake and half dreaming.

One day after this extraordinary event, this man's name was called. He could not help thinking that his time was up. Slowly, he dragged his feet to the door. But then he was told that his death sentence was commuted to a three-year prison term. The reason for this sudden about-face was that his superior commander, who had gone to Russia to attend a military conference, returned to find his most trusted aide in jail. He requested a pardon for the prisoner and promised to assume the entire responsibility upon his own shoulders. I believe the joy of the prisoner must have been beyond description. But in his joy he had already forgotten about what the old man had said to him. Once again he heard that same voice in a state of half dreaming, and this time the voice sounded angry. "So you forgot what I told you, eh? How could you forget to make preparation to meet the young Teacher?" The old man vanished like a will-o'-the-wisp, and in the same instant his own father materialized on the spot and said, "Son, I'll lead you to where the Teacher is." They both went up some steps that led to a gigantic image of the Dragon Seat upon which a King sat. The father said to his son: "I'll let you see the young Teacher, so you must bow very humbly three times." They both bowed very low in a prostrate position, touching their heads to the floor three times. Then as they were getting up, the father said, "Now lift up your face and behold!" But the son could not see well; the resplendent light blinded his eyes and he had to close them tightly and bury his face in his arms. "Let's go back, son," the father said, and they both descended the steps. Just as the son touched the last step, the father disappeared. Soon the prisoner came to his senses, and was confused and flustered. By the way, his name was Mr. Kim. I hope that you will remember his name. Now it was into this Mr. Kim's cell, meanwhile, that Father had been put. He had been in and out of many jails and police stations because of his involvement in political action for Korean independence. So he knew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prison system by heart. As soon as Father arrived in the cell, he introduced himself to Mr. Kim and the other prisoners, 20 in all. As a newcomer he was expected to sit and sleep nearest to the open toilet, so he proceeded to go there without being told.

Now Mr. Kim had been in this cell the longest, so naturally he was the cell boss. Somehow he found himself examining the new prisoner (Father) very carefully—but surreptitiously. More and more he felt very strongly drawn to him, until at last he wanted to have Father sit right next to him so he

시자 마차 인사를 하고는, 그 감방안에는 20여명이 있는데 그 구석에는 번기통이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번기통 제일 가까운곳에 앉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 번기통옆으로 가서 앉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미스터 김이 사형수로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감방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만이 보니까 마음이 자꾸 끌려서 자기 옆에 앉히고 싶고 무엇인가 자꾸 물어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권한을 행사해서 아버님을 끌어다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자꾸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님께서는 좀처럼 말씀을 안하십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감옥에서는 삼가하시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로서 감옥에 들어왔다가 고문을 해도 불지 않으니까, 가장해서 공산당원을 감옥에 넣어서 억울한 사정을 서로 얘기 하게되면 동지인줄 알고 못했던 비밀의 얘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있는것을 아버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좀처럼 말씀을 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는 그사람의 뜻을 아시고 '로렌스'라고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버님에게서 싸워나오시던 로정을 말씀 해주셨다 합니다. 그런 아버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전에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때부터 미스터 김은 아버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달쯤 계시다가 두분이 같이 홍남이라는 곳으로 이감하게 되었습니다. 홍남 수용소에 가보시니까, 거기서 주는 식사가 얼마나 적은지, 사람들이 그 식사를 먹고 석달이 못되어 건강이 쇠진하여 죽어 나가드랍니다. 그 식량이 적은데다가 중노동을 시키니까 더욱 그러했읍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 저사람은 7개월밖에 못가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7개월이 못되어 죽더랍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주어진 식사로 5년을 지탱하여야 될텐데 5년을 견뎌낼수가 없을것 같았읍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밥을 큰술갈로 떠먹으면 몇순갈로 끝나니까, 그래도 오래 먹으면 많이 먹었다는 심리적인 도움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밥알을 하나하나 세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래 노동은 힘들고 배는 고픈 생활은 계속되니까 몸이 안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먹다가 쓰러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중에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죽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런 행동을 본능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먹다가 돌이 있어서 입에서 내놓은 것 까지도 갖다가 먹는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겠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소량의 음식을 가지고 5년을 이겨내느냐를 생각하시고, 그음식의 반을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반만 잡수셨답니다. 아버님께서 그 반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5년동안 먹는 것이다'하고 생각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석달이 다 지나신다음에는 그것을 다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내똥인데, 요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외로 주시는것이다. 생각하시고 두똥을 먹는것으로 생각하시고 배를 부르게 느끼실 수가 있었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버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50일에 한 사람의 센터 멤버를 얻도록 하자 하는데 있어서, 아버님의 생각을 따른다면 우리는 25일에 한사람의 멤버를 얻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항상 생각해 주실 것은, 아버님께서 공산치하의 형무소 생활 5년 동안에 사탄으로서는 다른사람 다없애 버려도 아버님을 없애버리지 못하면 사탄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다 그냥 두드라도 아버님만 없애면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아버님을 어떻게 없앨수 있을까 하는것을 궁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서는 정말 유리하게 아버님을 자기권안에갓다 수용시켜 놓았읍니다. 타락한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었다고 되어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도 어느인간을 내것이다 하고 취할수 없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취할수 있는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이 취하고, 인간이 사탄이 취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세우면 사탄이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확실히 알아 둘것은,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고 싶어도 머리칼 하나도 해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어느때 하나님이 사탄이 해치도록 허락을 할수있읍니까? 그것은 사탄이 취할수있는 조건을 제시할때입니다. 옛날 사탄이 예수님을 삼대시험 하듯이 사탄이 얼마나 아버님을 해칠조건을 잡으려고 애썼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먹는문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더 많은 음식을 주시고 심한 노동을 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수도 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읍니다. 그와 반대로 아버님께서는 이것이 내똥인데 이반은 하나님이 더 주셨다하고 생각하고 적게주는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늘이 이배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아버님에게서 사탄은 아무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일을 하시는 아버님을 사탄은 취할 수가 없읍니다. 조건을 잡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때에 아버님께서 옥중에서 좀체로 말씀을 안하시지마는, 일을 하시다 점심시간에 말씀을 해준 한사람이 있었읍니다. 그사람은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이었읍니다. 그 사람은 형무소에 수용된 2, 3천명의 총감독을 지닌 죄수이면서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한은 컸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요한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다 합니다. 그사람은 젊었을때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집사도 지낸사람이었는데 그후에는 교회를 떠났읍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자 크게 반발을 했읍니다. 그가 반대를 하게되는 날이면 아버님의 신변에도 큰위험

跳字體

一九七八年十月二十日之5805

could question him about whatever he might know. Because of his position, he could call the new prisoner to sit beside him, so he did just that. But no matter how much he begged him to say something, Father remained uncommunicative. The reason was that most of the prisoners believed in democracy but adamantly refused to betray each other even under the most cruel torture. So the communists, in order to get evidence against certain prisoners, might plant one of their comrades in the cell. There, in the guise of the most maltreated prisoner, he might pretend to be friends with certain prisoners in order to worm the truth out of them. However, Father soon realized that Mr. Kim's heart was sincere, and so he told him all about his struggle under the assumed name of "Lawrence." While Mr. Kim listened, he was suddenly reminded of what the old man had told him. From that time on he became Father's disciple.

About a month later, Father and Mr. Kim were both transferred to another prison in Hungnam. The food rations given to the inmates of Hungnam prison were so meager that normally after three month's time their health broke down completely and they dropped dead like flies. With the insufficient food and hard labor, their chances of survival were very minimal. Father soon could take one look at a prisoner and say to himself, "He'll last seven more months at most!" And the prisoner in question would die within that period of time. But Father had to survive on this small and meager ration for five years to come, and it became very clear to him that even he, with his iron constitution, would in no way last that long. That was not difficult to figure out since his daily "meal" only consisted of several spoonfuls of rice. There were among these prisoners some who had the idea that if they prolonged their mealtime they would feel as if they had eaten a lot. So they counted each grain of rice before they popped it into their mouths. No matter how you look at it, they were more overworked than slaves and were always extremely famished, with the inevitable result that some of them just fell over dead while they were eating. When this happened, anyone who had seen it would grab his food without regret; no one felt sorry for the dead. The one who grabbed just reacted to the situation instinctively, that's all. Sometimes, to cite an extreme case, someone would bite a pebble in his rice so then he would spit it out along with a few grains of rice. Can you imagine, brother and sisters, somebody else would grab that spit-out rice and eat it himself! Father Moon had no choice but to think out very carefully how he would survive on this starvation diet for five more years. Then he proceeded to give away half of his ration to others and eat for himself only the remainder. Father thought to himself: "This half ration is all that I can live on for the next five years." Then after three months he began to eat the whole portion. And he thought again, "This half is mine. The other half is an extra portion that God has the mercy to give to me!" After that he always felt well-fed.

When we think of Father in this dire situation, we must realize that if we are to get one new church family member every 50 days, then we should follow Father's example and get a new spiritual son or daughter every 25 days. While you listen to me now, please bear in mind one thing—even if Satan eliminated everyone else, he would never achieve victory if Father survived

those five years in the communist prison. In other words, if Satan had been successful in making an end of Father and no one else, then Satan would have triumphed as the Lord of Cre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Satan must have contrived and schemed in every possible way he could think of to dispose of Father Moon, by fair means or foul. Satan undoubtedly had the advantage because he had put Father Moon where he wanted him to be. Fallen man is willing to serve two masters. For this very reason, neither Satan nor God could ever take the position that this or that human being was theirs and theirs alone. If a person sets up the conditions acceptable to God, then God will accept him, but if he sets up bad conditions, Satan will take him. One thing you all must know is that Satan can't possibly harm a person, not even a hair on his head, unless God grants His permission. Then when does God permit Satan to perpetrate such horrible things? Well, it is only when man makes the bad conditions. Jesus was given three tests. Imagine then, brothers and sisters, how hard Satan tried to tempt and harm Father.

Brothers and sisters, he could have prayed to God for more food and less hard labor, but he never prayed from this kind of weakness. On the contrary, he told himself that only this half portion of food was his and then God gave him the other half as an extra portion. Father did not feel sorry for himself because of insufficient food, but rather considered himself lucky to enjoy double rations. This was why Satan could not find any condition to invade. Father did all that hard labor above and beyond the call of duty. So how could Satan destroy him?

Father Moon seldom spoke to the other prisoners while serving his jail term, but there was one person he spoke to during the brief lunch hour. This was Mr. Pak, a prisoner in charge of 2 or 3 thousand other prisoners. This made him a very powerful man in the prison. Father told him how John the Baptist had failed to fulfill his mission. Well, in his youth Mr. Pak led a very spiritual life, and had become one of the deacons in his church, but later he left the church. Now, when he heard Father, he reacted very negatively, with a glint of hostility in his eyes. If he chose to, he could have easily jeopardized Father Moon's very life. But Father merely said to him, "You shouldn't, you know!" and briskly left him. That very night Mr. Pak tossed and turned in his bunk and could not sleep, tortured and agonized. Then an old, white-haired man materialized before him and rebuked him, saying: "Who do you think that #596 is? How dare you to oppose him!" Mr. Pak, exhausted and terror-stricken, apologized to the old man, and then he no longer felt so agonized.

The next day Father went over to Mr. Pak during their lunch break. The first thing he said to Mr. Pak was: "Did anything special happen to you?" Mr. Pak thought it was really strange that Father already knew although he had had no chance to tell him, but he related to him all that had transpired the previous night. Thereupon Father told him how Mary, the mother of Jesus, failed to fulfill her portion of responsibility. Mr. Pak could not believe his ears, and still less could he believe Father. He objected strenuously. Father merely said again, "You shouldn't, you know!" and left Mr. Pak. That night Mr. Pak found himself more agonized and restless than the preceding night. And then he admitted to himself that he was mistaken and sorry, whereupon he felt better

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단 한마디 “그러면 안될텐데” 하시고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날밤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게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네가 596번이 누구인줄 알고 반대를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더라고요. 하도 몸이 괴로워서 잘못했다고 하니 몸이 깨끗해지더라고요.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아버님께서 그사람을 또 찾아왔습니다. 첫번째 하신말씀이 “어제 무슨일이 없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사람은 아버님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님께서 알고계신것을 이상히 생각하고 밤에 있었던일을 다 말씀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사람은 그말을 듣고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또 “그러면 안되지” 한마디 남기시고 헤어지셨습니다. 그날밤에는 어제보다도 몸이 더 괴롭고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

면, 왜정시대부터 축적되어진 굳은 비료산을 깨가지고 그것을 실어다 가마니에 넣어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끌어서 객차에 올려놓는 것인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 있는 사람도 7개월만일을 하면 1년을 살수있을만큼 중노동이고 급료도 컸다고 합니다.

그일을 하는데 하루의 책임량이 있어서 열사람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여덟시간동안에 1300가마니를 실어내는 것입니다. 한가마니의 무게는 40키로그램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섯 파트가 있어서 두사람이 한팀이 되어서 한파트씩 맡아서 다섯팀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섯파트중에서도 가마니에 담아놓은 비료산을 끌어다가 저울위에 올려놓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짝이 되어서 저울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사람이 일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혼자하셔야 되었습니다.

여덟시간안에 1300개를 해내지 못하면 전부 밥을



말 잘못했다고 회계를 했더니 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를 또 만났는데 아버님께서는 더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밤 또 고통이 시작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너 이래도 모르겠느냐” 하고 나무랐습니다. 세번의 그런 경험을 하고 그는 아버님의 두번째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존재를 모를 때에는 그렇지만 아버님을 알고난 후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제일 쉬운일을 찾아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버님께서는 가장 어려운일을 찾아서 하셨습니다.

사탄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시험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해서 하늘이 다 가르쳐주어서 뜻을 알고 따라나온 사람이 권면하는 일을 받아드려야 될 것 같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어려우신일이 무엇인가 하

감해준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게 되면 밥을 반밖에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기때문에 아무리아과도 밥을 반감하는것이 싫어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비료담는 부대라는것이 나이롱이나 종이로 되지않고뱃집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오래동안 계속하면 살이뭉고겉질이 벗겨지고 살이 달아서 뼈가 나오게 됩니다. 그뼈가 들어난속에 유산암모니아가 닿으니까 그아픈것은이루 형용 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뻘스하나를 입고 겨울철에도 땀이 흐른다고 합니다. 여름에 아버님께서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12일을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다른사람들은 밥을 먹기위해서 아파도 나갔지만, 아버님께서는 이것이 타락의 보응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감사히 받고, 온 선지선혈들이 뜻길을 가다가 비참히죽어간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원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일심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아침에 공장에 나갈때는 모두 얼굴을 들

again. The following day they met again and Father told him something much more unbelievable than anything he had said previously, and Mr. Pak again got very angry—almost violent. That night he was again beset with anxiety and restlessness, tossing and turning in his bunk, and again the old man appeared to him and rebuked him harshly: “You don’t understand, you fool!” After going through these very extraordinary events three days in a row, Mr. Pak right then and there became the 2nd disciple of Father Moon.

Before coming to know Father, Mr. Pak had not done any favors for him, of course, but now that he had become his disciple, he was determined to find the easiest work for him. But Father refused to accept it. On the contrary, he went out of his way to do the most difficult labor.

Satan tries to tempt man through those who are closest to him. On the surface, it seems Father Moon should have accepted the things offered to him by his followers—those upon whom

were to do this job, but his partner managed to disappear most of the time, leaving Father to do the work alone.

If a team of 10 men did not finish the 1300 bags in 8 hours, then their food ration was cut in half for the day. Though their exhausted bodies ached with pain, they had to grit their teeth and go to work just to get the miserable “entire” ration. The fertilizer bags were not made of nylon or heavy paper, but only of rice straw. The straw was very abrasive and after a while it cut into the flesh and in the worst cases the bones became exposed. When the sulfuric acid and ammonia in the fertilizer got into the exposed flesh and bones, you can imagine the excruciating pain.

Even in the coldest winter a prisoner only half dressed would sweat. Father once caught malaria in the summer and was hanging on to his life by only a thread for 12 days. The other sick prisoners went to work just to get food. But Father regarded his sickness as indemnity caused by



Heaven had bestowed mercy in letting them understand the dispensation. But Father took the more difficult way instead.

The most difficult chore in that prison camp—the one which Father did—consisted of breaking up the rock-like fertilizer that had been piled up for several years—ever since the days of Japanese rule—and carrying it away in bags. These bags would be weighed on a scale first and then carried onto a freight car. It was the most demanding kind of labor, and normally this job paid the highest wages, such that seven months of this type of labor could support a family for a year.

However, in the prison this job had a quota. A team of 10 men had to finish 1300 bags in eight hours. Now each bag weighed 88 pounds (40 kilograms). Furthermore, the job was divided into a series of five different tasks. Two people on each team took care of one task. Of them all, the worst task was to carry the fertilizer bags and weigh them on the scales. Father and a partner

the human fall, and accepted his illness gratefully. He went to work each day, not for the sake of the food, but for the sake of all the countless saints and prophets who had been sacrificed miserably in their pursuit of God’s will. With the determination to liberate them from resentment, he overcame all the difficul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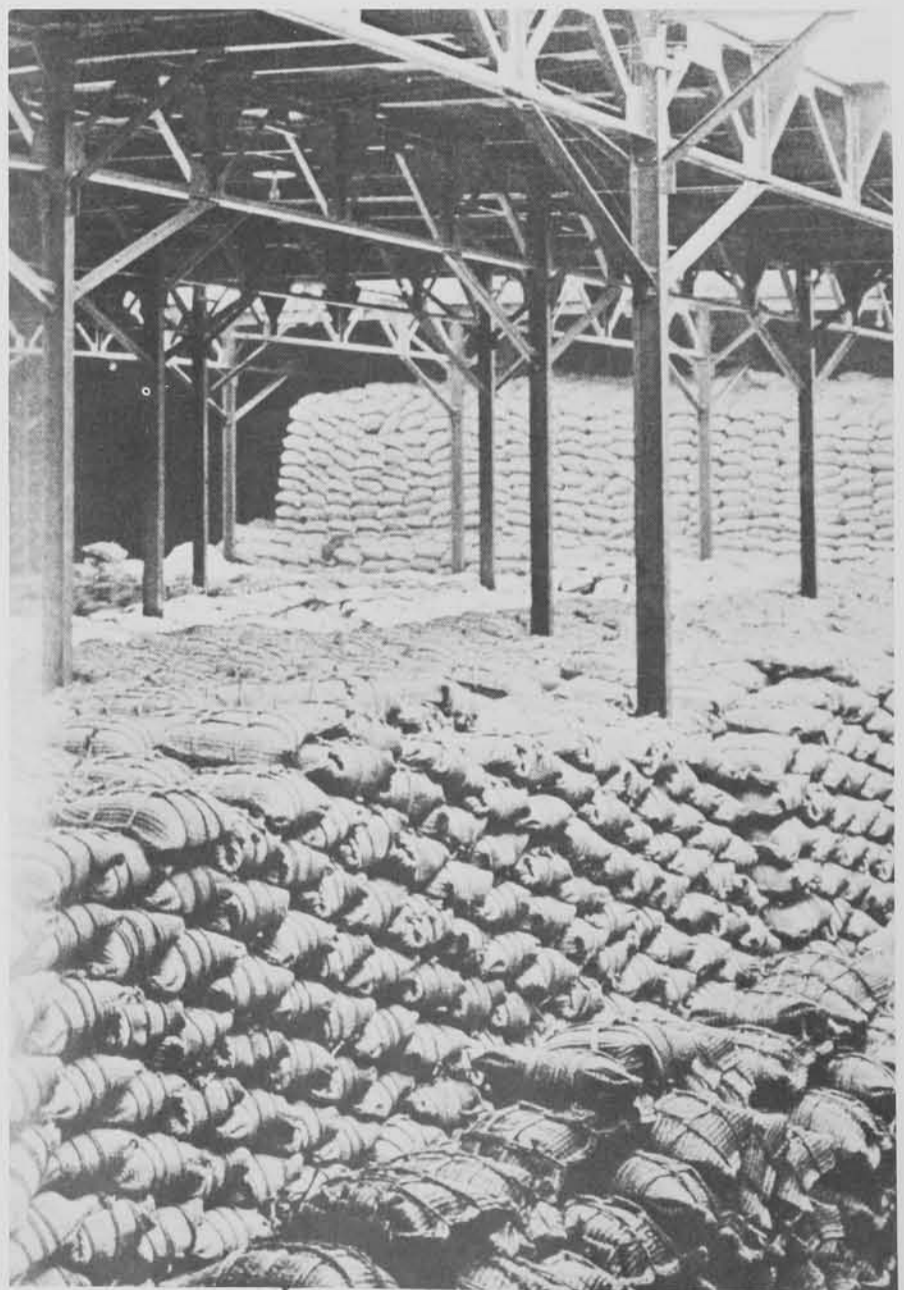
In the morning when the prisoners were marched to the factory, they walked in a formation of 8 people. They were told to hang their heads like criminals and to hold hands with the other prisoners. The reason for this was so that they could not look at each other or at anyone else, or make signs or signals with their eyes. This was important because they had to go through city streets where people were gathered to get to the factory. While they dragged their weary feet, most prisoners had saliva drooling from their mouths, and some of them, too sick and exhausted, would fall by the wayside. This terrible ordeal lasted two years and eight months for Father.

지못하고 숙여야되고 여덟사람이 행렬을 지어가는데 여덟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한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게 함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눈으로도 신호를 교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내를 지나서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내에는 사회사람들이 있기때문 입니다. 그럴때에는 입에서 자꾸 침이 흐른대요. 그리고 걸을때는 자꾸 발을 헛디디면서 쓸어진대요. 그와같은 옥중생활 2년 8개월동안에 아버님께서는 한해씩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특별 노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뜻으로 이것을 새겨보게 되면 사탄이가 아버님을 어쩔 수 없으니 우리도 아버님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하는것으로 해석 할 수가 있습니다.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님께는 재미나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특별한 일없이는 말씀은 안하시지만 아버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자꾸 음식을 보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상이 혹은 그영인들이 나타나서 어느방에 있는 596번에게 이것을 갖다드려라 하고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먹을것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나 주시기를 위하여 평양에 음식이나 옷이나 이불을 보내달라고 글을 보내셨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면회를 갔을때보면, 옷을 드렸는데도 아버님께서는 늘 기워진 헌옷을 입고 나오세요. 그것은 아버님께서 그받으신 것을 그분들에게 다 노나 주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량을 적게 주지만 사회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밖에서 친척이나 부모들이 그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것을 들여주는것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옥중에서 먹는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먹을것이 들어오게되면 그것을 방에다 아무데나 놓지않고 잘때도 꼭 배게로 삼아서 머리맡에 놓고 잤읍니다. 그것은 자는 새에 몰래 다른사람이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방에 한구석에 놓고 잠수실 때는 언제나 노나주고 잠수시키고 하셨습니다. 다 노나주어서 먹기때문에 그 음식은 아버님 것이지만, 거기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것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버님은 잘 몰라도 다른사람은 잘 알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아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배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니다. 자꾸 줄어들면 없어지면 어떻하나 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루는 틀림없이 요만큼있었는데 분량이쑥 내려 갔드랍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누가 먹었는지를 알고 자기것도 아니면서 화가 잔뜩 났읍니다. 그렇지만 야단은 못쳐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버님께와서 저사람이 저걸 먹었는데 야단 안치니까 우리가 혼내줄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했단말대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하시드래요.

다음날 저녁에 아버님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시고 남은 음식을 방가운데 놓으시고 그사람을 불러서 그릇을 주시며 네가 먹고싶은 만큼 떠가라 하시드래요. 그러니까 그이는 머리를 푹숙이고 가져가지를 못 하드래요. 아버님께서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람에게 안겨 주드래요. 다른 사람들은 잔뜩 기분이 나빠요. 먼저 먹은것도 미운데 또 그릇가득 주니까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은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멤버가운데 잘못된 사람이 있어서 주위에서 그사람을 책해야 됩니다하고 권할때 여러분은 어떻





During this period he was awarded a special prize each year for his hard labor. He was chosen for this prize from among 3,000 prisoners. The deeper meaning behind Father's tribulation is that even Satan had no power over Father, and that even Satan should follow the example that he set for us.

Even during this terrible indemnity period, many interesting things happened to Father. He seldom spoke, never opening his mouth unless the situation demanded it, but many people who did not even know him smuggled in food for him. They later confessed that their dead ancestors or spirits would materialize out of nowhere and whisper into their ears: "Bring this food to number 596 in the prison." Father always shared his food and clothing with other prisoners, and sometimes he wrote to his friends or relatives in Pyung Yang. Now when we went to see him in prison, he always came out dressed in old, patched-up rags, although we had sent him fine clothes. So we knew he had given away his gifts to the others in the prison.

The communist prison gave so little food to its inmates, but in order to avert a public outcry they permitted the parents and relatives of prisoners to bring food and clothing. In that prison, food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whenever prisoners received any from the outside, they never kept it where others could find or take it. They always hid it under their pillows where they slept, so the others couldn't steal it. As for Father, whenever he ate any extra food in his room, he always gave some of it to the others there. Because he always shared his food, his cellmates looked upon it as their own. Even when he himself did not know how much was left, the others knew to the last ounce. Why did they know this so well? Because they felt that it belonged to them. They were always so hungry and they were afraid the food would all be gone much too soon. One day, however, Father found that the amount of food that should have been there was reduced considerably. The other prisoners knew who had eaten it and they became very angry, even though it was not their food at all. But they could not punish the culprit—after all, he did not really steal from them. So they went to Father and pointed out to him who the culprit was, and begged him to let them punish him without mercy. But Father said nothing—nothing at all.

The next evening Father invited all of his cellmates and placed the remainder of his food in the center of the room. He handed a plate to the thief and said, "You may take as much as you can eat." The guilty one dropped his head in shame and didn't dare to take any food. Father piled up as much food as he could on the plate and guided the hands of the guilty one to take it. The other prisoners were outraged. It was bad enough that this culprit had stolen the food, but now his plate was being filled for him! Brothers and sisters, as leaders in this church you may face a similar situation. If there is one troublemaker and the other members petition you to hand out some sort of discipline, how would you handle it?

Man has an original nature which is good, so he knows whether or not he has done wrong. So if you forgive the wrongdoer with love, you are pouring hot lava or coals of fire on his head. So he'll repent of his sins and make a resolution to restore his fallen nature.

Father's own mother lived about 1500 ri (approx. 375 miles) away from where he was in

게 하겠어요?

사람이라는것은 다 본심이 있어서 자기 잘못을 다 압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면 그것은 그사람에게 불을 끼얹는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그가 일찍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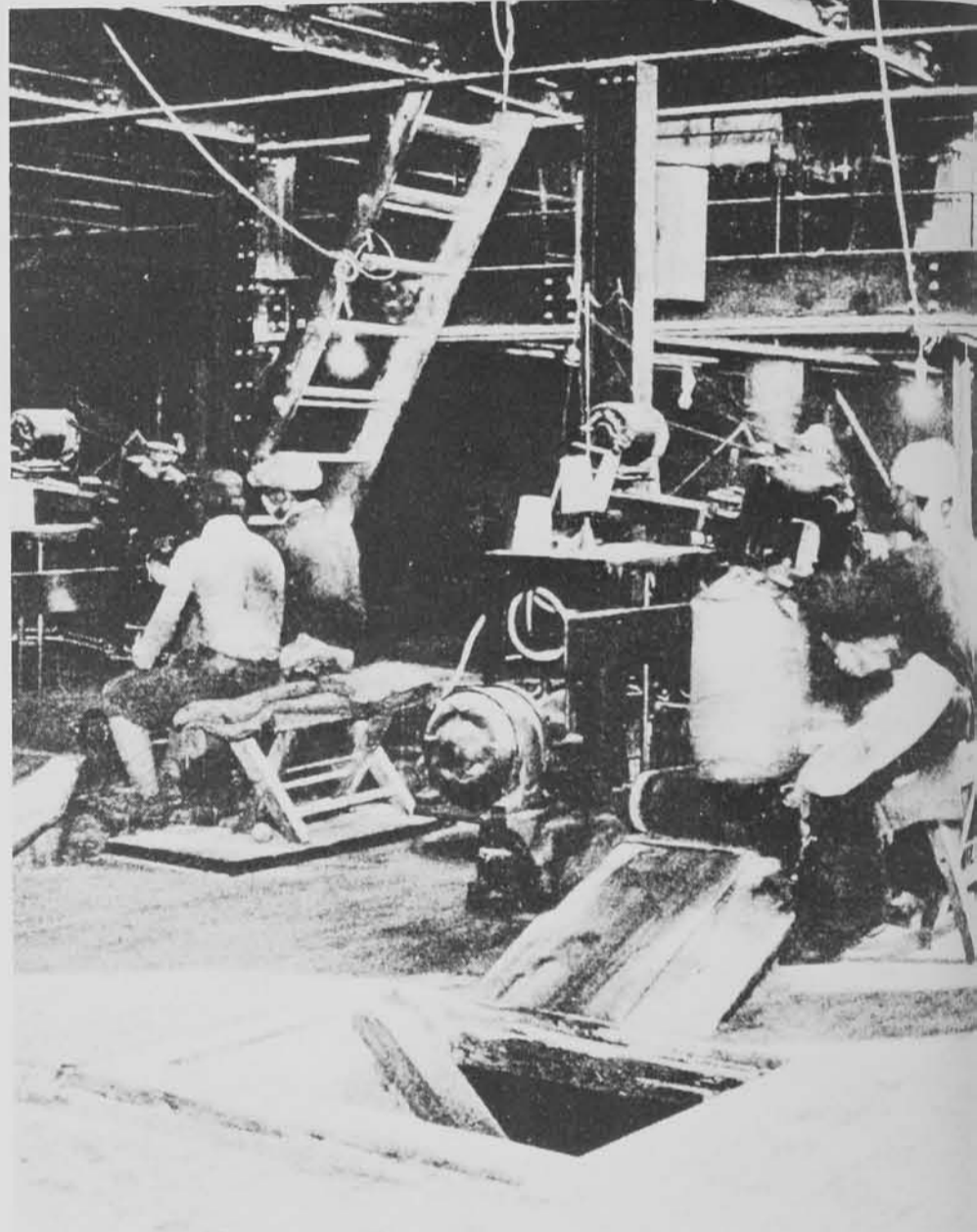
아버님의 생모가 거기에서 1500리 떨어진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는 큰 가족을 거느리고 계시기때문에 농촌에서 가족도 돌보고 밭일도 거들고 집안일을 돌보아야 하지마는, 시간도 없으시면서 아드님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먹을것 하고 입을것을 장만해가지고, 그 먼길을 교통도 불편한데 아버님을 찾아오신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버님이 일본에서 공부하실때 얘기지만 8.15해방이 되어서 아버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실때에 한국고향에내가 어느배로 돌아온다고 전보를 쳤는데, 그 아버님이 타신 배가 도중에 침몰이 되어 모든사람들이 목살을 했답니다. 그것이 크게 기사가 되어 그것을 보시고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줄 알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천리길을 부산까지 오셨는데, 끝에서 끝까지 오셨는데, 도무지 알길이 없어서 돌아가신줄 알고 다시 집으로 오시는데, 정신없이 통곡을 하면서 돌아 오시는데 치마가 다 찢어지고 발이 찢려서 피가나고 굶아터지고 해도 그것을 모르고 집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때 전보를 치고 그배를 타기위하여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발이 딱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면회를 오시게 된것입니다.

어머님의 눈에는 아무리 성장한 아들이지마는 어린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님이 머리가 다 깎이시고 수의를 입으신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럴때 아버님께서 우시는어머님을 보고 내아들이 이렇게 고생한다고 아들이 가 없어서 우시는 눈물이라면 다시는 오시지 말고 어서돌아가시라고 했답니다. 아버님이 바라시던 것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드라도 내아들이 하늘과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장하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형무소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내아들은 참 장하다하는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 눈물을 받아주실 수 있다는거요.

아버님께서 이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랑하는 부모처 자에게는 안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더욱 마음이 아프셨던 것은 아드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보내면 그것을 아드님만이 다 먹어주기를 바라셨는데, 아버님이 그것을 다른사람들에게 다 노나 주는것을 보시고더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고향에 돌아가시는길에 평양에 들리셨는데 그때 저에게 하시는말씀이 아버님이 형무소에서 나오면 다시는 다른데 보내지않고 꼭 데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학생시절부터 죄없이 고생하는것을 보게 될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고향에 이제 돌아가셔서 집이 보이는 먼곳에서부터 우시면서 다시는 내가 안가리라고 다짐하셨지만, 그래도 푹푹히 시간을 쪼개어 옷을 장만하시고 음식을 만드셨다고 합니다.그런가운데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여러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아버님의 제자가 된사람이 12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북의 5도 기독교연

합회가 있었는데 그연합회장을 지낸 유명한 목사 한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또 아버님이 옥중에서 나오시면 아버님을 모시고 일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계시는 홍남이라는형무소에서 십리 떨어진곳에 형무소의 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소문이 그 분소에 있는 형무소에서는 일이수월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목사님이 아버님을 찾아와서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말씀이 가지말라고 하시드래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하는 일이 몸에 겨웁다고해서 아버님 말씀대로 못하고 자자의로 옮겼습니다. 기 아까 말씀드린 미스타 김이와서 아버님께서 자기도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



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분에게는 가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거기가있다가 무슨이변이 일어나서 무슨일이 있거들랑 너는탈출을 해라하고 일르셨습니다.

바로 아버님께서 홍남일대가 공업단지가 되었기때문에 미군의 공격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가 나자 바로 거기에 폭격이 계속있게 되었습니다. 폭격이 오게 될때에는 다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간부들은 전부방공호에 피하면서 수용원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피할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예감이 어느 곳에 계시다가 거기에 폭격이 있을 것같아서 자리를 옮기셨는데 자리를 옮기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중심삼고 직경12미터 이내로 들어오기만하면 폭격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말씀을 듣고 아버님계신곳으로 전부 옮겼는데 모두 옮기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한톤짜리 폭격이 있었는데 거기있는 사람들의

prison. But she had to manage a farm and a household, and take care of a large family, so she had no time to spare. But when she got news of her son's imprisonment, she packed food and clothes, and despite the fact that transportation was scarcely available, she set out to see Father. She loved him very deeply. I'll relate a story that goes back a few years. Korea was liberated on August 15, 1945. At that time Father Moon was studying in Japan. He sent a telegram home to the effect that he would take such and such a boat and arrive in Pusan on a certain day. But the boat that Father Moon was supposed to have boarded sank and all its passengers drowned. When the news was out, his mother wanted to make sure that Father wasn't somehow still alive, so she travelled 2,000 ri, all the way to Pusan. This meant that she travelled from one end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e other. She had no means of ascertaining Father's death, and giving up all hope she went back home. Her skirt was torn and her feet were badly cut, infected and bleeding. She cried her heart out, bemoaning and wailing, this great mother, all the way home without being aware of her terrible appearance or condition. Now, after having sent the telegram, Father left his lodging to get on the boat, but his feet got stuck to the floor, as if they were glued. His instinct warned him that something was terribly wrong, so then he decided against taking that boat.

One day, Father's mother came to the prison. In a mother's eyes, even a grown-up son is always "my darling little son." As soon as she saw Father coming toward her, his head shaven and in his jail uniform, her heart ached and tears cascaded down her old worn face. But Father Moon said to his crying mother, "If you cry because your son is going through all manner of misery and suffering, and because you have so much pity for him, then please go home right now and do not come back here to see me again." What Father wanted to tell her was that if she had shed her tears, not because her son was suffering and miserable, but because she was proud that he had been jailed for building a new world in the name of Heaven and for all mankind, then he would have gratefully accepted her tears for him.

Father Moon told us all this, but he never breathed a word of it to his beloved parents, nor to his wife and child. In any case, what pained his mother more than anything else was the fact that although she had brought food just for her son, she witnessed him sharing it with the other inmates. On the way back home, she stopped over in Pyung Yang and vowed to me absolutely that when Father got out of jail, she would never, never let him out of her sight again; that she would for sure keep him at home and never let him go away from her again. She had already drunk too many bitter cups of misery over her son's difficulties with the law authorities during his student days. When she came within sight of her own home she broke down and cried, beating her breast, and swore she would never go back to see Father in the prison again. But she would spend every spare moment making clothes and preparing food for him. In the midst of all this crisis, the war broke ou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n June 25, 1950.

I believe I have already told you before, but let me repeat that Heaven was merciful enough to give its revelation to a chosen few, and they became Father's disciples. They now numbered

twelve. Among them was the past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Christian Churches in North Korea. A very renowned minister, he decided in prison to serve Father and desperately awaited their release from prison. There was a prison annex about 10 ri (2.5 miles) away from Hungnam. The minister heard that the labor imposed upon the prisoners in that annex was considerably lighter, and so he came to Father to tell him of it. Father told him not to go there. But the work at the prison was too much for him, and he chose to have himself transferred to that annex against Father's advice. Mr. Kim, of whom I spoke about earlier, also came to Father, saying that he, too, desired to be transferred to the annex. Father



told Mr. Kim that it was all right for him to go there. But he also warned him to try and make an escape, should anything happen there.

Hungnam, where Father's prison was located, happened to be an industrialized zone, which naturally became a target of the American bombing. Soon after the war started, American bombers attacked the area continuously. The communist prison staff members managed to get into the underground facilities, but they left the prisoners above ground. One day Father suddenly had an inspiration, and he felt that a bomb was going to drop where he stood. He moved to another spot saying, "Whoever comes with me within a radius of 12 meters will escape this bombing unscathed!" Some of the prisoners upon hearing this, quickly moved to where Father Moon was. As they did so, a one-ton bomb exploded

몸이 공중에 뜨드립니다.

그런 긴박한 상태에 계시면서도 아버님께서도 항상 장래의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전세가 자꾸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이 계신곳에 유엔군이 평양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계신 홍남형무소하고 거기에서 십리 떨어진 본궁이라는 분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분소에 있는 죄수들을 먼저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궁분소의 처형작업을 끝내고 홍남 수용소의 죄수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려가는데 번호를 부르고 3일간의 식량과 사흘 준비해가지고 나오도록 시키드립니다. 눈치채면 안되니까 어느 부대로 이동하는 것 처럼 해가지고, 뒷산에 데리고 가서 사흘로 땅을파고 하고는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 예감이 오는데 그것이 처형이 틀림이 없드립니다. 이제 아버님 계신 감방쪽으로 자꾸 가까이 오는데 아버님방에서도 몇 사람이 불려나갔습니다. 참 생각하면 얼마나 영계가 초 비상상태에 있었는가 하는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되가지고 유엔군이 착륙을 하니까 너무급해서 모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나오신 날이 오늘 10월14일입니다.

아버님의 거기에서 2년8개월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탄이 조금이라도 조건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없을 때에 사탄은 아버님을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는것입니다. 아버님이 걸으신 걸음은 영계가 도와서 걷는걸음이 아니고, 하늘이 도와서 걷는 걸음이 아니고, 하늘이 도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이되어 돕게하는걸이고, 영계가 돕지않을래야 않을 수 없이되어 도와서 나온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옥중에 계실때에 평양에 남아있는 식구들 가운데 하늘이 가르쳐주고, 또 하늘앞에 자기가 아버님을 평생껏 모시고 일하겠다고 하던 식구들이 하나하나 멀어져가는 것을 아버님께서는 옥중에 계시면서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것을볼 때 아버님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님께서도 변함없이 하루에 세번씩 평양의 식구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이건 멀어져간 식구이건, 변함없이 기도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옥중에서 나오시고 나서도 직접 그분들을 다 찾아서 만나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사람을 세워서라도 만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옥중에서 나오셔서 평양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10일 동안을 걸어서 돌아오시고 평양에서 40일 동안을 인연지어진 모든 식구들을 만나보시고 마지막 식구를 만나보고 맨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피난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하길 옥중에서 난리가 난후에 한목사님과 미스타김이 일이 어렵다고해서 본궁에가기를 원했을때 한 분은 허락을하시고 한분은 허락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목사님은 본궁에 있었기 때문에 무참히 처형을 당하고 미스타김은 처형장을 가는도중에 아버님말씀대로 탈출을해서 살아남아가시고 남한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않은 사람은 죽고, 말씀대로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내가왜 이런말씀을 하느냐하면, 영계를 통하는 사람들은내가 영계를 통하니까 너는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하고말을 하지마는, 아버님께서도 그런것 없어요. 아주 평범한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버님께서 평양에 오셨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으니 까 포기한 사람은 포기하고, 마음이 달리한 사람들은

달리한대로, 그 사람들을 찾아보시는데, 평양에서사흘이면 갔다오실수있는 거리인데도 40일동안 계시면서아버님 고향에는 가지질 않았어요. 아버님께서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또 하늘을 배반한 자리에 서있는저희들이지마는, 고향에 가지않고 저희들만 찾아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옥중에서 나오신뒤 며칠 안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식구가 세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오실때 가지고 오신것 가운데 옥중에서 가져오신 쌀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무소에서 명절날이 오면 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다 말씀하시면서, 보따리에서 젓가락을 꺼내서 그릇에 물을 떠오라하시드니, 그물에 쌀가루를 부어 젓가락으로 저어서 반죽을 만들어 저희들에게 배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무소에서 먹는것이 얼마나 적고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아버님이 그 쌀가루를 잡수 시지 않으시고 가지고 나오셨는데, 형무소에서 평양까지 10일간을 오시는데, 10월이라 산길로 오시는데 잡수실것 아무것도 없고 피난간 빈집에 가면 감자가 썩어서 얼어 있는것을 잡수시면서도, 쌀가루를 잡수시지 않으시고 꼭 간직해 가지고 오신것이었습니다. 아버님들 그쌀가루가 얼마나 잡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도리어 옥중에서 오시는 아버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버님께서도 당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에게 무슨선물을 가지고오시고 싶으셔서 그 쌀가루를 잡수시지 않고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뒷사람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게 될 때에 자기가 쓰고 남은것, 자기에 필요없는것을 노나주는 사람은 많지마는 자기에 꼭 필요한것 자기가 먹지않으면 죽을 수 있는것을 노나 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참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것이 이와같이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이라는것을 알아야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아버님께 교회를 짓는다든가 혹은 무슨일을 하는데 돈을 필요로해서 아버님께 돈을 요구하는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다른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것 보다도 아버님께서로부터 받으면 얼마나 뜻깊고 좋겠는가 생각할수있지마는 아버님의 사랑이 그렇게 높고 깊고, 너르게, 받을수 있으면 좋지마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때문에 아버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걸받고 싶겠지만 이돈을 너희들이 받지않는것이 너희들에게 좋을것이다."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버님의 그 정성에 보답할 수있겠끔, 정성을 더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흔히 서로믿고 약속하고 한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든가 배반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너와 인연을끊는다고 선언하는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특히 믿고 살던 부부간에도 무엇하나 틀리게 되면 이혼하기가일수입니다. 우리는 직접 그사람의 얘기를 듣지않고 남의 얘기를 듣고서도 인연을 막 끊습니다. 그렇지만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지들이 계신 고향이 가까이 있지만은 그 곳에 발길을 돌리시지 않으시고 장래일을 잘아시는 아버님께서 앞으로의 일을생각해서라도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하시고, 뜻으로 인연지어진 우리들이 아버님을 멀리하고 돌아보지 않는 식구들이라도 옥중에서도 하루에 세번씩 기도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오셔서 하나하나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양에 오셨을때 아버님보다 먼저 평양

where they had just been and seriously injured or killed those who remained there.

Even under these trying circumstances, Father never stopped thinking of his future mission, and he continued to make elaborate plans to carry out the restoration of the fallen world.

Now the frontlines of the war were changing, in favor of the U.N. Forces. They landed in Hungnam even before they reached Pyung Yang. The communist jailkeepers were desperate and began executing the prisoners—starting with the annex. After disposing of those prisoners, they moved to perpetrate the same inhuman atrocities against the ones in Hungnam. They called out the prisoners by number, and gave them the order to bring with them three days' food rations and shovels. They deceived the prisoners into believing that they were being transferred to another prison, but in actuality they were being taken to a nearby mountain where they would dig their own graves before being mowed down by gunfire. Father's inner voice warned him unmistakably: execution! The communist officials finally reached his cell. The inmates of all the other cells had already been whisked away. It takes no special inspiration or imagination to know the desperation of Father's situation. However, before they got to all the prisoners in the cell, the U.N. Forces which had already landed at Hungnam started marching to the city. The communists could not cope with this crisis, and leaving the prisoners behind, ran for their lives. At long last, Father was liberated. It was October 14, 1950.

Father Moon's prison term lasted two years and eight months. This was a testing period during which Satan did his very best to tempt Father and to destroy him in any possible way. But Satan couldn't do it because Father never offered him any pretext or excuse, or made any conditions under which Satan could lay his hands on him. In my mind, the road that Father walked was not one which the spirit world or even Heaven helped him to walk. It was a road on which they had no other recourse but to render assistance to him. Even while he was in prison, Heaven had a special dispensation to guide his church family members in Pyung Yang. Father also knew that more and more of his followers—those who had sworn before Heaven to serve him throughout their lives—were abandoning him. Yet he did not feel forlorn. Instead, he made it a point to pray three times a day for all members, loyal or disloyal. After his release from prison, Father tried to find each and every member. When he could not locate some of them himself, he made sure that one of his followers went to meet them in his place.

It took Father 10 days to return to Pyung Yang from Hungnam. He spent 40 days looking up and calling on all his church family members, down to the last person. It was only then that he decided to go to the south. Father was the last one to do so in the face of the Chinese communist offensive.

Getting back to Mr. Kim and the well-known minister, whose name was Reverend Han, remember that Father Moon gave permission to one but not to the other to go to the prison annex. What happened was this: Reverend Han, the one Father told not to go, was cruelly executed at the annex. But Mr. Kim, remembering Father's advice, made a daring escape on his way to the execution and went to South Korea. The one that disobeyed Father perished. The one who followed his advice

came out of the ordeal unscathed. Why am I telling you all this? Because there are many who,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spirit world, tell others what to do or not to do, calling on the authority of their power. But Father never acted like this. He spoke plainly, without reference to the spirit world.

When Father arrived in Pyung Yang, many of his followers had abandoned him. His own home was within three days' walking distance, but during the 40 days he spent in Pyung Yang he never went there. Instead, he used all of his time to visit each and every one of his followers, both faithful and unfaithful. We were unworthy of his love and attention, of course, having betrayed Heaven, but Father sacrificed seeing his own family just for our sake. After several days in Pyung Yang, he had found only three or four staunch followers. Among his personal belongings that he brought from the jail was a bag of rice powder. He told us to get a large bowl of water and after pouring the contents of the bag in it, he mixed it with the water and kneaded it. Then Father gave each one of us a sizable chunk to eat. Food was scarce in the prison, as I have already told you, but he saved this precious rice powder for us. Besides, from the prison to Pyung Yang, Father walked for 10 days over rugged mountain ranges, eating only the rotten potatoes that he found in deserted farm houses along the way. Even his mouth must have "watered" just at the thought of a handful of rice powder during that time. It was we who should have prepared a gift for Father's return, but instead he was the one who thought of everything, including this rice powder. He must have struggled bitterly not to eat it, just to save it for the waiting church family members!

Nowadays, there are many people who give to their superiors or their friends gifts of left-over things that they no longer need. But rare indeed are the people who share with others a morsel of food when their own lives are in jeopardy from hunger! I believe we all must realize that parental love is high and deep and without limits. Sometimes we ask for money from Father in the name of a new church to be built or some other project. We may think that it would be much more meaningful for us to receive help from Father rather than from someone else. But we can't always go this route, no matter how high, deep and limitless his love may be. Sometimes he makes us realize this by saying, "You may want this money but it would be better for you if you did not." So let's bear in mind that we should learn to repay his sincere heart with more devotion and sacrifice.

It often happens that when someone breaks his promise to us, we vow to cut off all connection with him. This may be especially true of the husband and wife who love and trust each other. If something goes terribly wrong, they may end up in the divorce court. When we hear about someone who breaks his promise, we usually drop him, even without talking to him about it. But Father Moon did not go back to his village where his beloved parents, brothers, sisters and friends lived, although he knew the future course of events—in which case he should have thought only of saving his own family by persuading them to go south. Instead, he spent all his time and energy on us, most of whom had turned our backs on him. He did this because in his opinion we were pledged to go the way of God's will together with him. Even in the prison he prayed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three times a day.

에 오신분이 미스타 박 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미스타 박은 아버님께 약속하기를 내가 옥중에서 나오게되면 우리식구 300명이 살고있는 큰집을 내가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가지고 잘못되어 남한테 매를 맞아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사람이 시골집에서 떠나서 평양의 자기 누님집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그 집의 고향까지 다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이 어디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데리고 아버님께 가서 뵈고 다시 그 누님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식구들을 다 만나다보니까, 12월 초사흘이되었습니다. 전세가 또 역전되어서 중공군 이 내려와서 유엔군이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피난을 가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구하는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자꾸피난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들 내려갔는데 아버님은 어느할머니 식구 한분을 찾지못하다가 12월초 나흘날에 찾게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흔살날때에 글을몰라 성경을 읽을 줄몰랐는데 성경은 읽어야되겠는데, 걱정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내가 성경읽는 것을 가르쳐줄게하고 글자를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읽는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또 높은산에 놀기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중에 큰 노목이 있는데 그 노목이 얘기를 하드래요, “할머니 나를 사용해서 아무래도 좋고, 헛간의나무라도 좋으니, 나를 써달라”고 하드래요. 원리에서 우리가 아는것과 마찬가지로 만물은 인간을 위해있다고 했죠. 그렇기때문에 참된 인간이있다면 만물이 그 참된인간을 위하여 먹히우거나 쓰여지는것을 기뻐하지만, 참되지 않은 인간에게 쓰여지는것은 원하지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 할머니에게 쓰여지는 것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또 그이가 높은산을 올라갈려면 힘이드는데 하루는 바람이 휩쓸더니 자기를 들어서 산위에 올려놓드래요. 그분은 원래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전에 한국의 토속종교를 신앙하던 사람이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제는 그종교는 그만 믿어라. 이제는 내가 인도하는 교회를 가거라. 저기 저십자가 뽀족한데있지. 이제는 거기를 가거라” 하고 일러주시드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된 할머니예요. 아버님을 만났을때는 그는 76세였어요. 그 할머니는 아드님같은 아버님옆에 앉으면 아버님의 옷을만지고 싶어하던 할머니예요. 아버님을 참 메시아로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할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할머니에게 가서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해라 했습니다. 그할머니에게 가니까 의식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쳐서 아버님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했더니 “응” 하는 대답을 듣고 와서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자 이제는 피난가자” 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난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부터 미스터 박을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그래 미스터 박이있는데 갔더니, 누님과 같이 있었는데, 미스터박을 데리고 가면 자기 피난가는데 지장이 있을테니까, 자기 아들이랑 남편이랑 다 전날 피난을 떠났어요. 미스타박에게는 자전거하나와 개한마리를 남겨놓고갔어요. 미스타박은 누님식구들도 다 떠나고 아버님도 자기를 버리고 피난간줄 알고, 아버님이 자기와 그렇게 약속을했는데 어쩌면 혼자 떠나셨을까 원망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거예요. 그럴때에 내가 가니까

너무좋아 어쩔줄을 모르면서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이를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아버님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전거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자전거를 연상하겠지만, 33년전의 중고 자전거를 연상해 보세요. 다리가 뺏어졌기 때문에 그사람을 자전거에 태우고 아버님께서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방향만을 조종했습니다. 그때가 12월 달이라 눈이오고 추운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잔등에지고 따라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피난생활은 12월 4일로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부인들을 다 놔 두고 남자들은 피난을 갔어요. 처음에는 몇일간이면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28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하두 바빠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생각 할 여유가 없이 모두 피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큰길은 작전상 유엔군이 다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산길을 걷는데 여기서는 그런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스팔트길은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중공군이개



입되었기 때문에 포성이 자꾸 킷전에 울리고, 피난민들 내려가고, 국군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주 급급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덕길을 넘어가야되는데 겨울이지만 참 땀이나요. 언덕길을 넘어가기 전에 밑에서 좀 쉬어가게 되었어요. 다시 일어나서 언덕길을 올라가려 하니까, 미스타박이 말하시기를 “선생님, 저 때문에 세사람이 다 죽지말고 저를 남겨놓고 두분이 가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나무라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연지어진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하시면서 소망을 주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피난길 노정에 있어서 서너 너댓가지 이야기를하고 그다음에 아버님께서 부산에 피난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그때의얘기, 아버님께서 집을짓고 원리원본을 쓰시던 그때의 얘기를 하므로써 오늘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노래라는 성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님께서 옥중에서 나오시자마자 지으신 노래예요. 그노래 한번 부르고 다시 계속 합시다.)

그런데 그 자전거로서 바다도 건너지않으면 안되고

Nor was this all. After his release from prison, he came to look up each one of us.

Before Father reached Pyung Yang, Mr. Pak had arrived there. Mr. Pak had promised Father that if he ever had the good fortune to get out of jail, he would donate a house large enough to accommodate 300 church family members. But after getting out of prison, he was beaten up by someone so badly that his leg was broken. So he left his own village to come to recuperate at the home of his elder sister in Pyung Yang. Father went to Mr. Pak's village, and inquired of his whereabouts. When he found out where Mr. Pak was, he told me to go there and bring him over, which I did, and later I took him back to his elder sister's.

When Father had finally contacted each one of us, it was already December 3rd. The fortune of war was turning against the U.N. Forces at that time, as the Chinese communist People's Volunteer Army joined the North Korean Army. Soon the U.N. Forces began to retreat and the people were told to go south. The freedom-loving people had no hesitation in obeying this order, and they started to move southward. Almost everyone had left the area, and Father was still searching for an old woman church member. When he found her, it was December 4th. At the age of 40, she had desperately wanted to read the Bible, but she could not, being illiterate. One day God's hand guided her in reading the Bible syllable by syllable, her index finger pointing to each Korean letter. She also used to pray for a long stretch at a time up in the nearby mountains. One day, on the way back home, she came upon a gigantic old tree, and she thought she heard it speak to her. It seemed to say, "Good old granny, please make use of me for any purpose at all—even as a block of wood in the shed. Please use me!" According to the *Divine Principle*, creation exists for man's sake. Therefore all things of creation want to be taken and used by a true human being. This tree strongly desired to be made some use of by this old grandmother. Another time while climbing up the mountain she found it a little too exhausting for her. Then a strong wind began to blow and flew her to the top of the mountain. Even before Christianity was introduced to Korea, she had been a faithful follower of a traditional Korean religion. On one occasion, God appeared before her and said, "You faithful one, give up the old faith. Go to the church I direct you to. Do you see the cross above the steeple over yonder? Go there from now on." Thus she became a Christian convert. When she met Father, she was 76 years old. That old woman confessed that whenever she sat next to Father, she had the impulse to touch his clothes. He was like her own son but she looked up to him and believed him to be the Messiah. Now this old woman was on her death bed. Father instructed me to go over to her home and tell her that he had returned safely. When I arrived she was only half conscious, in the twilight zone, so to speak,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So I had to shout to her about Father's safe return, and I could hear her respond with, "Yea!" A smile crossed her lips for the last time. When I reported this to Father he was sad, but he only grunted and said, "Now it's time to go south!"

Pyung Yang was almost deserted. Father commanded me, "You go fetch Mr. Pak." At that time, Mr. Pak was living with his sister. However, when I got there, she had already left the day before to go south with her husband and children.

She thought that her brother would be a terrible burden to them if they took him along. They had left one bicycle and a dog for Mr. Pak. He thought that not only his sister's family, but Father as well, had deserted him. He had been bitterly railing against Father up until then, who in Mr. Pak's mind had failed to keep his promise to take him along to the south. But when I appeared he was transported with joy, and cried like a small baby. Well, in any case, I put him on the bicycle and pushed it to the place where Father was waiting for us. When you think of a bike, you probably imagine the kind that you see in the streets here—a well-oiled, sleek, smooth-running machine. But that old beat-up bike of 33 years ago was not like that at all. It was a miserable contraption. Anyway, Mr. Pak's leg was fractured, and Father pushed the old bike with Mr. Pak on the seat, steering as best he could so as not to fall off. It was a bitterly cold December. Snow covered the road. I followed them with a knapsack on my back. Our long trek as refugees began on December 4th. At that time, it was common for many to leave their wives and children behind because of the inclement weather, for they thought they would return home in a matter of a few days. Those few days have since stretched into 28 years.

Some people were in such a desperate hurry to leave the city that they had no thought of even their own parents. Well, the main road was strategically blocked by the U.N. Forces, so we had to go by another route over steep mountain ranges. You would not be able to find such rough, bumpy roads here in this country. The roads were unpave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opened up artillery fire and cannon balls exploded, as if to shred our ear drums. The enemy was closing in on us and the Korean National Army was in retreat. The situation was urgent. We were beset with fear—at any moment we might be taken prisoner. It was, as I said, very cold, but we were sweating profusely as we were going up a steep climb. We took a short break before pushing on over another steep hill. As we got up to go on, Mr. Pak said, "Father, all three of us might be killed on my account. Please leave me behind. Please go without me." Father mildly rebuked him: "We who are united in the way of God's will should live or die together. Together, understand?" This gave us a new ray of hope. I felt a surge of energy within me.

"New Song of Inspiration" is one of the Holy Songs that Father composed after his release from prison. Let's sing it now, and then let me proceed.

*Upon the earth I came to life in the world
God prepared.
One rejoicing land of freedom I am chosen
to build,
to reveal the Truth of God, His Purpose and
His Will.
Sacrifice yourself and live all for His Desire,
all for His Desire!*

*All Heaven sings a mighty song, inspiration
divine;
for a new Eden begins now; spread the
message to all.
Sacrifice yourself to build our Lord's new
world of life.
Seek the land of freedom now, all for His
Desire, all for His Des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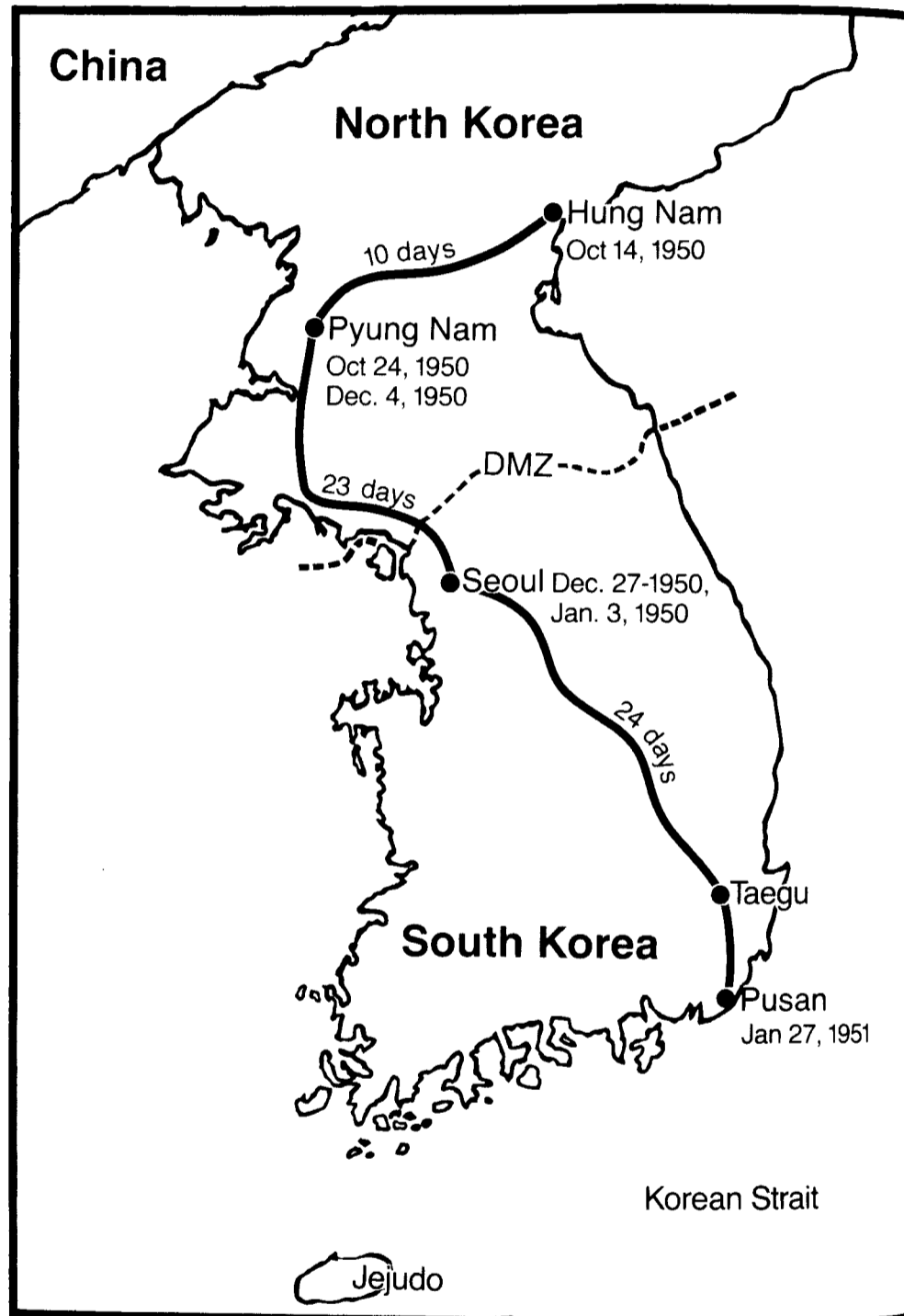
산도 넘지않으면 안되는 피난길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십리길되는 섬으로 가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길을 건너려면 물이 짙때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바다 해변까지 80리를 밤새도록 걸어서 왔습니다. 그때가 새로 두시인가 세시쯤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바지를 다 올리고 건너야 되는데 자전거는 제가 짊어지고, 아버님과 같은무계의 미스타박을 아버님이 업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없기때문에 깜깜해요. 바다 저쪽에 섬에다 솜에 기름을 묻혀서 불을 달린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물이 찌게되면 깊는데, 물이 고여 있는데 낮은데를 알 수가 없기때문에 대단히위험해요. 그리고 모래가 아니고 감탕이에요. . 아주 미끄러워요. 또한군데 발을 딛고 섰으면 쑥 빨려들어가요. 의사도 없고 하기때문에 아버님이 업고가다가 한번넘어지게 되면 이제는 고칠 수도 없어요. 다리를 기브스 했기때문에 다리를 뺏치고있어요. 그런상태로 그곳을 간신히 건너가지고 배를 탈려고 했는데 배를 탈수 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추워서 할 수 없어서 조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추운데 건너가야 하는 생각을 하니까 미스타박이나 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눈치를 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들을 잘대접해 줄 좋은 귀인을 만날거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주 기운이 나네요. 그래서 또그 바닷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때는 해가다 떨어지고 추운데 마침 그때 그동네를 지키는 동네사람들이 아버님이 머리를 깎았으니까 아버님이 인민군 패잔병이 아닌가하고 아버님을 구타했습니다. 남한의 군인들은 머리를 길렀지만 인민군들은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짐속에있는 성경을 보여주면서, 목사인데 형무소에서 나와서 머리가 깎인것이라고 했더니 그사람들이 성경을 펴 가지고 성경절수를 대면서 거기에 무슨내용이 있느냐고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이 진짜 목사인지를 알기위해서 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성경절을 보지않고 다 말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 주어서 돌아오는데 길가에 불빛이있어서 그 불빛을 찾아서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에 젊은부부가 우리를 맞아서 좋은방에 좋은음식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잤습니다.

다음날 제가 생각하기를 어저께 아버님 말씀하신말씀이 맞았구나 하는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않고 도리혀 아버님께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고 위로는 못하나마 약한 마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저희들에게 오늘 좋은분을 만나리라 하시고 말씀을 하시게 됐고,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아버님께서 그 동네사람들에게 매를 맞으신 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맞아야될 매를 아버님이 맞으셨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모든은혜라는 것은 당신이 그 어려움을 당한 댓가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난길에 아침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는 자꾸 그냥 잡니다. 해가 떨어져서 방향을 잡지못할때는 아무집이나 들어가서 밥을 지어먹고 잡니다. 그것이 피난의 일과였습니다. 하루는 밝아서 한집을 찾아서 거기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다 피난가고 사람은 살지 않는 빈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럴때는 나는 불을 때고 밥을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라는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집을 헐지않는한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자요?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풀마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불을 때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찾아서 헤메다가 나도 모르게 그마을의 공동묘지에 도달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가마니 당가가 있는데 양쪽에 나무가 붙어있어요. 너무 반가워서 두나무를 쭉뺏아서 가지고 아버님 계신곳에 와서 그것을 꺾어서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가는 뭔가하면, 그마을에 누가 죽었는데 죽은사람을 묻고 그당가를 거기에 그냥 놔둔거예요. 방안에서 아버님과 미스타박이 추운방에 앉아 계셨어요. 얼마동안 불을지르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방안에서 나를 불려요. 문도 열지않고 불려요. “거 무슨 나무가지고 불을 때느냐” 고 물으셨어요. 그래



서 나무를 구해온 얘기를 쭉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나무나 다 때는데가 아니야” 하셨어요. 아버님께서는 방안에 계시면서도 부정한 나무를 가지고 뺏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한번은 하루종일 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쉬어가지 하고 어느집에 들렀는데, 큰집이기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먼저와서 밥을 지어먹고 자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들어가서 밥을 지어 먹었어요. 밥을 먹고나니 11시가 되었는데, 피곤하여 잠이 쏟아지는데 견딜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여기서 자고 가자고 졸랐어요. 대개는 아버님께서 쉬어가는데, 그날은 아버님께서 가야지;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여기서 쉬어가

*We seek the new eternal base, blessed
family of God,
long awaited by the Father, God of
Goodness above.
Now proclaim the great new Truth of
kindness and good will.
Pioneer new Heaven and earth, all for His
Desire, all for His Desire!*

*Within a day of bright new life, stand
upholding the right.
In the pure new life eternal raise the
standard of Good.
Praise the Father of all Good, our glorious
true Ideal.
Build a whole new world of peace; we will
build it now, we will build it now!*

I will continue by telling you a few episodes of our journey south. We had to push the bike through water as well as over the mountains. Once we had to cross over part of the sea to get to an island about two and a half miles from the shore. We had to wait until the tide was out in order to cross. We had just walked almost 25 miles the night before and didn't arrive at the shore until one or two o'clock in the morning. Now I had to carry the bike on my backpack, while Father Moon carried Mr. Pak, who was about his own weight and size, on his back. It was pitch dark, of course. A tiny oil lamp was burning on the island, and that was the only thing we could really see. At least it was a reliable guidepost. The sea was still deep in many places at low tide, and we had no way of knowing where it was shallow and safe for us to walk. It was very perilous, to say the least. If we stayed in one spot a few seconds too long, our feet could sink too deep for us to pull them out and go on. No doctor was available within mile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if Father had slipped and fallen even once, Mr. Pak's legs would have been re-fractured and he would have had no access to any proper medical care. His legs were already in casts, stiff and straight. We finally made it to the island, hoping to catch a boat going south. But, alas, no boat was there, and we had no choice but to turn around and go back the two and a half miles through the slimy mud in the bitter mid-winter cold with our pants rolled up to the knees.

It was cold. We were exhausted and very, very hungry, so we cooked some millet. At the terrible prospect of our journey into the unknown, Mr. Pak and I faltered. We no longer had the will to struggle on. Father, intuitively sensing the weakening of our will, encouraged us by saying: "Today a special person is waiting for us, to shelter us and give us a feast. You wait and see." So then we felt a good deal better. We gritted our teeth and crossed back over the mud toward the land. It was dusk, and the bitter wind howled and cut into our flesh. We finally reached the shore, however, and continued on our way. Soon we met some watchmen from a nearby village. Seeing that Father Moon's head was shaved, they thought he was a communist soldier, perhaps a deserter or a straggler. All South Korean soldiers kept their hair at a normal length, while North Korean soldiers shaved their heads, or at least had crew cuts. So it was no wonder that they mistook father for a communist soldier. They started to beat him up, but he took out his Bible, and explained that he was a minister who had been imprisoned by the communists, and that was why his hair was

cut so short. The watchmen were still suspicious. They opened the Bible at random and, citing chapters and verses by their numbers only, asked Father to tell them what they said. They wanted to make sure that he really was a Christian minister. Of course, he had no trouble answering all their questions. They gave back the Bible to him and let us go free. We had just started on our way again, when we perceived a dim light coming from a window in the distance. We went and knocked on the door of that house, and a fine young couple invited us in. They gave us delicious food and that night we slept very soundly.

The next day I realized, belatedly of course, that Father had been right about "the special person who would give us a feast." It occurred to me then: Father had had to bolster us up the day before by saying that we would meet a special person, who would give us a feast, which we did. But suppose that I had not faltered in weakness earlier, but had instead had the presence of mind to comfort and support him. If I had done that, he probably would not have been beaten up by the village watchmen. Actually, it was we who should have been beaten up, but Father took our place. It also occurred to me that the grace bestowed upon us came to us at the price of Father's suffering.

As refugees we had to get up at the crack of dawn and go our way without delay. When it was too dark to go on, we knocked on any door, went in and cooked our meager fare. That was the daily routine for us as refugees, and it did not vary much from day to day. One day, though, we decided to stop to rest for the night even before it was getting dark. We entered a deserted house. It was my job to gather firewood or even dried grass—anything that was available to make a fire to heat the place where we stayed. That particular day, I looked around but found nothing at all. I wandered further and further away in my search, and ended up in a cemetery. I saw a large bag made of straw, with two handles! I pulled out the two wooden handles, brought them home and started a fire with them. By the way, the corpse of someone who had died in the village had been carried in that straw bag to the cemetery. After the burial the bag with its handles had been left there. Father and Mr. Pak were shivering in the back of the house. Without opening the sliding door, Father Moon called out to me and said, "What sort of firewood are you burning out there anyway?" I told him the whole story, and he ruefully said, "You shouldn't use just *any* firewood you know." I must confess that he knew the wood I was burning was impure, even without leaving the back room.

Another time we had been trudging along the road all day. A large house came into view and we decided to rest there overnight. There were several other families who had arrived earlier and had already eaten their supper. When we too finished our meal, it was around 11 o'clock. The craving for sleep overwhelmed us, but Father said, "Let's get going!" We begged him three times to let us stay there, but each time he remained adamant and kept insisting that we should depart at once. Well, we had no choice in the matter, and we set out on our journey southward once again. It was after one o'clock in the morning when we found a hut and we slept there a few hours. At dawn, however, we were told to hurry on our way once again.

A river blocked our path, but since it was so

자꾸 자꾸 졸랐습니다. 세번씩이나 간청했지만 아버님께서 좀처럼 대답을 안하시고 자꾸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아버님을 따라서 아주 추운밤을 걸어서 한시경에 되어서 길가에 있는 집에 들러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떠났습니다.

얼마가지 않아서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날이 추우니까 땀 얼었는데, 자전거를 태우고 일음위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공중에서는 많은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포성이 울리고 기총사격이 울리고 있었어요. 아마 중공군이 가까이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강 건너 저쪽에는 유엔군이 이제부터는 피난오는 사람들을 다 중단시키고, 최후의 전선을 지키기위한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버님께서 왜 어제밤에 거기서 쉬지 않고 가야된다고 하신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두달이 거의 가까왔을때에 미스터 박의 다리가 거의 다 낫았습니다. 도중에 그분을 내려놓고 아버님과 저하고만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조금 기차를 타봤는데, 꼭 걸어 오다가 그것도 기차앞에 화통앞에서 바람 다 맞아가면서 기차를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아버님께서 기차를 타신 곳이 어딘가 하면 울산인데, 지금 그 울산이 큰 공업단지로 발전했고, 또 부산 초량이라는 조그만 역에 도착을 했는데, 부산의 본역은 없어지고 초량이 크게 발전해서 본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부산에 와서 아는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을 하실 때에 제자 한사람을 알게되어 그집에서 첫날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버님하고 제가 남의 집에 같이 젊은 사람집에 신세를 질 수가 없어서, 저는 식당에 취직을 하여 거기서 자면서 일을 하고, 아버님께서 일본에서 공부하실때 같이 공부하시던 미스터 엄씨 집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엄이라는 분은 동창이기 때문에 서로 해라 하고 하는 사이였지만, 아버님께서 그분에게 여러가지 앞으로 이상세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가운데서, 그가 꿈을 꾸니까 그 꿈가운데 예수님 누이동생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에게 원한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원한을 풀려면 큰 금고가 있는데 그안에 작은 금고가 있고 또 그 금고 안에 더 작은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를 열어야만 원한을 풀수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선생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스터 엄은 불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예요. 그래 아버님한테서 여러가지 말씀을 듣고는 아버님을 꼭듯이 모시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버님이 길에서 누구를 만났나 하면, 이북에서 옥중에서 첫째 제자가 되었던 미스터 김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집에 2주일인가 가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방은 아주 조그만, 요만한 방이었는데, 색색하고 사는데 거기서 같이 계셨어요. 아버님께서 제가 식당에 있을때에 종종 엄선생, 미스터 김을 제가 있는 식당으로 데리고 오시고 했어요. 아버님이 엄선생은 이런 사람이고, 미스터 김은 이런 사람이고 하시면서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주니까 제가 참으로 힘이 났어요. 그리고 내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은것 같이 느껴져요. 그때 아버님께서 굉장히 배가 고프신 생활을 하셨던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한번은 아버님이 식당에 오셨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점심을 대접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오셔서 방에 모시고 상을 차려서 드려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있으니까 벌써 밥이 다 없어 졌어요. 그래서 또 한그릇을 갖다 드렸어요. 그것도 다 없어 졌어요. 그런것을 보니까 아버님께서 참 배고픈 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잠수실 것이 없어서 부두가에 나가서 밤에 일을 하시고 낮에는 따뜻한이 양지에서 주무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던중에 미스터 김 집에 계시면서 아버님이 원리를 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소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서서 명상도 노래도 하시고 하셨는데, 엄 선생한테는 노래를 잘 시키셨습니다. 뉴홈 싱거스 중의 한사람이 그때에 있었다면 아마 매일같이 노래를 했어야



했을 거예요. 참 아버님은 노래 듣기를 좋아 하세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잠잠히 산에 올라가셔서 돌을 자꾸 주어 모아서 집을 지으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있는대로 흙을 모아 날랐습니다. 그때 저는 미군부대에 있어서 여러가지 케인트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장난삼아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제가 있는 조그만 집에 방이 있느냐고 물어 보셔서 거기 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아버님과 같이 갔더니, 방이 있어서, 거기에 방을 얻어서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만한 방이야요. 아버님이 누워서 게 되면 머리와 다리가 벽에 닿아요. 엄 선생이 오시게 되면 그이는 비딱하게 누워야 되요. 그리고 저는 미군부대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떠날때는 아버님이 원리를 쓰기 시작하시고 제가 돌아오면 글쓰신

cold, it was frozen solid several inches thick. We pushed forward, walking over the ice. Many airplanes were zooming low over our heads; we heard the strafing from the air and machine guns were returning the fire from the ground. We realized that perhaps the Chinese communists were already close by. Across the river, the U.N. soldiers were putting up barricades to defend the last battle line. In doing so, they were blocking the way to the refugees who were still to the north of that line of defense. Then and there I began to appreciate why Father had pushed us so hard the night before. It is no wonder that even since then I have deeply respected his judgment.

We had been traveling south on foot for almost two months now, and Mr. Pak's fractured legs, thanks to the Lord, healed. We left him in a



safe area, very far from the front line. Father and I pushed on toward Pusan. Luck was with us, and we caught sight of a train at a station. After two months of struggling on foot, this was like Heaven on earth, even though we had to hang on to the front of the locomotive, exposing ourselves to the wind.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we caught the train at Ul-san and got off at Cho-ryung, then a small suburban station outside Pusan. Ul-san has since become a large city with major heavy industries, while Cho-ryung has become the main station in Pusan.

When we first arrived in Pusan, we didn't know a single soul. However, Father bumped into one of his former pupils whom he had taught at Sunday school many years earlier. We spent the first night in his room. But I could not continue to

stay with Father at his place, being too much of a burden, so I found a job in a restaurant, where I worked and slept. In the meantime, Father ran into Mr. Duck Moon Aum, an architect, who had been his classmate at Waseda University in Tokyo. He and Mr. Aum had been on very familiar terms. After Father told him about his plan for the ideal world to come, Mr. Aum had a very extraordinary dream. In this dream, Jesus' sister came to him and declared: "I harbor resentment against my mother on my brother's account." She went on to say that there was only one way to remove that resentment, and that was to find the key to a safe, inside which was another safe, within which was yet another safe. The Reverend Moon, she continued, was the only person to hold that key, and no one else. Mr. Aum, by the way, was a Buddhist, and he had no idea that Jesus had a sister. When Father spoke to him more about the *Divine Principle*, Mr. Aum began to serve him with awe and reverence, thus becoming his disciple.

The next person he encountered in Pusan was Mr. Kim who had become his first disciple in the prison. He had since married, and Father stayed with that couple for two weeks. Their room was a tiny cubby hole, but they lived there together. Father Moon used to bring Mr. Kim and Mr. Aum to the restaurant where I worked. He introduced them to me, explaining to me in some detail what sort of person each one was, and this elated me very much. Of course, he talked to them about me, too. We all felt that we already had a large church family. Father was always hungry in those days and I found that out one day when he came to the restaurant by himself. I spoke to the owner and asked him whether I could serve him, saying that he was my most respected teacher. I served him in a separate room, and when I went back a few minutes later, all the food had been eaten clean off the plates. So I brought more food. Soon that was gone too. And then again. So I knew that he had been hungry for many days. He had nothing really to eat, and he labored at the docks during the night and slept in some sunny corner during the day.

While he stayed with the Kims, he undertook the writing of the *Divine Principle*. The place was noisy and cramped, to say the least, and one day he asked me whether there was a room to let where I lived. My landlady had one, so he rented it, and we lived in the same house. It was very, very tiny. When he lay down, there was no more room—his head touched one wall and his feet the opposite wall. When Mr. Aum came over, he had to lie diagonally, being quite tall. I started on a new job at the U.S. Army base. He worked all day on the manuscript while I was gone, and when I returned, he would read to me what he had written that day, or else he would give it to me to read aloud.

Those who had already known Father in Pyung Yang and Seoul started to come to see him now. When this happened, he took them up a nearby mountain for prayer and holy songs. He often asked Mr. Aum to sing for us. If we had had the New Hope Singers then, we would have sung every day, I am sure. By the way, Father loves music, and he especially likes listening to songs.

Father began collecting rocks and stones of all sizes on the mountain to build a house there. Whenever he had a few moments to spare, he carried lumps of soil to one particular spot. At that time I had a job painting the barracks of a U.S. Army post. As a joke I did a portrait of someone

것을 아버님이 읽고 계시다가 저한테 주어서 제가 읽어 드리면 아버님이 듣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평양에서 인연지어진 사람, 서울에 계실때에 인연 지어진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아버님을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때에 옆에 산이 있는데 산에 가서서 명상도 노래도 하시고 하셨는데, 엄 선생한테는 노래를 잘 시키셨습니다. 뉴홉 싱거스 중의 한사람이 그때에 있었다면 아마 매일같이 노래를 했어야 했을 거예요. 참 아버님은 노래 듣기를 좋아 하세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서는 째째히 산에 올라가셔서 돌을 자꾸 주어 모아서 집을 지으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있는대로 흙을 모아 날랐습니다. 그때 저는 미군부대에 있어서 여러가지 페인트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장난삼아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아버님께서 보시더니 이제 그림을 자꾸 그려라 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판데서 일하든 사람이 저있는데 와서 일을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미군들의 부인이든가 여자친구의 사진을 그려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사람이 자기는 그림을 그려서 돈을 받으니까 자기만 돈을 버는것이 미안하니까 하루는 나에게 자기가 주문을 받아 줄테니까 자기가 그리는것 처럼 그려보라고 해요. 그사람이 나한테 처음으로 맡아준 사진이 흑인의 사진이에요. 그때는 나는 흑인을 본일이 없었어요. 색을 넣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색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4 시간 반을 걸려서 그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나 돈을 받겠다는 욕심은 없었고 욕만 안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뜻밖에도 잘그렸다고 하면서 돈에다 주문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거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가 많이 불면 부는만큼 주문이 늘어나요.

그림을 그리는것은 내 일을 끝마치고 남은 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5시에 일을 마치고 주문을 맡아 가지고 집에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12시 한시 이렇게 끝나게 되요. 그런데 아버님께서서는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시장에가서 필요한 모든것을 사다가 캠퍼스를 짜고 모든것을 준비해 놓으세요. 제가 그림을 그릴때는 옆에서 다 끝날때까지 지켜 보셔요. 그러면 그림이 끝나고 잘때 아버님께서서는 그것을 짚아서 아침에 가지고 갈수 있도록 다 맡아서 준비해 놓으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님께서 보시다가 아버님이 고쳐주시기 시작하였어요. 색깔을 골라주시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배경을 다 그려 주셨어요. 얼마 지나니까 저는 얼굴만 그리고 아버님께서서는 옷하고 배경을 칠해 주셨어요. 또 얼마 있다가는 머리카락도 칠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열다섯장 스무장씩 그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때는 네시 다섯시까지 밤을 새워서 가지고 가는날도 있었습니다. 혹시 식구들이 아버님을 뵈우러 왔다가 할머니 같은분들이 피곤하니까 거기 누워서 주무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자면 되느냐고, 졸음이 오면 벽에기대서 자는것은 좋지만 누우면 되느냐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사람은 일에 취하니까 피곤을 덜 느끼지만 보는 사람은 피곤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님께서서는 절대로 제앞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 보아 주셨습니다. 저는 피곤할때 있지만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피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달이 되면 돈을 모아서 아버님께 갔다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얼마 있다가 그돈을 다 쓰셨나봐요. 아버님께서서는 돈을 가져다 드리면 한달 먹을 쌀하고, 쌀 나무하고, 불켜 석유하고 그리고 찬으로는 떨치고고 먼저 사놓으세요. 그리고 저는 부대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손수 밥을 지어서 잡수셨습니다. 아버님 밥은 여자들보다 더 잘해요. 이제 아버님께서 그돈을 가지고, 도를 닦는 사람들이 대개 가난하니까, 그사람들이 아버님을 찾아오면, 쌀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돈도 쥐어주고 해서 그돈을 다 쓰시나 봅니다. 하루는 아버님이`야 네가 돈 가져온것다 썼다, 하시며 미안하신듯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누구한테 뭘 사주고, 뭐에쓰고, 책사는데 얼마들고 하시면서 쓰신것을 다 얘기 하셨어요. 그럴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님한테 돈을 드리고 아버님 그돈 어디썼나 하고 생각할까봐 아버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나 생각이 되어서 마음이 참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그야 다 쓰시던 안쓰시던 말긴 다음엔 상관할바가 아닌데 그렇게 하셔서 그럴때마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으로 생각 하였습니다.

제가 주문을 맡기 위하여 늘 돌아오는 시간에 못돌아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아버님께서서는 제가 오는길에 저만치 서서 기다리십니다. 이제 고단하게 잠들었을때 때때로 노래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잘 들어 보면 아버님께서 울음섞인 음성으로 노래를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때는 저를 깨웁니다. 밖에는 깜깜한데 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바윗돌이 있는데를 찾아서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할께,`하고 하셨습니다.

하루 아침에는 아버님께서 저를 깨우시면서 빨리 불을 켜라고 하세요. 그때는 전기불도 없고 호롱불이었어요. 그러더니 연필하고 종이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대로 적어 내려라,`그래요. 그것은 재림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불러요. 다 끝날때까지. 보통은 글을 쓸때는 쓰다가 생각하고 또 쓰다가 생각하고 하지마는, 아버님께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않고 저에게 불러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쓰신 원리원본은 전부 아버님의 필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만은 제 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리가 어떻게 쓰여졌나 하는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두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평양에 계실때 아버님을 옥중에 면회도 가고 하던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의 가족은 장로교에 아주 대단히 열심인 가정이 되어서, 부산에 내려와서 아버님이 그 조그만집에 생활하고 계시다는것을 알면서, 집안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아버님께 잘 못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손이 갑자기 막 흔들리드립니다.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가르쳐 주기를 `내가 이걸하라고 불렀는줄 아느냐,`고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네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시드립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정신없이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영감이랑 아이들이랑 보구서 모두 큰 일 났습니다. 암만 멈추려도 멈추지 않아요. 미칠 지경이야요. 그래서 그러면 가라고 했습니다.

한번은 아버님지으신 집 앞에 샘물을 파놓았는데 물맛이 좋아서 저 동네 아래에서까지 아주머니들이 와서 물을 길어 갔습니다. 그들은 길러와서 우리가 사는집

there. Father took one look at it, and encouraged me to do more—for practice. A strange thing happened afterward. One day a man got a job at the U.S. Army post to paint portraits of the wives or girl friends of the American GIs. He was paid well for his work and he did not feel right somehow making money only for himself. One day he asked me to do a portrait like his own work, and promised me that he would take orders on my behalf. The first job he commissioned me to do was a portrait of a black soldier. Up to that moment I had never set eyes on a black man. I did not know then how to use the proper color combinations to make the black man come alive on the canvas. It took me roughly four and a half hours to finish the portrait. I brought it back, not in hopes of getting paid for it, but with trepidation of being taunted for my poor work. The man, however, thought it was just fine, and gave me the money, plus some new orders. This uplifted me, and I began to paint portraits from then on. The strange thing was that my order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our church members.

Of course, I did this work in spare moments after my day's work at the U.S. Army post. When I came home after 5 o'clock with new orders, I would start painting right away and continue until midnight or one o'clock in the morning. But before I got home, Father had already bought the necessary supplies, and he made the frames, as well. He watched over my shoulder until I finished. When I went to bed, he stayed up to frame the portraits and he would have them all ready for me by the next morning. After a while he began to retouch my work, making improvements here and there. Then he began to choose the right color combinations and to do the background painting. Soon after that I began painting only the head, while he did the uniform and the background. And then he added one more chore—painting the hair part. Sometimes we stayed up till four or five o'clock in the morning. When some members showed up at our studio to see Father, the old folks among them would often get so tired that they would lie down on the floor to sleep. But Father Moon used to tell them that they could get some sleep sitting up against the wall, but not to lie flat on the floor since I was so engrossed in my work. When you are involved in some work, you don't feel tired, but when you watch someone work, you get bored and tired as well. Even under these conditions, Father always remained at my side, watching me work on the canvas. I was often tired, but thinking of him, I was somehow able to overcome my own fatigue.

At the end of each month I took all my earnings to Father. Then he would use it to buy food and other necessary household items, such as firewood, oil for the kitchen lamp, etc. Since I ate my meals at the U.S. Army post, Father cooked all his meals by himself. He was a better cook than most womenfolk. Most of the members at that time were very poor, and when they came, he did not hold back in giving them rice, or buying clothes for them, or giving them cash. My earnings did not last long. One day he told me, feeling sorry for me: "All the money you gave me is gone." He then itemized all his spendings—what he bought, and for whom he bought it. I did not feel too good on these occasions. I felt he was telling me all this because he thought that I was worried about where the money went that I gave him. But I was in no way concerned how the money was spent once I gave it to Father. Each

time this happened I made up my mind to serve him better with all my heart.

Sometimes I had to wait for the man who brought me the orders, so naturally I was held up at the U.S. Army post. Then Father would come half way there, waiting for me in the street. Some nights after I went to bed, it seemed to me that I heard him singing. When I strained to hear him better, I realized that he was singing and praying in a voice mixed with sobbing. At times he came to wake me up. Then he took me to a large boulder on the mountain and said, "You pray here. I'll pray over there."

One morning he shook me out of bed and told me to light the lamp at once. We had no electricity then but only a small and very old lamp. Then he commanded me to bring sheets of paper and a pencil, and to write down what he was going to say. It had to do with the Second Advent. He kept on and on, until it was all finished. Normally, one writes a bit, then stops and thinks, and writes again, stops and thinks, and writes again. . . . As for Father, he never paused a second during the whole time he was dictating to me. The *Divine Principle* was written in Father's own handwriting except for this part, which is mine. Can you guess now how the book came to be written?

Let me tell you another story about an old woman who used to come visit Father Moon when he was in prison in North Korea. She was then living with her family in Pyung Yang. The members of her family were very devout Presbyterians, and when they came to Pusan, she heard that Father was undergoing all manner of hardship. She wanted to come and see him, but her family opposed her so strongly that she could not come over as often as she desired. One day, she was in her kitchen preparing a meal for her family, when all of a sudden her hands started shaking like autumn leaves. She just could not help herself; this violent shaking was beyond her control. Then she heard a voice saying: "Do you think that I came here to command you to do the cooking? Why all this cooking when your Teacher is living in such narrow straits?" When her husband and children saw her shaking so violently, they were flabbergasted. They did their best to stop her from shaking, but to no avail. Fear and trembling came over them too, and they were at a loss. Finally, they consented to let her go see Father.

At last Father built a small shack and dug a well, all with his own hands. The well sparkled with such fresh spring water that village womenfolk came to draw water from it, sometimes from quite far away. They used to cast wistful glances at our shack, for they had heard a rumor that two fine youths lived there. Around that time, a certain Christian denomination held a revival meeting in the lower village. It was led by two evangelists, one a man and the other a woman. The village womenfolk told them that two wonderful, sincere young men lived in the upper village, and persuaded them to go witness to them. The woman preacher came to knock on our door. I was away at work at the time. As for Father, he was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 where he had just finished his manuscript. At that moment he was longing for the company of the church family members when he found this woman standing in front of the house. She intuitively knew that he was one of the two sincere young men that she had heard about, so she immediately started talking to him about her mission. Father invited

을 늘 바라보고 하였어요. 여기에는 좋은 청년 두분이 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밑에 어떤 교파에서 여자 전도사 남자 전도사 두사람이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집에 착한 두 청년이 있으니 거기가서 전도를 해보시요 하고 권했답니다. 그 전도부인이 전도를 할 생각으로 우리 있는 집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때 부대에 나가서 없었고, 아버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원리를 다 쓰시고, 식구들을 그리워 하시면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계신데, 부인 전도사가 보고 저분이 그 청년이려니 하고 전도하는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해서 전도사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야기 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말씀을 시작하는데, 해가지고 밤이 되어도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세계적인 이상세계를 말씀하시고 해서 말씀에 감명을 받고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그만집안에서 세계통일이 될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자 전도사가 젊은 청년이 혼자 있는데 와서 밤이되도 안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전도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야요. 아버님께서는 그에게 성경을 펴라고 하고 몇장부터 읽으라고해요. 그러면 읽게 되면 지금 꼭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그 성경구절을 읽게 되요. 의심을 하게되면 성경을 펴고 몇절부터 읽으라고 하면 거기에 꼭 의심하는 구절이 나오게 되요. 그래 얼마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썬더 멤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 전도 부인한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었어요. 돈은 교통비만 딱주고 대구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기가 감명받은것처럼 내가 존경하는 이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여줄거라 생각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다지만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 전도가 마음뜻대로 안되니까 울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이 참 말씀이라는것을 알았으니, 생명을 각오하고 나가리라 결심을 하고, 준비된 사람을 찾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어느 골목길에서 다리가 딱붙어서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가르키는곳을 향해서 들어갔답니다. 그집에 부인이 어젯밤에 전도사부인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올테니 잘 준비하고 있다가 맞아 드려라 하는 가르침을 받고, 오늘 오지않나 하고 준비를 잘하고 흰옷을 입고 뜰에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의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식구는 집안에 반대를 받아서 교회에 잘나오지 않는 처지에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 식구가 그리워서 그 식구집 근처에 가서 종일 서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그 식구가 나오면 얼굴이라도 보고 오시고 싶어서 하루종일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집이 이층집인데 혹시 베란다에라도 나오면 보시려구요. 한번은 그 식구가 베란다에 나왔는데 그 분은 아버님을 못보고, 아버님은 그 식구를 보시고 돌아 오셨어요. 이렇게 아버님은 참 식구를 그리워 하시고 했어요. 우리가 비록 바빠서 홈 에어리아에는 자주 나가지 못하드라도, 그 홈 에어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과 대화속에서 전해진 한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버님이 학생시절에 나가시던 교회의 부인가운데 한 20여년간 은혜의 생활을 하던

부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버님이 지목을 해서 아버님이 대중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한 청년을 찾아가지고 악수를 청했어요. 그로부터 신앙으로 사귀어서 아버님이 보통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6,7년이 지나서 부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안내를 받아서 아버님이 지으신 그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아버님을 학생때 알았으니까 늘 학생처럼 생각했어요. 그래 아버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이가 영통을 하고 하늘과 일문 일답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이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이 세계의 인류전체를 다 합친 것 하고 문선명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기분이 안났어요. 그렇지만 그는 생각하기를 이분은 보통 청년이 아닌것을 알기 때문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것을 알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늘이 내가 문선생을 더 사랑한다 하드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하고 문선생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 하느냐고 기도해 보라고 하드래요. 아 이것을 물어보라는대는 도무지 기도할 기분이 안나드래요. 기분이 언짢아서 집으로 그냥 돌아 왔어요. 집에와서 얼마를 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보다도 문선생님을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여 주드립니다. 아버님이 이쪽에 서시고 예수님이 이쪽에 서시드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던 무형의 하나님이 가운데 서계시드래요. 그런데 그 무형의 하나님이 아버님 계신 쪽으로 자꾸 가시드래요. 그러드니 하나님이 아버님의 몸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드래요. 이와같이 되어서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아버님을 모시고 나오고 계십니다.

아까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가운데서 어디를 가나 생각을 해야 될것은 사랑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 이것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하나님앞에 감사하기를, 사람은 하늘앞에 은사를 돌리려고 하지만은 부족한 마음 금할길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아버님께서 지으신 성령의 은사 노래속에 있어요. 아버님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래로는 모든 사람앞에 사랑하고도 또 사랑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분이 아버님이시고 그것이 아버님의 생애의 노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위로는 하늘과 부모님앞에 사랑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랑을 하고, 아래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식구들, 홈 에어리아의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을 주고 또 주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써, 비로소 하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들이 한 부모를 모시고, 한 형제자매로써 서로 위하고 또 부족함을 느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부모님의 사랑이 더욱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her in, but it was he who ended up talking to her,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As he talked on, and on, they lost all track of time and were not aware of how late it was getting. The sun went down and it became pitch dark outside. He told her about the One Ideal World to come, and though she was very impressed and excited, she could not bring herself to believe that this young man, living in this tiny cardboard shack, was seriously talking about the One Ideal World. Then she suddenly became aware that she, a young woman, had been alone with a young man in a private house for a long, long time. She took her leave, concerned with what others might think of them, two young people alone together. But she came right back the next day. She was a keen student of theology. Father told her to open the Bible and asked her to read aloud certain chapters and verses. They were the very same chapters and verses that had been troubling her for a long time. This happened many times; these chapters raised certain questions and doubts in her mind that she could not answer or dispel no matter how hard she tried. It did not take her long to make up her mind to join the church.

Father sent this young woman evangelist on a mission. He gave her just enough money to go to Taegu and told her to pioneer the church in that city. She was under the impression that just as he had converted her, so she could just as easily convert the one minister she truly respected. But this did not happen. Her witnessing work did not go as well as she had expected. She cried often; she prayed hard too, for God to guide her in finding the people who were prepared to accept the Truth. She knew in her heart what she had to offer was the Truth, so she made a firm resolve to dedicate her life to spread this new Truth. One day she was going on a straight path in the city, when all of a sudden she couldn't lift her feet from the ground. It was as if they had been glued. She felt the hand of God was guiding her, and she chose a house in that same block, knocked on the door, and entered. The lady of that house had been instructed to await a certain woman evangelist whose face was exactly like that of this pioneer missionary. She had put on a snow white dress in preparation to receive the evangelist and was waiting in the front yard. Thus, the city of Taegu opened its first door to the Truth.

One member had so much opposition from his family that he could not come to the church. Father wanted to see him badly, so he went to the neighborhood where that member lived. Since he could not enter his house, he stood outside the front door all day on the chance of catching a glimpse of that member's face. It was a two-story house, so Father hoped to see him when by chance he would come out on the balcony. Finally this member did come out, and although he did not see Father below, Father caught a fleeting glimpse of him. After that he returned home. Father always loved each and every member. Even though we cannot always visit the people in our home church area, if we really are longing to see them, spiritual phenomena can occur.

Finally, I'll tell you the story of another member. She was a member of the church that Father had attended in his school days, and she was a very devout Christian who had led a life of spiritual devotion and grace for over 20 years. One day during a church service, the minister had asked Father to say a representative prayer for the congregation, and his prayer was so fervent and so

moving that as soon as the service was over, this lady specifically looked for Father and shook hands with him. From then on they became close colleagues, and she realized that this young man was no ordinary person. Six or seven years later they met again in Pusan. Father invited her over to his shanty house. She always thought of him as a young "student," but he began talking to her about many things, and knowing that she was spiritually open, gave her a certain theme to pray about. The theme was whether God loved Reverend Moon more than all the rest of mankind or not. She was dumbfounded, and did not feel like praying at all. But she also thought to herself that this was no ordinary person, and that he did not propose such a thing to her in jest, so she decided to give it a try. She went to pray on a mountain throughout the entire night. Heaven told her, "God loves Reverend Moon more than all the rest of mankind." So she came back to tell Father this truth that she had learned from her prayer. Thereupon, he proposed another theme for her to pray about. This time he challenged her to pray to find out whom God loved more, Reverend Moon or Jesus. She was no longer in the mood for prayer at all. She was terribly upset and returned home. But afterwards she got very sick, and remembered that God had said He loved Reverend Moon more than all the rest of mankind, so she changed her mind. She went back to the mountains to pray long and hard. Heaven finally presented to her an unmistakable vision: Father stood on one side and Jesus on the other. And the invisible God, who had guided and protected her, stood between them. Then God began to move toward Father Moon, until finally He disappeared into Father's own body. As a result of this most extraordinary event, she has been serving Father ever since, with all her heart and soul. She is still in perfect health, by the way.

If you remember, Father told us this morning, among other things, that we must bear this in mind at all times: in order to become God's true children we must feel that no matter how much we love Him and cherish Him our love for Him is not quite sufficient. In thanking God this morning, Father said that we may wish to return our love to God, but our love for Him is very insufficient. This was so clearly stated in his own song, "The New Song of Inspiration." Father's life consists entirely of loving and cherishing God. Still, he feels that his love for God is not sufficient. He is a man who loves all mankind and loves them more and more, yet always with the feeling that he cannot love them enough. That's Father Moon. That's the path he walks. Therefore, we, too, love and cherish Heaven and our True Parents with all our hearts, but still we should feel that our love for them is not enough. We must also love church family members under our charge, feeling our love for them, too, falls short. Thus we become the children of God who will give Him joy, and of whom He will be proud.

Finally, let me conclude my long, long testimony by saying that we brothers and sisters must serve our True Parents with all our hearts, love and cherish one an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yet always with the feeling that our effort falls short of the ideal of love. We should all become those people Heaven and True Parents can be proud of. You have been listening to me with such attention. May Heaven and our True Parents shower upon you love and more love.

Thank you very, very much.



An Interview with Sae Hyun Ock

선생님 獄바라지에 생애바친 玉世賢 할머니

對談 權 五 文

(統一·世界 1977년 9 월호)

「統一教會」란 간판없이 선생님 홀로 뜻을 개척해나 오시던 1946년도에 인연되어 하늘의 뒷바라지를 해 나 온 산증인 玉世賢 할머니를 만났다. 어떤 직함도없이 「옥씨모친」이니 「옥씨어머니」로 통하는 분으로, 우리교회의 역사적인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 해 나오신분이다. 선생님이 북한에서 영어의 몸으로 계실 때나 모진 냉대와 핍박을 받은 시절에 하늘대한 열부의 절조로 무서운 가시밭길을 함께 걸으셨다.

올해 80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하이얀 얼굴에 깨끗하게 차려입은 한복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게 했고, 하늘의 파란을 같이 격으면서 얻어진 주름살은 오히려 값진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옥씨 할머니는 평양태생으로 기성교회에서 집사일을 맡았고 장로인 남편과의 사이에 2남4녀가 있다.

이 분을 통해 교회초창기의 선생님의 어려웠던 일들을 들어보았다.

—먼저 선생님을 만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큰 아들이 22살때 일본유학을 갔다가 대동아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아들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정성을 많이 드렸어요.

해방을 전후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저에게도 계시가 내려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신곳을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산(山)기도를 가라고 해요.

그러나 살림살이 때문에 차일피일 하다가 징계를 받아 열병을 얻어 고생을 했지요. 그러다가 46년11월 초이래 선생님께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 처음 만나게 되었지요』

—선생님을 만난후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내가 기성교회 장로부인이고, 집사였어요. 선생님을 중심하고 여러교회 집사들이 몇 명씩 모여 예배를보게 되었지요. 예배분위기가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하늘 앞에 감사하는 눈물, 하늘의 사정을 알고 회개하는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지요. 그렇게 되니까 기성교회에서 참소를 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보안서에서 구금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지요. 2천년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지요. 저의 집에서 반대하고 주위에서도 핍박을 했답니다.』

Tongil Segye September, 1977

In 1946, when the Unification Church didn't even have a plaque to its name, when Reverend Moon walked alone on the path of God's Will, he met an old grandmother by the name of Sae Hyun Ock, a living proof and testimony to the strength of Reverend Moon and his church. She goes by "Mother Ock" in that she was a sort of "mother" to the church in its struggling early days. During his prison years and persecution, she chose to walk alongside him on the thorny path.

She is 80 years old, yet in her white Korean costume she looks fresh and even youngish. Her serious face bespeaks the historical mission once thrust upon her frail shoulders.

Mrs. Ock was born in Pyung Yang, North Korea. A deacon in her Christian church, she and her husband, elder in the same church, had two sons and four daughters.

This interview, with her cooperation, explores the early struggling days of the Unification Church.

Q. First of all, please tell me how you met Reverend Moon.

A. When my eldest son was 22, he went to Japan for a college education. World War II had broken out at that time and he had to join the army. I prayed to God to take care of my son. Now, just around Liberation Day in 1945, many messages from the spirit world reached some of us. I happened to receive revelation, so to speak, as to where Reverend Moon lived. First, I was told to go up a mountain for prayer. But I was too busy with my domestic chores so I postponed this prayer, and consequently I was punished by a disease. Then, in November, 1946, someone took me to meet with Reverend Moon for the first time.

Q. What happened after you met him?

A. I was the wife of an elder in an established Christian church and a deacon myself in the same church. But a few of us deacons gathered around Rev. Moon for worship and prayer. The whole thing was unbelievable. At our meetings we were really high, spiritually; that is, we cried, prayed, cried in joy again. Once we understood God's heart, we truly repented. Soon the established churches got wind of our meetings, and started persecuting us. Police stations were alerted and some of us were apprehended. We experienced the same Holy Spirit that had descended in the upper room of Mark two thousand years earlier. My own family, too, objected and others soon persecuted me.

Q. I understand that Rev. Moon was arrested at that time on the grounds that his meetings were those of the Bok Joong Gyo (Inside-Belly Church).

A. That's right. There was the Bok Joong Gyo, of which Mrs. Ho Bin Hur was the founder.

—그당시에 그렇게 예배보는 것을 복중교단체와 비슷한 단체라고 선생님을 보안서에서 감금했다는데….

『그랬지요. 평양에 허호빈이라는 여자 교주가 만든 복중교라는 교단이 있었지요. 그들은 재림주님이 오시면 입을 옷을 장만하여 큰 방에 쌓아두었습니다. 이소문이 퍼지자 보안대에서 교주를 구금하고 물품을 모두 압수해 갔어요. 선생님께서도 그와 같은 단체라해서 구금되어 3개월간 복역했어요. 선생님께서 허씨를 위해서 복중교를 부인하고 나가라는 쪽지를 인편으로 전하셨는데, 이것이 간수에게 알려져 치아가 부러지고 피를 많이 흘리는 고문을 당하셨어요. 처음엔 나씨라는 분의 집에 계셨었는데 풀려 나오신 뒤에 김종화씨 집으로 옮기셨지요.』

—하늘의 크나큰 사명을 짊어지시고 섭리역사의 기반을 닦으려던 선생님의 일 하나 하나마다 반대의 벽에 부딪치셨군요. 그 이후에는 어떤일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특별금식을 하도록 했어요. 금식 삼일만에 하늘에서 특별계시가 내렸어요. 선생님이 어떤분 이신가를 하늘에서 증거했지요. 그때 선생님의 나이는 27세였어요. 저는 5일간 금식을 마치고 집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에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기성교회 장로부인으로 집사일을 맡고있다가 소식도없이 5일간이나 금식하고 들어가니까 반대할만 했지요.』

—기성교단이 보는 눈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기성교회에서도 벌떼처럼 야단이었어요. 47년도에는 한 30명가량 모였어요. 이들 거의가 기성교인들이니까 모진핍박을 한것이지요. 이당시에 김인주씨가 가족들에 의해 모진 고난을 받았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지요. 하루는 몽시에 선생님께서 십자가형틀에서 고난을 받고 내려놓으심을 보고 달려가보니 매를 맞아서 힘없이 앉아 계시더군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모택에 계셨는데 자주 찾아가 뵈었지요.』

—얼마후에 다시 수난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승도씨가 우리 교회에 와서 48년 음력 삼월 초하룻날 하늘 잔치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소문이 퍼져 교계에서는 비난을 하고, 보안서까지 들어갔지요. 어느날 여자한명이 와서 자기도 신앙을 갖고 있고 자기 모친도 신앙이 돈독하다고 신앙 얘기를 꺼내서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동정을 살피고 갔어요. 다음날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하여 교회에 갔더니 형사가와서 선생님과 원필씨, 여자식구 두명을 데려갔어요. 원필씨는 4일만에 나오고 여자들은 2일만에 나왔지요. 잔치준비한 물건을 내놓지 않으니까 나와 오륙명의 여자식구들이 다시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간지 이틀만에 선생님이 삭발을 당하셨어요. 들어가신지 5일만에 죄목을 말하는데 첫째는 이승만의 스파이요 둘째는 돈 많은 여자를 모아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요, 셋째는 사회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었지요. 누구든지 간첩의 죄목에 걸리면 아무 소리없이 총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안절부절했어요. 별안간 신령역사가 일어나 교도소 마루바닥에 뒹굴었어요. 교도소 직원들은 무서워서 모두 도망갔어요. 신령역사가 멈추자 얼마후에 그들이 올라왔는데 왜그러냐고 하면서 그선생을 언제부터 그렇게 따랐느냐고 하더군요. 그들은 빈정거리면서 하나하나 캐물었어요. 저도 감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조카가 와서 직원들과 교섭하여 9일만에 출감했어요.』

—그 재판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변호사를 내세워 재판을 결

했지요. 이 재판의 전모가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많은 기성교인들이 재판장에 몰려 왔어요. 그들은 예수가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느냐고 조롱하였고 선생님을 죽여야 한다고 고함쳤어요. 이때 재판장은 5년형을 내렸어요.』

저는 뜰 복판에 선생님을 모시고 나와 준비해 간 음식을 드렸지요. 선생님께서 손목에 수갑을 차시고걸으시는 뒤를 말할 수 없는심정으로 따라 걸었습니다. 제가 다시 상고하였지만 형량은 줄지않았어요. 그후 보안대에서 평양감옥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 때 30여명의 식구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혼자서 울면서 면회를 다녔답니다.』

—평양감방에 계실때 이야기를 좀….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시기 삼일전에 감방의 죄수였던 김원덕이라는 청년에게 몽시로 선생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가 선생님을 보살펴 드리고 말씀을 듣고 따랐답니다.』

—홍남에 계실때 면회는 자주 가셨나요?

『그후 소식이 없어 궁금하던차 하루는 홍남에서 편지가 왔어요. 면회오라는 선생님의 편지였어요. 떠날 준비를 해 가지고 저녁차를 타고 밤새껏 갔어요. 평양에서 홍남까지 천리길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면서 외출도 많이지 않았던 내가 낮도 아닌밤에 홍남까지 가기는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 홍남이라 용기를 내어 묻고 물어 이튿날 아침에 도착했답니다. 여관을 정하고 짐을 풀고 형무소로 찾아갔어요. 푸른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줄에 40여명씩 묶여걸어나오더군요. 마침 나오시는 선생님의 모습을보니 기가 막혔어요.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때 까지 면회실에서 기다렸어요. 반갑기도 했지만 숨통이 메어지는것 같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식구들이 잘있느냐고 묻길래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모두 잘있다고 했어요. 준비한 미숫가루를 드렸지요. 이튿날 또 면회를 하고 밤차를 타고 평양에 왔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깊은 산골 감옥에서 선생님이 홀로 옥살이 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비통함을 참을 길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얼마있다가 또 면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기에 근심하면서 한 간수에게 물어본 끝에 본궁이라는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곳은 홍남감옥에서 20리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을 사서 짐을 지우고 그곳에 도착하여 숙소를 정하고 그집에서 감옥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바른쪽에서 리어카 끄는 소리가나기에 바라보니 선생님이 끌고 계시더군요. 옆에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와서 사과, 찹쌀, 계란을 사가지고 볶아서 오꼬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근심중에 한잠자고 아침에 형무소를 바라보고 있으니 선생님께서 뜰을 쓸고 계시더군요. 달려가서 어제 보낸것 잘 받으셨느냐고 하니 잘 받았다고 하더군요. 곧 들어가시기에 다시와서 바라보니 뒷뜰을 쓸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간수에게 먼 평양에서 우리 조카한테 왔는데 할 말이있으니 말좀하게 해 달라고 하니 허락해 주더군요. 한참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한달후에는 다시 홍남으로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또 나오시지 않나해서 기다리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려 평양으로 왔어요.』

—선생님께서 홍남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것으로

She and her followers had their special clothes made for the coming of the Lord of the Second Advent. When the police heard of this, they came to arrest her and took away all the clothes. Rev. Moon's church was also considered the same sort of religious group, for which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He sent a note through a third party to Mrs. Hur, advising her to repudiate her Bok Joong Gyo and get out of jail, but the note was intercepted. As a result, he was cruelly tortured by his jailers, bleeding a great deal and losing several of his teeth. At first he stayed with Mr. Na, but after his release he moved to Mr. Chong Hwa Kim's.

Q. Rev. Moon, who tried to fulfill his heavenly mission in laying down the foundation for the history of God's dispensation, faced stone walls of opposition, it seems. After the prison, what really happened?

A. Rev. Moon told us to fast. After three days of fasting, I received revelation from Heaven—what sort of person Rev. Moon was. He was 27 at the time. After five days I returned home, and then my family really started objecting to my association. I was a wife of an elder in an established church and a deacon, yet I was away from home, fasting somewhere, for five days. My own family's opposition was all natural.

Q. How did established churches regard all this?

A. They all raised up their arms in protest. They were like a swarm of angry bees. In 1947 our group had about 30 members, most of whom were regular members of established churches. They were all persecuted; they were made to suffer hardships by In Joo Kim's family. I could not stand the cruelty involved in this persecution and hostility. One day I had a dream in which I saw Rev. Moon tortured on the cross and when I rushed to him I saw that he was weakened by severe beatings. This was all in my dream. About this time he lived with his aunt and I saw him often.

Q. I understand that soon afterwards he was again imprisoned and tortured. Why?

A. In 1948, Mrs. Sung Do Jee came to our Church to make preparation for a Heavenly feast on March 1 (lunar calendar). The rumor spread fast and the established churches as well as the police got wind of it. One day a woman came and told us that she was a believer and so were her parents. Later it turned out that she had come to spy on us. The next day I felt confused and oppressed, so I went to Church. There had already come a detective from the police, who arrested Rev. Moon and Won Pil Kim, and two other female family members. Mr. Won Pil Kim was released after four days, and the two sisters after two days. We did not have our feast as scheduled, of course. And five or six of us were apprehended and imprisoned. When I stayed in a cell for two days, Rev. Moon was released. Five days after his incarceration, he was charged with (1) being Syngman Rhee's spy, (2) squeezing money out of rich women, and (3) disorderly conduct. Anyone charged with espionage was sure to be executed by the firing squad without a trial.

I was utterly confused and frustrated. All of a sudden, the spirit seized hold of me and I was literally rolling on the floor within the indoctrination center. Instructors at the center got scared and ran like jack rabbits. When it was all over, they came back and asked me why I was in such a frenzied state. They insinuatingly asked me

one question after another—when I became a follower of Rev. Moon, etc. I was then confined in a cell, and one of my nephews came to negotiate my release. All totalled, I was in jail for nine days.

Q. How did the trial go?

A. I felt a gross injustice was being done to us, so I availed myself of a lawyer as defense counsel. The whole thing was blown up in the papers, so that many established church members came to the court. They jeered at us and asked: What did Jesus have on his head? They screamed that Rev. Moon ought to be butchered. The judge sentenced Rev. Moon to imprisonment of five years.

I accompanied Rev. Moon to the middle of the courtyard and offered him the food I had brought with me. When I walked behind him, seeing him handcuffed like a common criminal, my heart was torn to shreds. I appealed to the higher court but his sentence was not reduced. He was soon transferred from the police headquarters to Pyung Yang prison. At that time, over thirty family members drifted away, and I was the only one to visit him in the jail.

Q. Tell us a little about this Pyung Yang prison.

A. Three days before Rev. Moon was to be incarcerated, a young prisoner in the Pyung Yang prison by the name of Won Duck Kim had received in his dream a revelation that he should serve and honor Rev. Moon. He did, I understand, as he had been told. He listened to Rev. Moon and served him in so many little ways.

Q. Did you see him often when he was later transferred to Hung Nam prison?

A. Well, for some time I received no news, but one day a letter arrived from Hung Nam. The letter said I should come to see him there. At once I made preparations for the journey and set out, taking a late train. I rode all night. From Pyung Yang it's about 1,000 ri (400 km.). I was just a housewife, not used to going out, so to go on a long journey through the night was not easy for me. But I knew that Rev. Moon was suffering all kinds of hardship, so I summoned up all my courage to undertake this journey, and I finally arrived at Hung Nam the following morning. I took a room in a nearby hotel, unpacked my belongings, and went to visit him. Prisoners were coming out of the cells, 40 in a group, all chained. I spotted Rev. Moon among them. My heart almost stopped. I waited all day for him until he returned from hard labor all day. I was glad when I saw him, but my heart was bleeding too.

Q. What did you talk about?

A. He asked how the family members were. I wanted to make him feel good, so I said they were doing fine. I gave him rice powder. The next day I saw him once again and took the night train back to Pyung Yang. I cried all the way, tears cascading down my cheeks, which blurred my own vision. I couldn't help it.

Q. And then?

A. After some time I went back to see him but was told he was no longer at that prison. This worried me to no end, so I asked one of the jailers and he told me that Rev. Moon was at a place called Bon Gung. The place was about eight km. away from Hung Nam prison. I hired someone to carry my baggage and went there and took a room in a small lodging house. My eyes were in the meantime riveted on the prison and I heard the squeaking noise of a rikshaw. And then, lo, Rev. Moon was pulling it! I rushed to him and talked with him. I bought some apples, glutinous

알고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한번은 원필씨와 면회를 갔었지요. 선생님께서 비료카마니를 지시고 머리에는 꺼먼 수건에 흰 모자를 쓰시고 우리를 못잇으시는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쓸쓸히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쓸쓸하신 모습을 보고 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갈 때마다 옷을 해가지고 갔지만 항상 입던 옷만 걸치고 계시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새 옷은 출옥하는 사람에게 입혀서 보내셨답니다.』

—6.25때 국군이 진격하자 감옥문이 열렸는데 그 사정 이야기를 해주세요?

『6.25전쟁때문에 면회도 못하고 궁금하기만 해서 기도만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잘 계시니 안심하라는 계시가 내려요. 50년10월14일 유엔군이 흥남에 진격해와서 출옥할수 있게 되셨어요. 폭격이 심한데도 죄수들을 끌고나가 일을 시켰어요. 죽이려는 수단이었겠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계시는 일터에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이상도 없었으나,감방의 죄수들을 차례로 끌어내어 총살함으로 죄수들은 매일 안절부절 했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만들어드린 양말을 신으시고 걸어서 열흘만에 평양에 도착하셨어요. 그후 한달동안 저의집에 계시지요.』

—선생님의 북한시절은 완전히 고난의 연속이었군요. 그 이후 월남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남하신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가족들과 함께 월남하고 선생님께서는 흥남 감옥의 죄수감독이던 박정화씨와 함께 월남하셨어요. 정화씨는 평양에서 오다가 공산당원이라는 오해를 받고 물매를 맞아 다리가 부러졌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런사람을 자전거에 실어서 원필씨와 같이 월남 했답니다. 일종의 모험이었지요.』

박정화씨는 경주에 거처를 정했고 선생님과 원필씨는 부산에 가셨어요. 두 분이 아는집에 계시면서 초량교회 한상도목사를 통해 나 있는 곳을 아시고 원필씨를 보내셨어요. 나는 제일먼저 어떤옷을 입고 계시냐고 물어보니 이북에서 입고 계시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시다기에 두분 몫으로 두었던 양복지를 팔아 하숙을 정하게하고 며칠후 옷을 장만해서 보러갔지요.

선생님께서는 51년 봄에 낮에는 산에 계시고 밤에는 부두에서 노동을 하셨지요. 원필씨는 어느 식당에 있다가 미군부대에 나가 일을 했어요. 또 밤일동에 토담집을 지어 선생님께서 한겨울을 손수 식사해 드셨지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에 유협회장님등 중심식구가 이어서 들어오고 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란 간판을 달았어요. 이곳에서 이화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많이 입교했어요. 그 무렵 식구가 많이 늘어 흥인동으로 옮겼지요. 즉 55년 4월27일 장춘단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곳에서 이대교수 5명이 퇴직을 당하고 이화여자대학생 14명이 퇴학을 당했지요.

이런 혼잡할때 이사간지 석달만인 7월 4일 서대문형무소에 선생님께서 구금되시고 간부들이 같이 들어갔지요. 당시 식구들과 매일 면회가는것이 우리의 일과였지요. 서대문형무소가 생긴이래 이같이 면회자가 많았던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합니다. 3개월만인 10월 4일 선생님께서 무죄로 나오시고 그 후 간부들은 석방되고 원필씨는 그해 성탄절에 나왔지요. 선생님께서 나오신후 곧 청과동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성혼식을 하고 축복을 하는등 통일교회 발전이 거의이곳에서 이루어졌지요.』

—장시간동안 초창기 부터 선생님의 생활을 뒷바



라지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된 통일교회를 만드신 선생님을 바라볼때 격세지감을 느끼시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셔오면서 느끼신것을 토대로 오늘 우리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교회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일화사건으로 국내적으로 기가 죽어있고 국제적으로 어려운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는참고 참는것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숭한 반대 비소를 참으면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오히려 승리의 발판이 될수 있지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선생님의 하시는 일에 위로를 드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해야하겠지요.』



rice and eggs, and whipped up a meal for him. Then I came back to my lodging, worried sick. I tried to sleep to no avail, and the next morning I looked in the direction of the prison and saw Rev. Moon sweeping the prison yard. I went to him and asked if he had received the meal. He said he had enjoyed it. He had to leave me, so I returned to my place. When I looked back he was sweeping the backyard.

I went to one of the guards and told him I had come all the way from Pyung Yang to speak with my nephew. He gave me permission to do so. We talked a long time. Rev. Moon told me he was going back to Hung Nam in a month.

I waited for him to come out again but he never did, so I had no choice but to return to Pyung Yang.

Q. I understand Rev. Moon suffered a great deal of hardship. Did he ever talk to you about it?

A. On one occasion both Won Pil Kim and I went to visit him. He was carrying a heavy fertilizer bag; his head was wrapped in a dirty towel, with an old hat on. He turned back to look at us as if he could never forget us. He then sadly went back to the jail. Each time I went there I bought new clothes for him, but each time I returned I saw only the old clothes on him. I later learned that he had given the new clothes to prisoners released to go home.

Q. During the Korean War, as the ROK Army was marching north, the gates of Hung Nam prison were opened. Did he ever talk to you about that?

A. During the war, I could not go there to see him. I ached to see him again, but I just prayed and prayed. And I received revelation reassuring me that he was in good shape. On October 14, 1950, the United Nations forces captured Hung Nam and liberated the prisoners, among whom was Rev. Moon. Bombing from the U.N. Air Force was heavy but prisoners were forced to do heavy labor out in the open. The Communists wanted them to be killed, I am sure. However, wherever Rev. Moon happened to work, no bombs were dropped. The prisoners were one by one taken out to be shot in turn. A miracle saved his life.

Rev. Moon put on a pair of socks I had knit for him and walked for ten days to reach Pyung

Yang. He stayed with us for a month.

Q. Rev. Moon's North Korean days were an uninterrupted series of suffering and hardship. Now, tell me how he fared once he came down to South Korea.

A. I went south with my own family. As for Rev. Moon, he did so with Mr. Chung Hwa Pak, a chief jailer at Hung Nam. Mr. Pak was accused of being a communist and beaten. His legs were broken. But Rev. Moon put him on a bicycle and along with Won Pil Kim came down south. It was a big risk to say the least.

Mr. Pak decided to stay to live in Kyung Joo, while Rev. Moon and Mr. Won Pil Kim went on to Pusan. They stayed for a while at a friend's, and through Rev. Sang Do Hahn found where I lived. Rev. Moon sent Mr. Kim over to me. The first question I put to him was what clothes Rev. Moon wore, and got the reply that he still wore the same clothes he had in the north. I sold yards of clothes I had saved for both of them, and found a room for them. Several days later, I made clothes out of what was left and brought them over.

In the spring of 1951, Rev. Moon lived in a mountain during the days and worked as a dock laborer during the night. Won Pil Kim worked in a restaurant for a while and then found a job in the U.S. Army. Rev. Moon built a shack in Bum-Il-Dong, Pusan; for one winter I cooked for them there. In the meantime, Mr. Eu (President of H.S.A. of W.C.) and others came along to join us. On May 1, 1954, 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 was officially established.

Then many professors and students of Ewha University joined the family. We had a large group, so we moved to another place in Hung In Dong. Then on April 27, 1955 we again moved to Jang Chun Dan. Around this time five professors from Ewha University were dismissed and fourteen students kicked out of the university.

About three months later, on July 4, Rev. Moon, along with many staff members, was arrested and imprisoned in Suh-Dae-Moon prison. It was our daily task to pay a visit to the prison. Since the prison was built, no one received a larger delegation of visitors. On October 4, Rev. Moon was acquitted and freed, and soon the others were released. Won Pil Kim was released on Christmas Eve. Soon after Rev. Moon's release, we again moved to a house in Chung Pa Dong. There was a big blessing ceremony. It was here that the Unification Church took off.

Q. Thank you kindly for talking to us so long about Rev. Moon and the Church, from its early beginnings up to now. You have told us what you saw, felt, and thought without reserve. You must be proud of him when you meet Rev. Moon, who has made the Unification Church into a worldwide religious organization. Well, tell us what you want to the new-comers in the church.

A. It is said that our Church is on trial again. In Korea, we have on our hands the so-called Il Hwa problem; internationally we also have our hands full with hostility and persecution mounted against us. Rev. Moon's life has been built on patience and more patience. In spite of opposition and contempt, he has won a laurel of victory around his head. Our present "difficulties" can be turned into another rung in the ladder of success for us. If we look upon these difficulties as objective lessons, we must lessen the burden on Rev. Moon's shoulders and do all we can to fulfill our Heaven-sent mission.



劉孝元 先生の 日記抄

出廷의 날은 옥중생활 중 옥중생활을 하는 날이다. 다다미 2장반이나 되는 방에 24명이 질식할 것 같은 가운데서 하루를 지나는 것이다.

整理 편 집 실

(統一世界 1980년 7 월호)

■ 序文

故 劉孝元先生이 세상을 달리한지 10년이 지났다. 일찌기 뜻앞에 부름받아 불변의 심정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다 가셨다. 협회가 창립되고 모진 수난과 킁박이 몰려올 때 스스로 바람막이가 되셨고, 선생님의 말씀을 체계화시켜 원리해설과 원리강론을 펴셨고, 식구들의 모심의 생활에 모범을 보이셨고, 통일교회가 오늘 세계의 종교가 되게 하는데 그 기반을 구축하셨다. 선생은 1970년 7월 24일 지병을 치료하시던 중 서거하셨다.

실상 한국의 식구들이나 해외의 모든 통일의 형제들은 임께서 더 오래 땅에 남아 보다 많은 일을 하여주시기를 바랐지만 결국 선생은 떠나가셨다. 이제 임은 가셨지만 생전에 뜻을 위해 일하신 업적과 몸소 보여 주신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생활은 우리들 속에 전통

으로 남아 길이 계승될 것이다.

1955년 5월 11일 수요일

景圭君이 인도한 사람들을 상대로 종일 원리강의를 하였다. 학교(이화여자대학)에서는 벌써 기숙사 퇴거령이 내려 4명이 퇴사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식사를 하러 내려가니 吉子, 正思, 美植, 明鎭양들이 둘러 앉아 식사를 하고있다. 모두 웃는 얼굴들이다. 저녁 예배가 끝났다. 그녀들을 양윤영선생댁에 우선 머무르도록 조치했다. 뜻을 대하여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태도가 아름다웠다. 학생들의 부탁으로 이대(梨大) 교수들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썼다.

1955년 5월 14일 토요일

14명 이대생이 학교당국으로 부터 제적당하였다. 학생들은 더욱 강경한 태도였다. 9시 30분 吉子와 美植을 오라했다. 서울신문사에서 내방할 예정이므로, 새로 찾아온 이대생 6명을 상대하여 말씀을 전했다. 도중에 선생님께서 말하시고 나는 학부모들을 만났다.

1955년 7월 4일 월요일(큰 환난의 날)

나는 오늘은 七死日, 일곱 번 죽어야할 날이라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 현실씨가 찾는다. 성진母

Excerpts from the Diary of Hyo Won Eu

Tongil Segye, July 1980

It has been ten years since Mr. Eu began his life on the other side. With his unchanging faith and his consistent devotional life, he set himself up as a front-line bulwark in the early years of conflict and persecution in Korea and set a good pattern for us.

He systematized and preached Father's words and wrote *Explanation of The Principles* in 1957 (the first printed work on the Divine Principle) and *Discourse on The Principle* in 1966 (translated into English as the *Divine Principle*). He died on July 24, 1970.

In his position as president of our family in Korea for 15 years, he wrote almost daily in his diary, reporting to Father and making a plan for the following day.

May 11, 1955

Lecturing all day to people whom Kyung Ku led to the center. Four people from Ewha University were expelled from the dormitory. I came downstairs and saw Kil Ja, Chong Sa, Mee Shik and Myung Jin eating. Everyone was smiling. After the evening service was over I tried to bring them to Mr. Yang's house to stay there. I was so impressed by their determination. I wrote a petition to the professors of the school, at their request.

May 14, 1955

Fourteen students were expelled by the Ewha administration. The students seem to be very firm in faith. At 9:30, I asked Kil Ja and Mee Shik to come over for an interview with Seoul newspapers. I was lecturing to six new students from Ewha. I asked Teacher (Father) to talk to them while I was gone.

July 4, 1955 (day of great persecution)

Today I determined to die seven times. In the evening, the newsmen came again, scurrying around, taking pictures of Teacher. Shortly afterwards, Investigator Oh and Chief Investigator Kim came over to ask Teacher to come to the station in order to tape an interview. Young Oon and I followed them. We went into different rooms. We were told to go back home. Mr. Oh almost pushed us to the gate. Our family was there. Then we went back with them. So I was right when I thought today was persecution day.

July 5, 1955

Teacher didn't come back. How could I sleep after leaving him alone there? I am just like Peter. After I had breakfast I felt more tired. I should go through persecution with Teacher. I lay down for a while. Tong Hi came in. He brought with him the

newspaper Pyung Wha. Our beloved was arrested. The time has come. Now we have to face what we are supposed to face. I'll be courageous. I took clothes and borrowing Mee Shik's umbrella, I went to look for our family at the station. By coincidence, I met Mr. No and Mr. Cho. They said they didn't know where Teacher is. Then we all went to a teahouse. We bought all the newspapers. The story in the papers was very dirty, but through dirty things we can have fertilizer. When I went to a special investigation room, I saw Won Pil being interrogated. Because of age problem, the investigator was slapping him. It was a different feeling from what I felt in the tearoom. We were interrogated for evading the draft and for illegally confining people. Sitting all day with an empty stomach, I even forgot about being tired. Mr. Cho took us to the restaurant. I followed too. I comforted our family, who looked like a flock without a shepherd. I don't know if this is the last entry in this diary. I took out the photos, and I don't know if they will be put back.

Can you die with your beloved? Can you forget the words of promise? Can you go over the hill which you believe impossible to cross?

July 6, 1955

I talked all morning to the family. We went all together to be with Teacher.

I will go where my beloved goes.

Can I go even to death?

We are made one body.

Can I go even to hell together?

This is the way I am;

Who can stop me?

I was waiting for Ho Young in the Dai Yang teahouse until 3:00 and then I went to the investigation station. They interrogated all the family members about draft violation and illegally confining people.

July 10, 1955

After I preached the Sunday sermon, I went to a different room to give a lecture on Christology to Mr. Seuk. Even before I began to speak, Investigator Oh and Chief Investigator Kim came to arrest me. So I changed clothes and prepared to go. When I got there, Hyo Min and Hyo Yung were there, being investigated. This evening, instead of Chung Hwa Pak, they tried to detain us. We petitioned to leave and were allowed to return to the church.

July 11, 1955

I encouraged Kyung Gu, Hwan Chai and the students from Ewha. I asked everybody to meet at Yang's house, with unity and love. At 4:30 I prepared for life in jail, and went to the investigation station. I also saw Sung Sil Choi being

카 선생님을 고무신으로 구타하니 들어가 말리라는 것이다. 여인은 갖은 욕설을 퍼붓는다.

저녁 식사를 할무렵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와서 선생님의 사진을 찍는다고 야단을 한다. 조금 지나자 수사관인 오대씨와 김주임이 들어섰다. 녹음을 한다고 선생님께 치안국으로 가자고 한다. 영운(永雲)씨와 내가 따라 나섰다. 선생님을 탄 방으로모시고 들어갔다. 얼마 후에 우리들 보고는 돌아가라고 한다. 오대씨에게 끌리다 싶이 정문 밖까지 나오니 식구들이 와 있었다. 그들과 함께 돌아왔다. 오늘은 이렇듯 아침의 예상대로 일곱번 죽음의 길을 걷다.

1955년 7월 5일 화요일

선생님은 아니 오셨다. 그래 이렇듯이 입을 남겨두고 편안한 잠을 잤더라 말인가. 아! 나는 베드로 구나. 아침을 먹고 나니 전신에 맥이 탁 풀린다. 선생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잠깐 누워 있는데 동회씨가 들어왔다. 평화신문을 내어 놓으며 놀란다. 입을 구금 당하신 것이다. 올 때는 왔다. 넘어야 할 고개는 넘어야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리라. 나는 옷을 추려 입고 美植양의 우산을 빌려쓰고 식구들을 만나러 치안국 앞으로 갔다. 공교롭게 노선생과 조선생을 만났다.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계신줄 모른다고 했다. 물려온 식구들과 대양다방에 모여 앉아 팔러오는 신문마다 사서 보았다. 모든 것이 더럽다. 그러나 더러운 것은 거름이 될 것이다.

특수정보과로 들어가니 원필씨가 취조를 당하고 있었다. 연령문제 때문에 빵을 이리맞고 저리 맞는다. 다방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던 때의 감정과는 달랐다. 나도 새로이 취조를 당했다. 불법감금, 협박, 병역법위반죄 혐의로 취조를 받는다. 나는 솔직히 모든 묻는 말에 대답했다. 줄인 배에 종일 앉아 있었으나 피곤하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조선생이 음식점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나는 도로 나왔다.

목자 잃은 양무리들 같이 고대하고 있는 식구들 둘러 앉혀놓고 위로를 했다. 오늘 이 일기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부렸던 사진을 빼었다. 이 사진이 다시이 일기장에 부쳐질 것인가 그대여 그대는 입과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인가. 입과 더불어 죽어야 한다. 그대여 약속한 말씀을 잊지 않을 것인가, 못믿을 고개를 믿고 넘을 수 있을 것인가.

1955년 7월 6일 수요일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기뻐 가자고 아침내 식구들에게 일러 주었다.

임 가는 길 내 가오리
죽음엔들 안가오리
한몸 이룬 몸이오니
지옥엔들 안가오리
가려는 몸 이같은저
뉘 막을 자 없사오리.

대양다방에서 효영 효민 오기를 기다려 오후 3시경 치안국으로 들어갔다. 불법감금, 병역법위반의 죄명 아래 문초를 받았다.

1955년 7월 10일 일요일

오전 설교를 끝내고 石씨를 상대로 기독교론을 해설코자 나의 방으로 들어왔다. 맘도 개기전에 수사과에서 오대씨와 김주임이 구금하러 왔다. 나는 옷을 갈아 입고 모든 준비를 하고서 따라갔다. 효민과 효영도 치안국에서 취조를 받고 있었다. 오늘 저녁 朴正華 대신으로 붙잡아 두려는 것을 가까스로 사정하여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교회로 향했다.

1955년 7월 11일 월요일

이대학생들과 경규 환채군들을 모아놓고 여러가지 권고의 말을 하였다. 양운영씨 집에서 식구들을 각각 만나 사랑으로 하나될 것을 부탁하고, 오후 4시 반에 다시 옥중생활의 준비를 하고 치안국 특수정보과로 갔다. 崔淳實도 와서 취조를 받았다. 그도 구금당했다. 나는 곧 동대문서로 유치되었다. 철장으로 내다보이는 수인들을 볼 때 『퀴바디스』에서 최후를 고대하는 기독교자들을 연상케 했다. 國保와 강도의 두 청년과 동침하였다. 나는 그들 청년들에게 앞날의 새로운 희망을 넣어 주었다.

1955년 7월 13일 수요일

형사에게 호송되어 차를 타고 종로서로 갔다. 선생님과 淳實씨는 벌써 와 계셨다. 이수경군이 시켜온 곰국을 먹었다. 서울 지방검찰청으로 가려고 池 변호사와 형사 一人과 선생님을 모시고 택시에 타려할 때 많은 식구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다. 효민과 효영도 나오는



interrogated. He also was arrested. I was arrested at the East Gate station. When I looked at the prisoners through the iron gate, it reminded me of the *Quo Vadis* movie, when the people were waiting for their final day. I was put with one thief and one bureaucrat. I gave these young men new hope for the future.

July 13, 1955

I was sent by a detective to the Chong No station. Already Teacher and Sung Sil were there. Mr. Soo Kyung Lee brought a delicious gom stew and we ate it. When Teacher, Attorney Choi and the detective were going to take the taxi to the local court, many family members surrounded us. Hyo Min and Hyo Yang were with them too. Yung Suk Pak was looking at me very sympathetically. When we were almost ready to leave, one of my nephews called, "Uncle, what happened to you?" He was crying. When the car left, he hit the window. Their faces looked at us with so much longing, so I told them there was nothing to worry about. We became so tired, waiting in the Pigeon's Ground. Teacher's right wrist and my left wrist were bound tightly together. We were led to the examining room. Mr. Han, Mother Ock, Chong Bok, Han Yong, Hwan Chai and Kyung Gu were trying to follow us. We all ate the food brought by our family. When all six, including Sung Sil, were being bound together, Teacher said, "They are making us eternally inseparable. We determine to fight unto death." When I heard these words I was glad and happy. He looked at me and added, "Hyo Won, you are having a hard time, aren't you?" I told him, "Because of our mistakes, we got you into trouble as well." With 30 other prisoners, we were sent to the West Gate prison. Some time after midnight, we arrived at building 6, ward 9, cell 380.

July 15, 1955

The day when we go to court seems like being in the worst of prisons. Twenty four of us were packed into a room the size of two and a half straw mats. We were out of breath. Because we couldn't sit down in the Pigeon's Place, we had to stay in this hot room. We waited all day without being exam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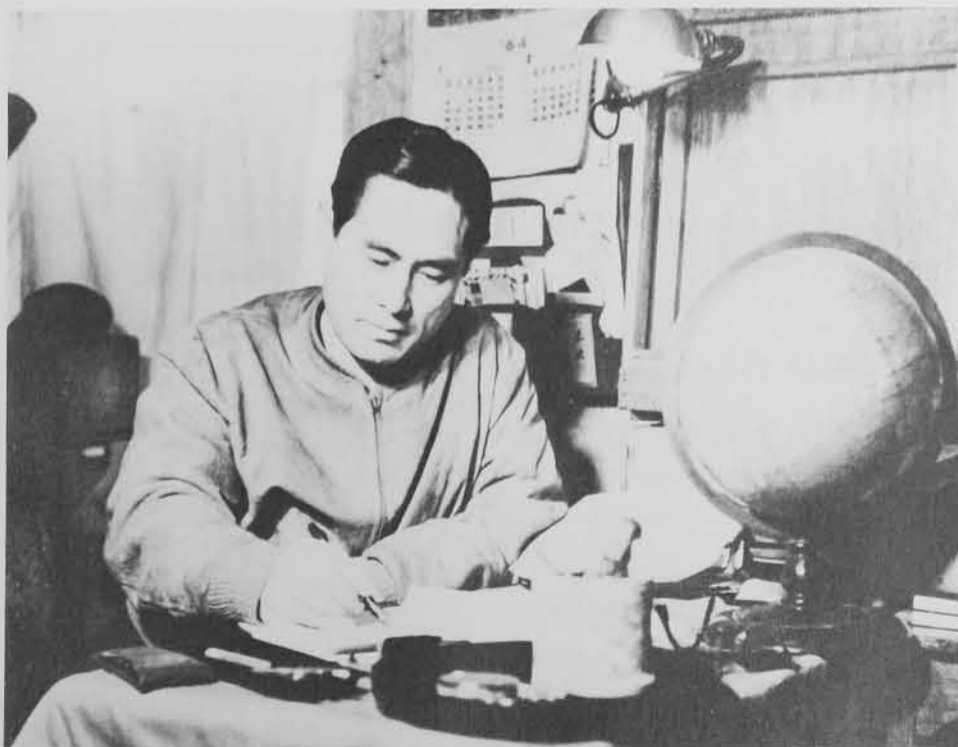
July 29, 1955

Today we were called early. All the family was waiting. They had come over. I could see Chae

Gun and Mahn Choon Cha seated waiting for us. I was glad to see them. Grandma was patting my back again. I signed the Principle which I wrote and expressed my feelings to the secretary. For four consecutive days, our family brought us a very light lunch. I was very impressed by such a tearful effort. But my stomach hurt and I felt sorry that I couldn't eat. Again, as on the first day, five of us were bound together with Teacher and were sent before Judge Kang. All family members were with us, too. I said to myself, "Bind us together forever." Son Yung Sohn touched me. I asked him to greet Teacher. Teacher told him, "Pray a lot." When we got into the car, they didn't let us sit next to the window. I couldn't understand how their minds could be so hard. I saw that some investigators were envious of our passionate love and our family's efforts. They are our strength and our shelter. Kwang Yul's brother-in-law came to visit us. I couldn't forget the impression of a lady waving her hands beside Kae Sun. Why couldn't I remember her name? This is my shortcoming. Mr. Choi came over, but I couldn't see him. Chung Su Choi came from Wan Ju, greeting me with tears. They were our family who wanted to share our persecution. So finally 22 days passed since our arrest, and we were indicted. The first trial was at 10a.m. at the local courtroom in Seoul, courtroom #4. The judge was Hak No Yoon. He was actually the chief judge. In the afternoon session, Judge Se Yong Kang gave the following sentence: "Teacher, 2 years, Hyo Won, 2 years, the other three members, 1 year each."

September 28, 1955

In the morning, the bamboo pen broke. Kyung Gyu Yoo came to visit us. He told us, "With Teacher you are all going to be released today." But we were still in a very uncertain mood. In the evening, Won Pil Kim, looking out through his window, cried out, "This evening?" "Yes," I answered with a loud voice, but I wasn't sure. Thirty minutes later, there was still no news, and we went to bed. After we fell asleep, we finally heard the rattling noise of a door being opened and somebody shouting, "380, come out with your belongings." Chang Whan Lee was helping us pack. I gave him underwear, shirts and socks. More than ten came out, but I couldn't see Teacher. When I went to his room, #29, he was already looking in my direction. I said, "Why only me?" Teacher said, "Go as quickly as possible; that's the way it is."



것이 보였다. 朴榮淑이가 나를 서글픈 표정으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막차가 떠나려 할 때 조카가 나타나며 『삼촌! 웬 일이에요』하고 대성 통곡을 한다. 차가 떠나니 주먹으로 창문을 쳤다. 그리운 얼굴이 있다. 나는 아무 일 없다고 큰 소리로 위로해 주었다.

비둘기장에서 종일 시달렸다. 선생님의 바른 팔목과 나의 왼쪽 팔목을 한 묶음으로 꼭 묶어서 검사실로 인도했다. 韓先生, 玉氏 어머니, 종복, 한용, 환채, 경규 등의 식구들이 열심히 따라 다닌다. 식구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둘러 앉아 먹었다. 淳實씨까지 합하여 여섯 사람을 한 끈으로 묶을 때 선생님께서 「영원히 떨어지지 못하게 하구나. 악착같이 싸워야지」하신 말씀 반갑고 기뻐다. 곧 이어서 나를 보시고 『효원이 힘들지』하신다. 『저희들 잘못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까지 고생시킵니다』했다. 30여명 죄수들과 같이 곧 西大門 형무소로 전부 호송됐다. 밤 12시가 훨씬 넘어 6 솨 9 감방 380번으로 들어갔다.

1955년 7월 15일 금요일

出廷의 날은 옥중생활중 옥중생활을 하는 날이다. 다다미 2장 반이나 되는 방에 24명이 질식할 것같은 가운데서 하루를 지나는 것이다. 그나마 소위 비둘기장에는 앉을 수가 없어서 이 더운 방으로 옮겨주기란 잔청한다. 오늘은 종일 검사의 취조도 없이 더위와 싸우며 하루를 보냈다.

1955년 7월 29일 금요일

오늘은 일찍 호출한다. 많은 식구들이 와서 고대한다. 在根씨와 함께 기운없이 앉아 있는 車만춘씨가 보인다. 반가운 얼굴이다. 할머니는 나의 등을 또 두드려 주신다. 내가 쓴 원리에 날인하고 서기에게 나의 소감을 더 말했다.

벌써 4 일간이나 계속하여 식구들이 도시락을 넣어 준다. 눈물어린 이 성의를 감사했다. 그러나 위장이 상하여 먹지 못하는 것이 참말 유감이었다.

다시 첫날과 같이 선생님을 비롯한 5인을 한 묶음에 묶어가지고 姜검사 앞으로 끌고 간다. 식구들이 쪽 늘어서서 보고 있다. 『영원히 한 묶음으로 묶어라』라고 속으로 외쳤다. 복도에서 孫宜鉉이가 옆을 꼭 찌른다. 신통하다. 나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라고 말했다. 기도 많이 하라고 선생님이 부탁하신다.

마지막 차에 오르니 창열에 앉지 못하게 한다. 그 신통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와같은 식구들의 열정을 몹시 부러워하는 형무관도 있었다. 오 그들은 우리의 힘이요 방패다.

光烈군 매부가 찾아온 것도 참말 기특하다. 양손을 들고 桂淳과 함께 손을 흔들던(전일) 여성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나는 왜 그녀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것도 다 나의 부덕인 것 같다.

최선생이 오셨다고 해서 기뻐 나왔더니 보이지 않았다. 멀리 원주에서 온 崔貞順씨, 그는 눈물로써 인사하였다. 모두 잊지 못할 고난을 같이한 사랑하는 식구들이다. 이렇듯 22일의 구류의 결과는 起訴로써 종말지었다.

제1심 첫 공판은 상호 10시 서울지법 제4호법정에서 尹學憲 판사 주심으로 개정. 다시 열린 하오 공판에서 담당 姜瑞龍검사는 다음과 같이 求刑했다.

선생님= 2년, 卞元= 2년
그밖의 전원(3명) 각 1년.

1955년 9월 28일 수요일

아침에 만들었던 죽(竹)펜이 부러져 버렸다. 유경규군이 면회를 왔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꼭 보석된다는 것을 전달했다. 오늘도 역시 초조한 하루를 보냈다.

저녁때 김원필씨가 문으로 내다보며 『오늘 저녁?』하고 외친다. 『이야!』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으나 자신이 없었다. 취침후 30분이 넘어도 아무소식이 없었다. 한잠을 자는중에 문 따는 소리가 들리더니 「380! 소지품 가지고 나와!」하고 부른다. 李창환씨가 짐을 싸 준다. 속옷과 와이셔츠 양말 썬뽕등을 남겨주고 나왔다.

10여명의 출감자 중에 선생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이 계신 29방으로 가니 벌써 내다보고 계신다. 『어째, 저 혼자 뿐입니까?』 『그런게지 어서가』라고 말씀하신다. 발길이 돌아서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다시 들어가면 좋을 심정이다. 옥문을 나서니 수경이가 보인다. 월성씨와 인사하니 동석씨가 손을 꼭 잡는다. 찢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왔다. 현실, 정숙, 玉奉, 황은자, 東喆모친 할머니, 金永雲, 光烈, 金방울씨등이 있었다.

1955년 10월 4일 화요일

선생님 입옥하신지 만 3개월되는 날이다. 내가 입옥한 날부터는 86일 되는 날이다. 김주화씨가 불러준 택시로 이목사 정숙 한충화와 같이 지방법원으로 갔다. 벌써 와 있는 식구들이 있었다. 순화가 따라오며 인사를 하다. 이상히 쾌활한 태도다. 추력으로 호송되어 왔는데 효영군과 효민이 앞으로 보였다. 원필씨도 같이 탔었다. 선생님은 다음 차로 하차하셨다. 10시 개정 되었다. 나는 상의를 벗고 벡타이를 풀고 선생님과 같은 모양을 취했다.

尹學憲판사의 주심으로 선생님은 무죄, 나는 5천환 벌금형, 그 외에는 8개월의 형으로 되었다. 귀로는 정장로의 인도로 영운 이목사님 김순화 김주화 경규군 등 같이 고려정에서 주식을 했다.

석반을 마치고 선생님 맞으러 갔다. 김순화 한충화 원주학생들과 함께.

9시40분 선생님이 출감하셨다. 귀로는 버스대절로 돌아왔다. 이대학생들이 나오지 않음이 유감이었다. 선생님의 기도에 이어 동산의 노래를 부르고 계속 말씀들을 듣다.

1955년 10월 7일 금요일

오늘은 청과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날이다. 짐을 추력에 실어보내고 있는 중 염태환군이 선생님 모시러왔다. 나는 처음으로 오게 되었다. 회당도 넓고 각 방도 쓸만하다. 문과 모든 것이 험어빠졌다. 2층에 자리를 하고 누웠다.

1955년 10월 10일 월요일

선생님 출옥 환영회를 가졌다. 오후 6시부터 2층에서 환영회는 열렸다. 먹을 것을 간소하게 준비했다. 뽕뽕과자와 사과 한개씩이다. 선생님께서 친히 자루를 끌고 다니시며 각자에게 돌려 주신다. 가장 값싸고도 풍부한 선물이었다. 유광렬씨의 시가 특히 많은 감명을 주었다. 최원복씨의 간곡한 詩情 선생님께서도 성려의 노래를 부르시며 그詩의 情을 설명하셨다. 나도 옥중에서 쓴 글 八節을 선물로 드렸다. ●



But I couldn't turn away. I shed tears. I wanted to go back in. When I came out of jail, I saw Soo Yung. When Wol Sun greeted me, Tong Suk held my hands very tightly. We returned to the church by jeep. There were Hyun Sil, Chung Sook, Ok Bong, Un Ja Hwang, Tong Chol's mother, Young Oon Kim, Kwang Yul, and Bang Ul Kim.

October 4, 1955

Exactly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Teacher was put into jail. Today was 86 days since I went to jail. By a taxi which Chu Ha Kim called, Rev. Chung Soo Lee, Chung Hwa Han and I went to the local court. Some of our family were already there. Sun Hwa greeted us. She looked so pleasant. We were sent by truck. Then I saw Hyo Yun and Hy Min. Won Pil was also in the same truck. Teacher was in the next vehicle. At 10:00 the court was opened. I took off my jacket, taking the same form as Teacher did. Chief Judge Hak No Yoon proclaimed that Teacher was innocent. I was fined 5,000 won. All the others were given eight months sentence. With Elder Chung leading, Young Oon, Rev. Lee, Soon Hwa Kim, Chu Hwa Kim and Kyung Kyu went to the Korea Restaurant and ate. After we had supper, we went to see Teacher, accompanied by Soon Ha Kim and Chung Hwa Hang, who are students from Wan Joo. At 9:40 Teacher came out. In order to

go home, we rented a bus. I felt depressed when I didn't see the Ewha students there. Right after Teacher's prayer, we all sang, "The Song of the Garden" and then we continued listening to his words.

October 7, 1955

Today is the day we move to the Chung-pa Dong church. While we were packing, Tae Hwan Yum came to escort Teacher to the new place. I came in first. The hall was much bigger and the room was very useful. The door and everything was very old. I prepared the bed and lay down.

October 10, 1955

We had a celebration for Teacher's release. After 6:00 in the afternoon, we began a welcome party upstairs. We prepared very simple food: bon bon pastries and some apples. Each person received one apple and some pastries. All by himself, Teacher carried a sack around and distributed food to each person. The gift was cheap and at the same time rich. Especially Kwang Yol Yoo's poetry was very impressive. A very passionate poem of Wong Bo Choi was recited. Teacher also sang some angels' songs and explained the passionate poem. I also read the eight phrases I wrote in prison.



Rev. Sun Myung Moon: The Man

人間 文鮮明 선생

朴 普 熙

(統一世界 1980년 2 월호)

원고 정탁을 받았을 때 왜 나는 이 제목 「인간 문선명 선생」을 두려워 했을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내 소견으로 도저히 다룰수 없는 엄청난 제목인 까닭이다.

지난 22년을 모시고 따라왔고 최근 10년 동안은 미국에서 이 어른을 모시고 전세계와 미국의 50개주를 누비면서 모든 말씀과 강연을 통역했으면서도 이 제목을 놓고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몰라 고민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22년을 모시고 따랐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야 겨우 문선명선생을 알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영어에 「Scratch the surface」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깊은 속을 아는 것은 고사하고 겨우 손을 댈뿐이라는 뜻이다. 22년간 문선명선생을 모시고 따르면서 겨우 나는 문선명선생의 인격에 「Scratch the surface」한 것처럼 그 겉을 만져본 격이라 하겠다.

산이 너무 높거나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산의 높이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또 측정하는 데는 자야 있어야 한다. 그 자는 재는 물건에 상당한 자라야 한다. 예를 들어 태평양의 물속을 재는데 30센티 자를 가지고서는 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마치 문선명 선생을 태평양 바다에다 비교한다면 이를 재보려하는 나는 30센티 자에 불과하다. 도저히 이 일은 불가능한 과업이다.

나는 이 어른을 모시면서 항상 역사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 하고 감탄해 마지않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지 2천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분의 인격을 다 알았다할 자가 없다고 본다.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분을 연구하여 박사학위의 논문을 썼지만, 아무도 그 인격을 다 설파한 사람은 없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나아가 마호멧트도 같은 대열에 속할 것이다.

오늘날 나는 문선명선생을 논하라면 이 기준에서 비교나 할까. 이 어른은 60세 당대에 한국 사람으로서 단군할아버지 이래 처음으로 세계 역사에 충격을 주었으며, 이 어른은 앞으로 백년 전년 수천년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역사에 남기는 그 충격이 보다 커질 것

by Bo Hi Pak
Tongil Segye, February 2, 1980

I was seized with panic when I was asked to contribute an article entitled, "Rev. Sun Myung Moon: the Man". Why? It was because the subject was, I strongly felt, beyond my powers.

I have been his follower for the last twenty-two years and in the last ten years I have served as his interpreter whenever he goes on a lecture or speaking tour across the fifty states of the U.S.A. and throughout the rest of the world. And yet I am completely at a loss as to where and how to begin this article about him. That's why I was panic stricken. Perhaps, I should say that although I have been his disciple for twenty-two years, I have just begun to understand him. Believe it or not, this is the truth.

As I've just said, I've just begun to "scratch the surface", a very apt phrase in English that accurately describes my situation. After twenty-two years, I have to say that I have a long way to go to really know him inside out.

If you stand at the foot of a very high mountain, you can't estimate its height. You would need an appropriate instrument to measure it. My attempt to describe Rev. Moon is like using a measuring stick that's only 30 cm. long to gauge the depth of the Pacific Ocean. Hence, you can readily see I have great temerity to undertake this almost impossible task.

While serving Rev. Moon in various capacities for so long, I have more than once wondered to myself whether there ever was or will be another human like him.

It is almost 2,000 years since Jesus Christ came upon this earth. However, no one, I hazard to guess, has completely understood Jesus the man, his total personality. So many scholars have written their Ph.D. dissertations on him and yet none of them has understood him inside out.

Probably, the same thing may be said of the Buddha, Confucius, Mencius, and Mohammed.

Speaking of Rev. Moon, maybe I should deal with him by the same yardstick that applies to these greatest of men. Korea was founded as a nation by Tan-Goon 5,000 years ago. In those 5,000 years, Rev. Moon is the first Korean to affect world history. There is no shadow of a doubt in my mind that in the next hundred, nay, thousands of years to come he'll continue to shake up the course of human history. His thought, his outlook on life as a whole, is already making a big difference in the lives of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of all races, in all cultures, throughout the world. I can confidently predict that even in his lifetime, he will transform millions of people. His impact on their lives is simply too mind-boggling to contemplate. Now it becomes doubly obvious, then, that it is beyond

은 명약관화하다. 이 분의 사상과 철학과 인생관은 벌써 우리 세계에 사는 오색인종의, 그 언어와 문화의 배경을 막론하고 수백만의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켰다. 이와같은 인격적 변화는 앞으로 이 어른께서 이땅위에 생존하시는 당대에 수천 수억의 인류에게 영향과 충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감히 예언할 수 있다.

이런 어른에 대하여 그 생활을 통해 보고 느낀 인격적인 모습을 쓰라고 하니 나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 이 분의 60회갑을 맞이하여 가까이 모신 어린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몇마디를 적으라고 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었고 또 그냥 단념하려고 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한국에 2일을 더 체류하게 되어 별수없이 이를 시도해 보려하는 것이다.

□ 선생님 주의는「하나님 해방주의」

문선명선생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집약해 본다면 『하나님 해방주의』라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그런데 그 해방이 하나님 해방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황한다. 인류의 해방, 어떤 억압에서의 해방, 빈곤에서의 해방, 질병에서의 해방, 식민지에서의 해방, 다 몇 있는 해방이라는 말이요 뜻이 통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해방이라는 것을 논하게 될 때는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어떤 철인도 어떤 종교가도 하나님 해방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며 책에 쓴 일도 없다. 그런데 문선명선생께서는 흔히 그의 설교 가운데 설교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해방을 부르짖고 나선다. 이것은 새로운 말이며 새로운 주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으로부터 해방하자는 것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인가?

문선명선생은 설교하기를 하나님을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하자! 마치 병석에서 신음하는 부모를 그 자식들이 병고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몸부림 치며 사시는 분이 문선명선생이시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고통을 논해본 적이 없다. 2천년의 기독교 역사도 하나님의 슬픔과 그분의 고통에 대하여 설교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완미한 분이요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축복을 내리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늘 알아왔다.

우리는 문선명선생에 대하여 이제까지 인류가 아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아신 분이라고 해야 옳겠다.

그래서 문선명선생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믿는다는 단어는 실증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 엄연한 사실을 놓고는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어왔다. 그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엄연한 사실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선명선생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선언하고 나선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볼 것이요 이

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했다. 문선명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한 그 예언의 실현이다.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보시는 분이 문선명선생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하나님의 얼굴과 인격을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심정속에 뛰어들어서 알고보니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기쁨과 존귀와 평화의 하나님이 아님을 아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창세 후 오늘날까지 이부 형용하기 어렵고 말할 수 없이 가슴아픈 사정속에서 신음하시며 고통을 겪으면서 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발견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견이며, 최초의 발견이다. 하나님을 알고보니 그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영광의 하나님도 아니셨다. 마치 자식을 잃고 그 죽은 자식을 얼싸안고 우시는 그 부모의 모습과 방불한 하나님을 문선명선생은 발견한 것이다.

부모되신 하나님께서 자식된 인간들이 서로 투쟁하여 상극하고 있는 실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비참한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다. 고통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듯 아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역사는 애통하는 역사였다. 영어에 「heart broken God」이라는 말이 있다 「심장이 깨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아무도 초상화로 묘사해보지 못했다. 역사에 처음으로 문선명 선생님이 아시어서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을 초상화로 그려보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온 세계에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드려야 한다는 운동을 제창하신 것이다 그 운동이 바로 문선명선생의 하나님 해방 운동인 것이다. 그 운동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통일교회의 운동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하시는가?

타락한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가지고 완성의 영역에 이끌어가는 길만이 하나님을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해방하는 길이다. 이 운동이 바로 문선명 선생의 가르침이요 통일교회의 운동인 것이다.

하나님을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해방해드린다는 말은 결국 이 땅위에 본연의 지상천국 이념을 실현해드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환희와 기쁨으로써 너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세계로 돌이켜 놓자는 것이다. 이 운동은 바로 문선명선생의 주의를 집약한 내용이며, 그 주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해방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해방주의를 부르짖고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역사 이래 처음으로 본연의 하나님을 철저히 아시는 분이 나타났기 때문이요, 그렇게 철저히 아시는 터 위에서만이 이와같은 주의와 운동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신 분

「하나님을 위해 철저히 미치신분」이라고 하면 표현이 점잖치 못한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이상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굳이 이 말을 쓴다. 성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큰 계명 가운데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있다. 뜻과 성품과 마음을 다한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All your mind, all your heart, all your soul」마음과 심정과 영혼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my powers to do justice in this article to Rev. Moon the man. Under the circumstances, I tried to decline to do this piece on him, yet as he is about to celebrate his 60th birthday it behooves me, as one of his closest followers, to accede to the request. In any case, by a miracle I can stay two days longer in Korea than I anticipated, and it is as good a time as any to do my best in writing about him.

Rev. Moon's "Ism": Liberate-God-ism

To put in a nutshell the teaching of Rev. Moon, it is this: Liberate God. We often use the expression, "liberation". But when we apply it to God, we find ourselves flustered. We readily understand expressions, such as liberation of all mankind, liberation from oppression, liberation from poverty or disease, liberation from colonialism. But if one says we "liberate" God, we don't know what is meant by it.

No philosopher or religious thinker has talked or written about "liberation of God." But very often, indeed, Rev. Moon concludes his sermons with his reference to "liberation of God." This must be a new expression, a new "ism," to put it mildly.

But what does it all mean? Liberating God from what? In whose captivity is God held?

Rev. Moon preaches that we should liberate God from His sorrow and suffering! Two thousand years of Christianity have nothing to say about His sorrow and suffering. God is omniscient and omnipotent, all perfect, seated comfortably in Heaven, bestowing His blessings now and then upon mankind.

We must say of Rev. Moon that he has gone far beyond the ordinary understanding of mankind in his concrete and practical yet transcendental knowledge of God.

Rev. Moon says: "I would rather know God, see Him and feel His presence, than to believe in Him." To believe may imply the denial of any possibility of proof. I don't say I *believe* that my parents gave birth to me. I don't use the expression "to believe" when I *know*.

Up to the present time, Christianity has believed in God. This could mean that it has not fully understood and known God as manifest reality. But Rev. Moon is the first person in human history to proclaim that he "knows" God. In I Corinthians 13:12:

For now we see through a glass,
darkly; but then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but then shall I know
even as also I am known.

Rev. Moon's knowledge of God is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in this biblical quote. Rev. Moon does not see God through a glass, darkly. He sees Him, knows Him, face to face.

Now Rev. Moon really knows God inside out, face to face; he knows His loving heart. As a result, he now knows that God does not dwell in joy and dignity and peace. He has discovered that God, indeed, is a suffering God. Since His creation, this suffering God has gone through all manner of hardship and heart-rending frustration.

This discovery is a great discovery in the history of mankind. God is not living in glory and joy, but is a suffering parent who has lost His children, who cries out in anguish over them. God sees that His children are fighting and killing one another, and His heart bleeds; hence, the history of God is one of sorrow and suffering. No one has ever before given an accurate portrait of Him

whose heart is broken, torn apart to shreds. Only Rev. Moon has succeeded in doing so.

And he publicized this portrait of the suffering God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He started campaigning for the liberation of God from this heart-rending situation. His is the Unification Movement that spreads like wildfire all over the world. Now then, how does he propose to liberate God? What constitutes true liberation?

The only road to liberation of God consists in this: to save fallen mankind from sin and to restore them to the state of perfection. This is the teaching of Rev. Moon and also the Unification Movement.

To say that one should liberate God from His suffering and sorrow is to say, in the final analysis, that we ought to realize His original plan for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so that when He looks at the earth here below, He would be filled with joy and happiness. This is the first of Rev. Moon's "ism's" and, in a word, it is "liberate-God-ism," to coin a new word.

The reason why Rev. Moon is the first to proclaim this truth in human history is that he also is the first to really know God, and only because he knows Him so well, can he proclaim his new truth or "ism" and start a new Movement.

Crazy for God's Love

"Crazy for God" may not sound genteel, yet I can find no better or more accurate expression. The Bible tells us, among the Commandments, "Love God with all your mind, all your heart, and all your soul."

Suppose we use this phrase in connection with love between man and woman. Suppose, then, that a man loves a woman with all his mind, all his heart, and all his soul. Can he, then, really do anything else? Suppose further that a woman loves a man likewise. Then we may aptly say that she is "crazy" about him.

For similar reasons, Rev. Moon too, not only knows God and feels His presence, but loves Him with all his mind, all his heart, and all his soul, and is said to be really crazy about Him to the highest degree, more than anyone else. He works with God, toils and sweats with Him, dedicates all his life and heart to Him.

Because Rev. Moon knows God to be a suffering and sorrowful God, he has become a person who cries for Him and comforts Him. Throughout human history, there can be no other human being who has shed more tears for God than Rev. Moon. Now and then we hear a story or anecdote. One has it that in the early stage of the Unification Church Rev. Moon spent so many countless hours, hour after hour, in ardent prayer. Once he knelt down to pray, he continued in his prayer for fourteen or at times seventeen hours at a stretch. Can we find anyone who cried on God's behalf like Rev. Moon? After a while, we are told, calluses developed on his knees and elbows.

Once he begins his prayer, his prayer may last one or two days. He forgets food and drink. He forgets sleep. Some of us who were close to him observed all this. No lesson was as momentous as this.

In recent years, he speaks through an interpreter to the American congregation; he begins at six in the morning and may end at five in the late afternoon, speaking for eleven hours. Then, after he finishes his sermon he turns around to ask someone if it is lunch time.

사랑해라 이다.

그러면 이 말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적용해 보자.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했다면, 또 영어에서의 표현처럼 마음과 심정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했다면 그는 그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까? 또 요즘 흔히 한 여성이 한 남성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그 여성은 그 남성을 위해서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문선명선생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수준에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신 분이대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다. 그 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고 피땀 흘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온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보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슬픔의 아버지요 고통의 노예가 된 하나님인 것일 안 까닭에 그 하나님의 슬픔을 역사에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그 분은 하나님의 해원이란 말을 즐겨 쓰신다. 아마도 이 역사상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문선명선생 이상 흘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많은 일화를 듣는다. 통일교회의 초창기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시간을 기도에서 기도로 끝나는 기도생활로 사셨다. 한번 무릎을 꿇고 앉으시면 열시간도 14시간도 때로는 17시간도 그저 그 하나님의 아픔을 놓고 통곡하셨다고 한다. 역사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울음을 울어줄 분이 또 있을까? 그는 너무도 열드려 기도하는 까닭에 무릎과 팔굽에는 굳은살이 박히었다.

기도가 시작되면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다. 식음을 잊으신다. 잠자는 것을 잊으신다. 이것은 문선명 선생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생님의 생활 원칙인 것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통역관을 써서 설교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침 6시에 설교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오후 다섯시에나 끝났으니 장장 11시간동안 설교를 하신 것이다. 그런데 설교를 끝내고 나서 이제 점심때쯤 됐나하고 말씀을 하시니 말이다.

이 어른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서 살아보라고 가르치시고 권고하신다. 세상은 어차피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돈, 이성, 명예, 학문보다 하나님을 위해 미쳐보라고 말하신다.

또 2년전에 우리는 연간 표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미치자」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위해 미치는 그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요 보람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쏟은 피와 땀의 가치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몸소 실천하시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앞서 서행하시는 분이 선생님이다.

한때 미국의 어떤 고위 정치인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었다. 물론 준비없이 대화로부터 시작된 이 자리에서 감동받은 이 미국의 정치인은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말이 「레버런 문은 하나님에게 미치신 분이구로, 어디를 쫓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나옵니다」고 평했다. 그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다. 선생님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차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역사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철두철미 미치신 분을 보았다.

□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신 분

세상 모든 일을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선명선생은 철두철미 그 생활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산다는 책임감에 넘친다.

하나님은 무형이시다. 그 무형의 하나님에게 유형의 몸을 제공하신다고 생각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은 하나님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대신한 것이요, 선생의 몸은 하나님의 몸을 대신한다고 생각한다.

문선명 선생은 종교지도자라고 해서 오직 종교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 세상 만사에 관심을 쏟으신다. 그 일이 경제의 일이건 정치의 일이건 산업의 일이건 문화의 일이건 관계치 않는다. 선생은 완전히 자연인이시다. 선생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을 염려하여 밤을 새우신다. 어디서 기근이 있다하면 그것을 염려하여 기도하신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다보시려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만사에 관심을 갖는 분이시다. 부모가 집안의 모든 일을 관여하시듯 세상 모든 일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가르치신다.

선생은 철두철미 이 세상은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신념에 차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나 깨나 세상에 되어지는 일에 고통을 느끼실뿐 아니라 책임과 아픔을 느끼신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에 책임지려 하신다. 이것은 세계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전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는 온세계에 되어지는 일에 책임을 지려하신다. 오늘날 민주세계가 공산주의에 침범을 받아 불난집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것중에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공산주의 문제라고 설파하신다. 공산주의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려는 주의이다. 만일 공산주의가 세계 제패를 완성한다면 그것은 곧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땅위에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또 그 하나님을 참말로 아는 사람일진대는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에 대해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느껴야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선생이신 것이다.

문선명선생은 그의 한 어깨로 세계 공산주의 문제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 공산주의는 문선명선생과 더불어 최후의 결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선명선생은 승공이념을 이 땅위에 퍼시었다. 이것은 역사에 처음으로 공산주의의 거짓됨과 그릇됨을 폭로하는 것이요, 공산주의가 궁극에 있어서 인류의 적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인 것을 폭로하는 주의이다.

이제 이 승공이념 앞에 공산주의는 역사에 처음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오직 공산주의를 이기는 참길은 진리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온세계에 들어내는 데서부터 출발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주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주의가 이길 때에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에서나 미국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공세를 거듭하여 세계를 3분의 1을 집어 삼

켰다. 그러나 한국이 낳으신 문선명선생이 주창하시는 승공이념은 비로소 공산주의를 수세로 몰고 간다. 나는 단언한다. 이제 우리 조국 한국에서 세계 공산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무기가 탄생할 것이다. 그것이 문선명선생 자신이요, 그것이 문선명선생의 사상인 것이다. 이 사상으로 무장하면 한 국가는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자유세계가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을 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공산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는 데까지 전진해야 할 것이다.

공산세계까지도 마지막에는 해방시켜줘야 할 책임을 느끼시는 분이 문선명 선생이시다. 공산주의의 심불이 되는 모스크바가 워싱턴 머뉴먼트 다음 대회 집회목표라고 하는 것은 선생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 수 밖에 없다고 보겠다. 어떻게 보면 선생은 온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고 나아가서는 이 땅위에 지상천국을 이룩하는 혁명군을 모집하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바로 그 혁명의 사상이, 이 지상천국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 혁명의 사상이 결국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겠다.

나는 선생을 모시고 영국에 간 일이 있다. 그때만 해도 거의 10여년전이다. 영국에 통일교회 교도들이 그리 많지 않은 때였다. 선생이 가신다고 하니까 영국의 신도 약 25명이 한방에 모여 앉아 선생을 환영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선생은 느닷없이 질문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자기 혼자 영국의 구원을 책임지겠습니까」하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셨다. 영국의 구원을 혼자 책임진다는 엄청난 과제앞에 그 누구도 손을 번쩍 들어 대답하는 청년이 없었다. 그러면 「다른 말을 물어보자」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몇명의 구세주를 필요로 하겠느냐」고 물으셨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선생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2천년전에 몇명의 메시아를 이 땅위에 보내셨지?」하고 물으셨다. 그때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라고 모두들 대답했다. 다시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 온세계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한분의 메시아를 필요로 했다. 그렇다면 이 조그만한 영국을 구원하는데 과연 메시아적 사명을 할 사람이 몇명이나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이 진실로 메시아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메시아의 인격을 본받아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몇명이나 필요하겠느냐」고 재차 물으시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다면 여기 모인 25명도 많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용기를 얻어 모두 손을 번쩍 드는 것이었다. 선생은 웃으면서 영국에는 25명의 메시아가 있으니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 영국을 구원하고 남는다는 결의를 가지고 나가라고 가르치셨던 것이다.

□ 진실로 소박하신 분

놀랍게도 「문선명선생님은 소박하고 자상하신 분」이시다.

한때 미국에서 야외집회가 있었다. 모처럼 야외에 나가서서 신도를 앞에 설교하신다고 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People」이라는 잡지사의 사진반과 기자들이 대거 출두해서 선생의 말씀과 그 장면을 기사화했다.

그때 그 기사의 서두에서 선생님께서 입으신 복장을 묘사하기를 영국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양복에다

He always teaches his followers to live for God, to become crazy for God. After all, they are bound to be crazy for something, whether it be money, the opposite sex, honor, learning, etc. Why not God, he says.

Two years ago, Rev. Moon proposed for our annual motto: "Let's be crazy for God." Life that is crazy for God is not only holy in itself but also worth living. Blood and sweat shed in the course of such a life can never be washed away. And Rev. Moon lives this kind of life more intensely than anyone else.

Once a high U.S. government official came to hear Rev. Moon speak. Rev. Moon was not prepared and he and the visitor casually started in a conversation. After it was over, the official was duly impressed and concluded: "Rev. Moon is crazy for God. No matter what he talks about, he somehow manages to get back to talk about God." This is a very interesting observation. Rev. Moon's being is filled with God's words. I've seen at least one person who is truly crazy for God.

He Lives on God's Behalf

Rev. Moon may be said to be a person who is willing to shoulder all the responsibilities in the world.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dominates his daily life, so that it can be said he represents God in every conceivable way.

God is formless. Rev. Moon wants to dedicate his whole being to the formless God. That's why his eyes, ears, and mouth represent those of God; his body represents that of God Himself.

As religious leader, Rev. Moon takes interest even in things that are not religious. He seems interested in almost everything. It matters little to him whether it is economic, industrial, political, or cultural. He is a completely natural person. If, for instance, an earthquake brings disaster in a remote corner of the earth, he stays up all night, praying for the victims. If famine strikes somewhere, he does the same. He tries to understand how, in these dire situations, God will think or react to these people and events.

He teaches that God is our Father. So He takes interest in everything that affects all His children. Parents are concerned over everything in their household; God is the same, concerned over all His creatures and everything in His creation. Hence, he teaches: "This God is our Father. If we are to become His true children, we should also be concerned over everything an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all things."

Rev. Moon'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mission is overwhelming. He believes that without him there may be no one who can save this world. That is why, whether he is awake or asleep, he suffers for and with his fellow men and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all that happens to them.

Once he comes to the U.S.A. he wants to shoulder the responsibility for it and its affairs. This goes for every other country, too. He sends missionaries to every nation and through them tries to take the responsibility. He knows only too well that the free democratic nations are invaded by communist ideology and they are like a house on fire. No wonder he asserts that one of the most urgent problems of this world is that of combatting communism. Communism is an ideology that seeks to chase away God from this earth. If communism achieved victory all over the world, the world would be godless, God having been kicked out unceremoniously.

If there be one who constantly thinks about

how best to eliminate communist evil, it must be God. So if someone truly knows God and His heart, he must also feel the same way about communism as God does. This someone is none other than Rev. Moon.

Rev. Moon carries on his shoulders the burden of combatting the plague of communism. Now Rev. Moon and communism are engaged in a final battle. Communism has no other choice but to confront him. For this reason, Rev. Moon spread his teaching concerning "Victory Over Communism" throughout the world. He thus exposed the deception and unrighteousness of communism. Besides he makes it clear to the whole world that communism is the enemy not only of mankind but of God as well.

For the first time communism is on the defensive because of the fact that Rev. Moon has mounted his attack against it. There is only one sure way to eradicate the evil of communism, and that is to speak the Truth. This begins with the assertion that God exists. An ideology that denies His existence must crumble when another that believes in His existence prevails.

Now, for the same reason, communism has also been put on the defensive in Japan and the U.S.A. Up to now, communism has swallowed up one-third of the world through its effective but misleading propaganda offensive in the last sixty years. But the anti-communism of Rev. Moon has been pushing it into a narrow corner. I firmly believe this: that a new weapon is being forged in Korea to effectively combat and win victory over communism. This weapon is Rev. Moon and his new ideology. Armed with these, a country will be safe from communism. Nay, not just a country but the whole free world. Then the free world will take one step further and liberate the communist world.

Rev. Moon feels that it is his responsibility to liberate the communist world. It is then natural that he wants to stage the next big rally (similar to the one at the Washington Monument) in Moscow, the symbol of the communist world. It would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n one sense Rev. Moon wants to eradicate communism from the face of the earth and build, through his "revolutionary" army, the Kingdom of Heaven. This "revolutionary" ideology is the ideology of the Messiah.

I once accompanied Rev. Moon to England. It was about ten years ago. There were not many English family members. When he arrived, about twenty-five members were there to welcome him in a large room. Rev. Moon asked them a question: "Is there anyone among you who can confidently claim that he or she will save England single-handedly? If you think you are the one, raise your hand!" The task was considered too stupendous, so that none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hen," said Rev. Moon, "let me ask another question." "How many saviors do you think God needs to save this world?" Everyone kept silent. No answer. So he went on to ask, "Two thousand years ago, how many saviors did God send on this earth?" Then all answered in unison, "Only one, Jesus Christ." Again he said: "Now then, God needed only one savior to save all mankind. So this small country—England—how many saviors does he need? If you are armed with the ideology of the Messiah, possess the character of a Messiah, and carry out the mission of a Messiah, how many of you are needed to save England?" He added parenthetically that if they,

보석으로 장식된 수만불짜리 시계를 차시고, 그 구두는 역시 미국제가 아닌 영국에서 특별 주문한 수백불짜리 구두이며 하는 식으로 와이셔츠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체 의복을 황금으로 뒤집어 쓴 것 같이 묘사해서 기사를 쓴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과는 달리 그날 선생님께서 입으신 양복은 한국의 어느 양복점에서 만든 허름한 라사지의 양복이요, 그 시계는 그분의 아드님으로부터 생신 선물로 받은 40불짜리 시계며, 구두는 미국에서 산 싸구려 40불짜리 신발을 신고 계셨던 것이다.

이와같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선생님의 생활은 참 소박하고 간결한 생활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분을 모셔오면서 한번도 이분께서 음식을 놓고 타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음식이라면 무엇이든지 맛있게 드신다. 또 절대로 호화식이나 식도락을 싫어하신다.

특히 많은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미국의 대중음식점으로 알려진 소위「맥도널드」라고 하는 햄버거점에 선생님 내외분께서 자주 출입하신다. 「맥도널드」라고 하는 음식점은 아이들이나 서민들이 들어가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 연쇄점인데 거기서 파는 햄버거는 대체로 1불 미만이고 조그마한 햄버거는 40~50센트이다.

선생은 언제든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드시는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한 나머지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았다.

미국 50개주를 누비면서 강연을 하실 때는 항상 강연이 끝나면 수고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간소한 햄버거를 같이 드시며 그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곤 한다. 선생이 이러한 소박한 생활은 미국 젊은 신도들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선생께서 1974년도에 50개주의 강연을 40일 동안에 누비면서 순방하실 때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허름한 차를 타시고 밤낮없이 여행을 하였는데 그때 내가 모시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식사를 너무 거칠게 하시는 것이었다.

항상 거리에 차를 세우고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빵봉지 하나에다 오이 김치 한통과 고기 내장으로 만든 스프 한봉지를 사가지고 그것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40일 간을 순방하시었다. 그 분이 미국에서 입으시는 옷은 기성복집에 가서 바지 하나에 9불, 한벌을 사도 30~40불이면 해결되는 그런 옷을 사서 입으신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한 공금에 대하여 그렇게 철저하실 수가 없다.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의 돈을 함부로 한푼이라도 썼다가는 하늘앞에 도둑이 되는줄 알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시며 그 분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시는 어른이시다. 또 이 분은 남을 위해서 돈많이 쓰기에다 세계 제일의 기록을 세우셨다고 보겠다. 또 자기를 위해서는 돈안쓰기로 세계 제일의 기록을 세우시는 분이 이 문선명선생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 제자들이 항상 감명받는 일화가 있다. 선생님께서 이북 공산당의 감옥에서 고생하실때 그곳에서 주는 밥덩이 가지고는 도저히 연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선생께서는 남들이 배고파 죽어가는 그 관에 자기몫으로 받은 거치른 보리밥 한덩어리를, 그것을 다 먹어도 양이 차지 않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갈라서 동료들에게 주고 자신은 그 절반을 드셨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의 입에서 밥을 꺼내먹는 일도 있었다고 한

다. 그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생께서는 사랑을 베풀셨고, 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 그러한 인생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통일교회 신도들이 쓰는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 무한히 크고 섬세하신 분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벗어난다. 선생은 완전히 세계인이시다. 선생을 만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느끼는 것은 이 분이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웅대하고도 엄청난 꿈과 사상과 철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분은 제자들과 같이 앉으면 세계를 논하고 천주(天宙)를 논한다. 이 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영적인 세계를 철저히 설교하신다.

결국 선생은 이 땅위에서 모든 악과 죄악을 무찌르는 싸움을 시작하시기 전에 벌써 그 싸움을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이긴 것이다. 그 세계를 평정해 놓고 그 세계의 통일을 이루고 나서 결국 잔여 병력을 소탕하는 것과 같은 싸움이 지상의 싸움이라고 설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전략을 논하시고 천주의 세계를 설교하시는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느끼게 하시는 것이다. 22년간 따르면서 아무리 들어봐도 새롭고 아무리 통역을 해봐도 항상 새로운 말씀이시다.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예지가 있고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소망이 있다. 그몸은 하나님의 말씀덩어리이시기에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의 주장을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선생은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허무맹랑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확한 실천이 뒷받침된다. 섬세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나는 또 이렇게 크신 어른이 어찌면 그렇게 섬세하시고 작은 일에 까지 관심을 기울이는가하는 것에 놀라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선생께서 옷입는 것을 많이 보아왔지만 단추하나 흐트러 놓는 때가 없다. 넥타이를 매더라도 언제나 반듯하게 핀을 꽂아 정확하게 매신다. 선생께서 항상 바쁜 일과를 보내시면서도 옷깃 하나 흐트러짐 없는 섬세한 면을 보여주신다.

나는 또 한가지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선생께서 1950년대의 한국동란 이전 이북 홍남감옥에서 근3년간을 공산당 밑에서 형을 치르던 세상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절박한 가운데서도 한올 두올 주워모은 실을 가지고 젓가락집을 손으로 찼다고 하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잘 짜여졌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을 일찌기 선생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 듣고 깜짝 놀란적이 있다. 선생께서는 아무리 긴박한 가운데서도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솜씨 또한 놀랍다고 하겠다. 글씨도 잘 쓰실 뿐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리신다. 미국에서는 젊은 신학생들에게 그물을 짜는 법도 가르치시고 고기잡는 일도 가르치셨다. 그물짜는 선생님의 솜씨를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다. 선생님은 여행을 하실 때 조그마한 가방을 가지신다. 그 가방속에서 조그마한 책을 꺼낼때 난 그 가방속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가방속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어야 할 곳에 딱딱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생님의 평소 생활 모습이 언제나 흐트러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하는

twenty-five English family members, understood his meaning, there were more than enough in the room. Thereupon, all of them got the message and without a moment's hesitation raised their hands. Rev. Moon looking over them, said quickly: "England has twenty-five Messiahs—aren't there simply too many?" In other words, he taught them that if any of them meant to dedicate his or her heart to God's Will, then he or she could be more than enough to save England single-handedly.

A Person of Simple Heart

It comes as a surprise when one is told that Rev. Moon is a person of simple heart and of humane love.

On one occasion, there was going to be an open-air gathering in the U.S.A. When the news got out, the American magazine, *People*, sent its photographers and reporters to cover Rev. Moon's outdoor preaching to his followers.

The magazine later printed a story in which the reporter described Rev. Moon's outfit in glowing but inaccurate terms: His suit was specially custom made in England; his watch, studded with diamonds and other precious stones, was worth \$30,000-\$40,000; his shoes, worth several hundred dollars, too, were not U.S. made but custom made just for him in England; his expensive shirt was custom made, etc., etc. In other words, Rev. Moon was supposedly covered from the top of his head to the tip of his toes with gold and jewels and other fanciful and fantastic things.

In fact, however, he then wore an inexpensive Korean-made suit, his watch was only a birthday gift, about \$40, from his own son, and his shoes, U.S. made, were only \$40.

Many people don't realize what simple taste Rev. Moon has in his daily life. Contrary to the newspaper account, he leads an utterly simple life. I have been with him for so long and yet I still have never heard him complain about, say, food even once. He relishes his food, even of coarse kind. He doesn't care much about gourmet food.

One of the reasons so many Americans respect and adore him is that he and Mrs. Moon often eat at very inexpensive places such as McDonald's. McDonald's is a chain of fast food restaurants designed to please children and common folks. You can eat your meal for a dollar or so, and a small Mac will cost you anywhere between 40¢ and 50¢.

He often takes his children there and enjoys eating with them, which looks so natural that newspaper reporters who happen to be there swarm around him to take pictures of him and his family.

When he was on lecture tours throughout the fifty states, he made a point of taking his hard-working followers, most of them Americans, to McDonald's for hamburgers and milk shakes. He chatted with them at the same table and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ir hard work. This simple lifestyle of Rev. Moon leaves an indelible impression on American members, who try to emulate him in this regard.

In 1974 he visited each of the fifty states in forty days on a speaking tour. He rode in a beat-up Plymouth, day and night, and one thing that really worried me was that he ate only coarse food.

He often stopped the car in front of a supermarket and bought a loaf of bread, a jar of cucumber pickles, and a bowl of soup made of cow intestines; that was his meal day after day for

forty days. Even when he shops for his own clothes, he picks up a pair of pants for \$9, and the whole suit costs him \$30-\$40. He is very careful and strict with "public" funds. He teaches his followers that Heaven's money may not be mis-spent without one becoming a thief before Heaven.

He practices what he teaches and preaches. But he may hold the world's record in spending money generously on other people. And I may add that when it comes to spending money on himself, he is downright stingy. He must hold the world's record in this respect also.

One anecdote deeply moves our family members. When Rev. Moon was imprisoned in North Korea, they gave the prisoners so little food that he knew no one was supposed to survive on that meager diet. He realized that only God's love and grace could save his and other prisoners' lives, so he decided, living among those hungry wolves, to give away half of his small barley-ball to another prisoner. Even the whole barley-ball would not have allayed a small child's hunger. Hunger was so real and exigent that some prisoners wrenched the masticated food out of the mouth of a dying prisoner. Under these extreme conditions, he gave them love. He did not pray for more food but delighted only in God's words. Some say that because of Rev. Moon's unselfish, selfless, and loving way of life during this period, the Unification Church members of today receive from Heaven material bounty and other blessings.

A Man of Big Heart that Pays Attention to Details

Rev. Moon is a Korean but he transcends his ethnic identity. He is a cosmopolitan, a citizen of the world. Anyone who comes into contact with him and listens to him is struck with amazement about how one person can be so big and great in his heart, dreams, ideals, etc.

When he sits down with his followers, he talks about the world, the very axis of Heaven and earth. He talks not only about the physical world but also about the invisible yet real spirit world.

In the final analysis, even before he fights against the evils and sins of this world, he has already won his victory in the spirit world. He leaves us with the impression that his grand strategy covers Heaven and earth, and is too vast for our minds to imagine. After twenty-two years, I still hear new things in the speeches and statements that I interpret for him. In them I find inexhaustible truth, wisdom, joy, and hope. Since his heart and mind are overflowing with God's words, he cannot help but share them with others whenever he speaks.

Many people expound their philosophies or ideologies yet utterly fail to put them into practice. But as for Rev. Moon, he backs up his grand philosophy with very intense and faithful practice, even in the smallest detail. He always makes a very careful and detailed plan before he acts, and more than once I have been amazed at how he can pay attention to such minute details.

For example, I have watched him dress on many occasions, but he has never left a single button unfastened. He carefully knots his necktie and sticks a pin exactly at the right spot. His dressing habits demonstrate his careful and detailed mental attitude.

I once heard this incredible anecdote. Before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he had already



것이다.

선생은 자리에 앉으시면 언제나 몸을 곧게 가지시고 흐트러짐이 없다.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 섬세함을 보여주시는 선생의 일면일면은 그분의 내적인 섬세함을 또한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 목표는 최고의 정상에 둔다

『무엇이든 최고의 정상을 목표로하시는 분』이다. 선생께서 유년시절을 보내신 일화에 대해 그분의 가까운 친척을 통해 들을 때가 많다. 또 선생 자신도 그의 유년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가끔 말씀해주시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분의 어릴 때나 이제 환갑을 맞으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항상 그분의 생활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분은 무엇이든지 최고의 정상을 정복하지 않고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하는 것이다. 이분은 일상 생활에서 역사를 의식하신다. 이분은 일상 생활을 통하여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무엇을 항상 생각하신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이어 받아야 할 전통을 스스로 세우신다. 그 전통은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기록을 깨쳐가라는 것이다. 한때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왔다간 사람들 중에 가장 잠을 적게 자고 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누구보다도 잠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한 신기록을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문선명선생과 같이 잠을 안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한 사람은 역사에 없을 것이다. 그분이 12시 이전에 침실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옛 청과

동 초대교회에서 모시는 동안에도 밤을 지새워 한시 두시 세시까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이 일상 생활이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 일찍 다섯시가 되기 전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신다. 미국에 가서도 이분은 주무시는 것을 잊으신다. 의자에 앉은채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음날 일로 넘어가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선생님 보다 10세가 아래인 이 필자도 도저히 선생님 앞에서 나는 젊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도저히 선생의 기록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러하신 선생을 모시는 보좌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과 소원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잠이 모자라 잠을 실컷자는 것이라 하겠다.

역사에 이분처럼 많은 말씀을 하신 사람이 또 있을까! 또 그 말씀이 철두철미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하나님을 중심한 말씀이고 보니 이것 또한 신기록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선생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통일교회가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형극의 길이지만 감사하고 갈 수 있어야한다」고 설교하시고 우리보다 더 고통과 슬픔을 참고 나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이만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설교하시면서 나는 지칠 수 없고 안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보람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가르치신다.

최근 몇해동안은 보스톤 근해 바다에 나가서서 「투너」를 낚으신다. 물론 선생은 직업적인 어부는 아니시다. 그런데 몇년간을 거듭하시는 가운데 선생은 이 지방의 유명한 투너잡이의 스승이 되셨다. 선생의 배는 아침 일찍 출항했다가 밤에 늦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 배가 돌아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없다. 여름에는 수백척의 투너잡이 배들이 모여든다. 이 배들은 「Sports fishing」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계의 부호들이 호화관 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많이 잡은 사람에게는 상패를 준다. 그런데 문선명 선생께서 이곳에 등장한 이후로는 그 누구도, 30년의 역사를 가진 사람도 선생의 기록을 따르는 자가 없다. 그리고 1979년에는 이 바다에서 잡힌 이 때까지의 투너중에서 가장 큰 투너를 낚으신 것으로서 또 한번 신기록을 세우셨다. 드디어 천파운드가 넘는 투너를 낚으신 것이다. 이제 이 지방에서 문선명 선생의 투너잡이는 신화적인 얘기가 되었다. 그래서 선생께서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투너가 몰려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New Hope」라고 하는 선생의 배가 출범을 하면 그 뒤에는 여러 배들이 뒤따라 온다.

선생의 배가 정박하면 그 근처에는 닻을 내리고 고기를 잡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께서 고기를 낚아서 풀기 시작하면 모든 배에서는 어떻게 하시나를 배우기 위해서 쌍안경을 가지고 쳐다본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선생의 기록을 따라갈 수 없으니 최근에 와서는 결국 문선명선생은 바다의 고기까지도 세뇌해서 명령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 기적은 만드는 것이다. 선생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동시에 철두철미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을 잊지않는 분이시다. 그야말로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 사람의 책임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그 유명한 말을 철두철미 실천하신다.

spent almost three years in the hellish Hung-nam prison in North Korea. Even there, under the most trying circumstances, he saved a thread here and there to sew a small bag to put his chopsticks in. Some of his followers who had been in contact with him now and then told me that it was very well-made. He has an amazing gift in so many different areas. He is a born calligrapher as well as a good painter. He teaches American seminarians at his Unification Theological Seminary how to mend fishing nets and catch fish in the Hudson River. None among them could compare with him in dextrous skills in mending or casting fishing nets. When he goes on a trip, he carries with him a small bag. Once he opened it to take out a book. I took a quick look at the opened bag, and what struck me most was that everything was so neatly put in its place. His life style shows even in packing his travelling bag.

Rev. Moon always sits straight, never letting his body tilt or twist. This is another indication that in every area of life, he never lets things go awry. His neatness without is but an external manifestation of his neatness within.

Rev. Moon Always Aims High

Rev. Moon always aims at the highest peak. I heard several anecdotes about his childhood that illustrate this, both from Rev. Moon himself and from his close relatives. In his childhood or at the age of sixty today, he impresses us as being the one who never gives up until he reaches the top, so to speak. He is always keenly aware of the flow of human history in his daily life. He thinks of what legacy he should leave to the future generations. He establishes a tradition that will continue in the days to come. This tradition is to strive to break all records, that is, to improve, to overcome, and to go beyond all that has been done before. He once casually remarked, "I want to be someone who sleeps least among all those who have been born on this earth." This implies that he tries to get along with less sleep than anyone in history in order to fulfill God's Will better than anyone else. I am sure that no one in history has worked harder for God's Will. I have never seen him go to bed before midnight. In the early days of the Church at Chung Pa Dong, Seoul, he stayed up till two or three in the morning, speaking to his followers. And when and if he sleeps at all, he gets up before 5:00 a.m., always earlier than anyone else. Since he came to America, he seems to have forgotten about his sleep. Many times he takes a cat nap in the armchair and goes right back to start his new day.

I am ten years younger than Rev. Moon but I cannot possibly claim to be "younger" than he is. I can't keep up with him. So, the great difficulty in serving this man is lack of sleep. If someone asks me what I want most of all, I must answer: I want to sleep to my heart's content.

Who in the history of mankind has spoken or preached more than Rev. Moon? His words, from beginning to end, are always God-centered. No one, I am sure, can beat his record in this regard. Rev. Moon always harps on this, that the road that our Church must walk is a difficult, torturing, tortuous and tear-filled road, but we must be grateful to God for having the opportunity to go this way. Thus he endures so much hardship and suffering of which he never speaks, but rather emphasizes *God's* love, suffering and sorrow. Rev. Moon often asks this question: If we know that God is also suffering, then how can we

complain? He tells us that God is now seeking for people like us. He cannot help but walk this difficult road, and can ill afford to get tired. He teaches us that this road is worth all of our effort, for it is the way that leads to the fulfillment of God's Will.

For the last few years he has engaged in tuna fishing near Boston. Of course, he is no fisherman by trade. But in a few years he has emerged as a highly respected "instructor" in tuna fishing. His boat goes out before dawn and returns late at night, so that no one seems to be able to see it. Several hundred boats gather in the area for the summer; many of them are millionaires who happen to enjoy "sports fishing."

Anyone who catches the largest number of tunas for the season wins a prize. But since he came on the scene, Rev. Moon has beaten everyone, including those sports fishermen with thirty years experience. In 1979 he broke the old record in catching the largest tuna ever caught in this area. It was over 1,000 pounds. Rev. Moon has become a legend among fishermen. So they now believe that wherever he happens to be fishing, that is where the tunas gather around. Consequently, when his boat *New Hope* is on the open sea, there are other boats trailing it.

As his boat puts down the anchor to begin fishing, other boats follow suit in the same spot. And when one is caught, other fishermen at once take out their binoculars to observe his technique of handling the giant fish. In recent years, these fishermen, who can't catch up with him, are finally convinced that Rev. Moon can brainwash tunas.

But the world has no miracles. You have got to "make" them. Rev. Moon believes in the history of God's dispensation, and he knows man's portion of responsibility to fulfill that dispensation. He believes in and literally puts into practice an Oriental maxim: "Do all that is humanly possible, and await the command of Heaven."

A Possessor of Strong Will and Indomitable Spirit

Once he starts something, Rev. Moon never lets up until he finishes it. In America, he has acquired the reputation of being a "born fighter." This implies that as a revolutionary he is born to win. In my opinion, God has sent him as one who will subjugate Satan. But one thing that he hates most is to hear it said that since he is a special person he doesn't get tired. This would be equivalent to saying that since Jesus was a special person he did not feel the excruciating pain on the cross.

In 1965, Rev. Moon had to go through a physical examination in order to apply for visas to various countries so that he could meet and talk with family members all over the world. The doctor who took his x-ray was taken by surprise and asked him whether he had ever had pleurisy. Rev. Moon was surprised too and asked why. The doctor replied that the x-ray clearly revealed the vestige of an old pleurisy. Rev. Moon had been so absorbed in his mission to carry out God's Will that he had not been aware of this malady. It seems that the disease "surrendered" before the iron will and the fighting spirit of Rev. Moon. This also shows us something about his life.

No wonder his message—somewhat marred in the process of an interpreter's translation—is bound to reach his American members. His strong will and fighting spirit can't be lost in the transla-

□ 강인한 투지와 의지의 소유자

『한번 손을 대시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다. 미국에서 흔히 선생의 인격을 평하여 「Born Fighter」라 한다. 그 뜻은 투쟁가로서 혁명가로서 태어난 분이라는 것이다. 본인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승리하기 위하여 한분을 특별히 내셨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강인한 투지와 의지력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선생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히셨어도 아픔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신다.

선생께서 1965년 처음으로 각 나라의 신도들을 순방하시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하신 일이 있다. 그때 흉곽 X-Ray를 찍어본 의사는 깜짝놀라서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께서는 언제 늑막염을 앓으신 일이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X-Ray 사진에 나타난 선생의 흉곽에는 옛날에 늑막염을 앓으신 흔적이 지금도 크게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선생은 너무도 뜻에 대한 사명에 골몰하시는 동안에 병마가 그 몸을 엄습한 것을 감지할 여유도 없으셨다. 드디어 그 병마는 선생의 강인한 정신력과 철석같은 의지 앞에 굴복을 한 것이었다. 이것이 선생의 생활 모습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록 서투른 통역관을 써서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 하더라도 이와같이 강인한 정신력과 그 의지는 서양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 약한 사람도 한번 선생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용기를 얻어 새로운 신념과 각오로서 다짐하고 나서는 것이다. 선생의 말씀에서는 부활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기운을 잃고 죽어가던 생명들도 한번 그분앞에 나와서 한두시간 말씀을 듣고 나면 완전히 회춘한 새싹 모양 그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언젠가 신학교에 가서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통역관이던 필자가 옆에 없었으니까 내 입이 어디 갔느냐고 고함치며 웃으시는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선생의 입이라고 별명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그 이상 영광된 별명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 반문하는 것이다. 선생의 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입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선생의 입이 『나』라면 이는 사명적인 면에서 영광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는 선생께서 하시게 되는 말씀을 통역하지 않는다. 말씀 이면에 숨어 있는 그분의 정신을 통역하는 것이요, 그분의 신념을 통역하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을 통역하는 것이요, 그분의 심정을 통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능한 유엔총회의 통역관이라도 선생의 통역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선생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다만 그분의 말씀 통역에 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절절히 흐르는 하늘 대한 충성과 효성, 그리고 혁명가적인 투지 「Born Fighter」의 정신, 병마도 불사르고 나가는 강인한 신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신의 통역은 곧 영적인 통역이요, 인격의 통역이요 신념의 통역인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먼저 감동받는 사람은 바로 통역관인 자신이다.

□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신다

마지막으로 결론 맺고 싶은 것은 문선명 선생은 조국 대한민국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애국자라는 것이다. 작년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한국 지역사회개발연구원의 초청에 의해 한국의 저명인사들 앞에서 강연하실 때 그 제목을 「조국이여 빛나라!」로 하였다. 온 세계의 해방과 인류의 참 행복을 위해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시다가도 조국에 돌아오면 「조국이여 빛나라!」 항상 선생의 심금속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잊으시는 날이 없으시다. 그리고 선생은 이 조국을 영원히 세계인들이 선망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시기에 분주하시다. 결국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사람들의 신앙의 조국으로 만드시려는 것이다. 앞으로 오색인종 세계 1백20개국의 국민들은 한국을 신앙의 조국으로서 순례할 때가 올 것이다. 불원한 장래에 이 날이 올 것이다. 세계 인류가 한국에서 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뻐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조국은 그동안 오랜 역사를 통하여 자랑스러운 역사라기 보다는 눈물과 비애와 치욕의 역사를 겪어왔다. 지난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바로 그것이다. 또 오늘날 공산주의에 의하여 1천7백만의 이북의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같은 한국의 역사는 비애의 역사요 고난의 역사이다. 이 고난과 비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결심하신 분이 문선명 선생이시다. 이는 우리 조국강토 한반도가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가운데 잊혀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인류 해방사에 기여하는 새 민족으로서 등장하는 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다. 이 이상 더 애국하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최근에 나는 어떤 신문사 사장을 만나서 대담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들었다. 그는 최근 한국개항 백년사를 특집으로 다루기 위해서 한국의 개항 백년사를 연구하다보니, 그 개항 백년의 역사가 치욕의 역사요 부끄러움의 역사요, 몇몇치 못한 역사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10년 기간에 드디어 통일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념의 단체가 탄생하여 새로운 운동으로서 세계 만민앞에 한민족의 기개와 한민족의 우수성과 한민족의 박애정신을 높이 외침으로써 세계의 존경과 추앙을 모으게 하였으니 우리 민족 개항 백년사에 있어서 체면이 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생께서 하신 그 일은 다만 한국 개항 백년사에 체면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다. 단군 할아버지 이래 처음으로 세계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 이념과 한 지도자로 인하여 영원히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해방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해방자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위에 계속되는 한 영원할 것이다.

「조국이여 빛나라!」 이는 선생의 염원이시다. 그리고 조국을 빛나게 만드는 역사는 우리 당대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영원히 자손 만대에 이어져 나갈 것이다.

『인간 문선명 선생』 이 분은 대한민국이 산출한 최고의 보물이며, 이 분의 이름은 인류역사의 새 여명이다. 『인간 문선명 선생』 이 분은 하나님의 해방자이다. ●



tion. That's why a man of little faith, once he listens to Rev. Moon, suddenly summons his courage and decides to have strong faith and determination. For he feels the power of resurrection in Rev. Moon's words. I've seen many who had lost hope for themselves come and receive hope and revitalization from his words.

Once he went to speak to students at the Unification Theological Seminary, Barrytown, New York. I was to interpret for him but I was not there when he needed me. So he loudly asked, "Where is my mouth?" and broke into a grin. Afterwards, I got the nickname of Rev. Moon's mouth. Whenever I am called by this nickname, I pinch myself and wonder whether there could be anything more glorious. His real mouth is the mouth that speaks God's word. If I am supposed to be the "mouth" that interprets for Rev. Moon, am I not honored with a glorious, historic mission?

But I don't just translate his words. I try my best to bring out in my translation what is between the lines: his spirit, his faith, his love, and his heart. That's why I pride myself on the fact that the best of U.N. interpreters cannot interpret for him as effectively as I do. For his words cannot be literally translated to communicate effectively their true message. An interpretation of his overwhelming sense of loyalty and filial piety to Heaven, his will to persevere as a born fighter, his iron constitution that overcomes all disease, must convey his exalted place in the spirit world, his personality, his faith and love. Hence, the first one to be moved by his words happens to be his interpreter himself.

He Loves Korea More than Anybody Else

In conclusion, I would add that Rev. Moon is a true patriot who loves his own country, Korea. When he returned last year he was invited to speak to a group of prominent national leaders at the Institute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He chose as his subject, "May The Fatherland Shine Forth." Hence, he is engaged in the stupendous task of liberating and restoring all mankind on a scale as large as the world itself, yet whenever he returns to his native country he speaks of "May The Fatherland Shine Forth." He never forgets his own country for a moment. And he is constantly busy helping Korea to become a country that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may some day look up to as their own "homeland of faith." In the future, all the peoples of different races and culture scattered in 127 countries of the world will pay visit to Korea as their own

Mecca. It is not to be too distant a future, either. The time will come also when peoples of the world will love and admire things Korean.

The long history of Korea is not exactly a glorious history that we may be proud of, but one of tears, sorrow, and humiliation. The domination of her peninsula for thirty-six years by the imperialist Japan is but one example. Presently, seventeen million Koreans are suffering under the inhuman and oppressive rule of communism in the north. This history is one of suffering and sorrow. Rev. Moon wants to put an end to this once and for all and begin the first page of a glorious future history of Korea, a country that is not to be ignored or forgotten in God's history, a nation whose future generations will bear the brunt of liberating all mankind.

Some time ago, I happened to talk with the president of a leading newspaper in this country. In the course of our conversation, he said that in order to come up with a special edition on the 100 year history of Korea since her open-door policy in the last century, he had gathered and intensively studied the relevant material on the subject. He came to the inevitable conclusion that this 100 year history has been one of shame and humiliation, except for the last ten years. During this time, the Unification Church has come up with an ideology that proclaims to the world the Korean people's noble spirit, their greatness, and all-embracing love for all mankind. This, he added, commands respect and admirat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anks to the Unification Church. It also restores the dignity of the Korean people.

What Rev. Moon has done is more than to save "face" for the Korean people in the last 100 years. Since Tan-Goon, the founder of Korea as a nation 5,000 years ago, no Korean has made such an impact on world history. The world will everlastingly benefit by an ideology conceived and put into practice by a Korean leader. Korea will thus emerge as a liberator in God's history.

And the blessing of the liberation will continue as long as God's history continues.

"May The Fatherland Shine Forth!" This is Rev. Moon's fervent prayer and wish. The shining history of this nation will be realized in our generation and will perpetuate itself for ten thousand generations to come.

"Rev. Moon—the Man", he is the greatest treasure that Korea has ever produced, and his name will signal the new dawn of mankind's history. "Rev. Moon—the man", he is, above all, the Liberator of God.

